
[2021년 해외 이슈조사]

「일본의 수입 신선·냉동 농산물 시장현황 및
한국산 농산물의 진출·확대 방안 조사」
결과보고

2021. 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오사카지사

<조사요강>

[조사목적 및 필요성]

일본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농산물(신선·냉동) 중에서 한국산의 생산동향을 고려한 전략품목을 선정.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국가, 수입, 유통, 수요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산 농산물의 일본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대상]

- 조사대상품목 : 수입 농산물(채소, 과일)
 - ※ 신선·냉동품 대상(건조물 제외)
 - ※ 축산품, 수산물 제외

[조사방법]

STEP1 :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일본산 및 수입 관련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정리
STEP2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대상 품목을 선정함

STEP2 : 대상 품목 세부조사

- 세부조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입 실적이 있는 상사, 도매업자, 수요기업·단체에 대한 의견 청취조사 실시

STEP3 : 전략대상 품목의 일본시장 진출확대 방안

- STEP1, STEP2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시장 진출확대 방안 제안. 통관 등의 관련제도 및 유통비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병행

[조사기간]

2021년 6월 ~ 8월

목차

□ 요약

1. 일본의 농산물 수입현황	1
가. 일본 농산물의 품목별 일본산 및 수입산의 비율	1
(1) 과실(신선·건조)	1
(2) 채소(신선·냉장)	3
(3) 채소(신선·기타 가공)	6
나. 유망 가능성 세부조사 품목선정	9
2. 일본 내 농산물 생산·유통현황	10
가. 조사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수확량·출하량	10
(1) 키위	10
(2) 브로콜리	12
(3) 레몬	14
(4) 블루베리	16
(5) 망고	18
(6) 방울양배추	20
(7) 잎상추	22
나. 도매시장 거래동향	24
(1) 키위	24
(2) 브로콜리	26

목차

[3] 레몬	28
[4] 블루베리	30
[5] 망고	32
[6] 방울양배추	34
[7] 잎상추	36
① 씨니 레터스	36
② 그린 리프 레터스	38
다. 수입동향	40
(1) 수입량	40
(2) 수입금액	41
(3) 수입단가	42
라. 유통현황	43
(1) 일본산 및 수입산의 동향	43
(2) 일본산 및 수입산의 비율(출하량 기준)	44
(3) 용도별 구성비율(출하량 기준)	45
(4) 주요 판매처 · 판매동향	47
(5) 실 수요기업 대응동향	51
(6) 가격동향	53
(7) 유통구조	55

목차

3. 일본시장 진출 · 확대 가능성	58
가. 일본 실수요기업의 한국산에 대한 견해	58
나. 한국산 진출 · 확대 가능성	59
4. 일본시장 진출 · 확대 방안	61
가. 키위	61
(1) 1가구당 연간 평균 구매액	61
(2) 일본 내 현황 및 유통 가능성	62
(3) 유망품목의 형태	63
(4) 일본 내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64
(5) 향후 유망 품목 및 수요분야 진출 시 유의점	64
나. 방울양배추	65
(1) 1가구당 연간 평균 구매액	65
(2) 일본 내 현황 및 유통 가능성	66
(3) 유망품목의 형태	66
(4) 일본 내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67
(5) 향후 유망품목 및 수요분야 진출 시 유의점	67

목차

다. 잎상추	68
(1) 1가구당 연간 평균 구매액	68
(2) 일본 내 현황 및 유통 가능성	69
(3) 유망 품목의 형태	70
(4) 일본 내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71
(5) 향후 유망 품목 및 수요분야 진출 시 유의점	71
라. 블루베리	72
(1) 수입실적	72
(2) 일본 내 현황 및 유통 가능성	74
(3) 유망 품목의 형태	74
(4) 품목별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75
(5) 향후 유망 품목과 수요분야 진출 시 유의점	75
□ 참고자료	
일본의 가공·업무용 채소를 둘러싼 사회구조 변화 ...	76
일본 국내의 샌드위치 시장규모 추이	79
키위의 해외 시장성	80
블루베리의 해외 시장성	84

요약

1. 일본의 농산물 수입현황 개요

- 일본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조사
- 과실(신선·건조)에서 과거 10년간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사과」와 「포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 「라임」 「자몽」 「호두」 「키위」 「망고」 「파파야」 「아보카도」 「리치」
- 채소(신선·냉장)에서 과거 10년간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감자」 「토마토」 「방울양배추」 「배추」 「버섯」. 그중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것은 「토마토」 「배추」
-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마늘」 「송이버섯」 「고추속·피멘타속」 「파프리카(피망대상)」. 그중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것은 「고추속·피멘타속」 「파프리카」
- 채소(냉동·기타가공)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팥콩」 「땅콩(조제품)」 「표고버섯(건조)」 「완두콩」
- 한국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일본으로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7품목(키위, 브로콜리, 레몬, 블루베리, 애플망고, 잎상추(로메인 상추), 방울양배추)을 선정하여, STEP2 이후에 조사

2. 일본 내 생산·유통현황

- 조사대상 품목의 과거 10년간 수입량이 증가(2010년→2020년)한 것은 키위(180.2%), 블루베리(신선, 122.0%), 방울양배추(840.0%), 브로콜리(냉동, 220.6%), 블루베리(냉동, 141.5%)
- 조사대상 품목 중 과거 10년간 수입단가가 증가(2010년→2020년)한 것은 레몬(149.0%), 키위(129.2%), 망고(120.8%), 블루베리(신선, 104.6%), 레몬주스(110.6%), 브로콜리(139.0%), 잎상추(431.6%), 브로콜리(냉동, 140.6%), 블루베리(냉동, 118.2%)
- 일본산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브로콜리, 망고, 잎상추 3품목임. 도매시장에서 수입산 거래량이 많은 것은 키위, 레몬, 망고 3품목
- 조사대상 품목 중, 일본 국내의 수요량에서 수입산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키위, 레몬, 블루베리 3품목

3. 일본시장 진출·확대 가능성

- 일본 실수요기업인 수입상사 및 도매시장, 수요자에 청취조사를 한 결과, 본 조사 품목 중에서 한국산의 보급 가능성이 있는 것은 키위, 방울양배추, 잎상추 3품목. 또한 블루베리는 조건이 갖춰지면 3품목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음

4. 일본시장 진출확대 방안

- 아시아에서 수입 의존율이 높고, 키위의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세계 6위인 일본이 12만 9,800톤, 15위인 한국이 3만8,200톤, 16위인 대만이 3만4,600톤, 21위인 홍콩이 2만8,100톤
- 뉴질랜드산 키위는 12월부터 3월경에 걸쳐 키위의 수입량이 급감함. 이 시기에는 일본산 키위로 조달하고 있지만, 수요에 대해 공급량이 부족하므로, 1~3월에 걸쳐 한국산 키위 수요가 높음. 당도가 높은 골드키위는 한국에서도 재배되고 있어 1~3월에 공급할 수 있다면 시장성은 높음
- 키위는 뉴질랜드산의 거래가 감소하는 1~3월에 수출. 유망 품종은 골드키위. 희망 가격대는 380~400엔/kg. 당도가 높고, 인기가 있는 골드키위는 400엔/kg이라도 수요가 있음. 주요 판매 채널인 업무용(외식업체 등)은 COVID-19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는 일반소매용의 개척이 필요. 한편 한국산 키위는 후숙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온도관리 및 운송관리 개선이 필요
- 방울양배추는 일본산이 12~3월까지 출하되기 때문에, 연중 출하 수요가 있음. 냉동 방울양배추는 가볍게 데쳐진 상태로 수입되어, 특별한 손질 없이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1인 가구 및 요리시간단축 니즈가 높아지는 일본에서 보급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실수요기업의 희망 가격대는 신선 약 550엔/kg, 냉동 약 180엔/kg. 판매채널은 냉동 채소 수요가 높아지는 드럭스토어 및 식자재 마트, 상품형태는 손질 없이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냉동 방울양배추가 바람직. 한편 방울양배추의 인지도가 일본에서 낮기 때문에, 향후 레시피 제안 및 방울양배추 자체의 인지도 제고(프로모션)가 필요
- 일본산 잎상추는 연중 니즈가 높으나, 최근 여름철 기온 상승 등으로 공급량의 불안정 및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업무용 수요(간편 채소, 샌드위치 기업)에서는 안정된 수량·가격으로 조달하려는 니즈가 있음

- 잎상추는 연중 수요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연중 출하 실현 측면에서도 시설원에 재배가 바람직. 희망 가격대는 약 550엔/kg, 판매채널은 업무용(간편 샐러드, 샌드위치)이 유망. 판촉방법은 미국산에 비해 신선도가 높은 점을 홍보하는 것이 유리. 한편 일본에서도 업무용 양상추 생산에 특화된 대규모 식물공장 가동이 시작된 점이 경쟁 요소
- 일본산 블루베리 출하량이 1,521톤인 것에 비해, 신선 블루베리 수입량은 2,492톤, 냉동 블루베리는 2만1,223톤으로 수입이 많은 품목
- 수입국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로 나뉘어 있으며, 수입산 블루베리의 신선도 등 평가가 높아서 진입은 어려움
- 신선·냉동 블루베리의 수출 가능성은 낮지만, 희소가치가 높은 유기농 블루베리를 수출한다면 보급 가능성이 있음
- 블루베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 블루베리로 차별화. 일본 실 수요기업의 희망 가격대는 신선 약 3,500엔/kg. 판매채널은 유통업체, 유기농전문소매점. 판촉방법은 유기농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가 필요. 한편 재배가 어려운 유기농 블루베리의 안정적 공급이 과제

<유망품목 수요 및 시장진출 시 유의점>

유망품목	키위	방울양배추	잎상추	블루베리
차별화 전략	뉴질랜드산 거래량이 줄어드는 1~3월에 수출 유망 품종은 골드키위	일본산은 12~3월까지 출하되기 때문에 연중 출하가 바람직함	미국에 비해 일본과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높은 신선도를 차별화 포인트로 어필	소비자 니즈가 높지만 공급량이 적은 유기농 블루베리를 수출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 도모
일본 내 경쟁력 있는 한국산의 수입가격	380~400엔/kg 당도가 높고 인기가 있는 골드키위는 약 400엔/kg도 수요가 있음	신선 약 550엔/kg, 냉동 약 180엔/kg	약 550엔/kg, 연중 출하. 연중 출하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원예 재배 필요	신선 블루베리 약 3,500엔/kg
유망 유통·판매채널	가공·외식업체용은 COVID-19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향후는 일반소매용의 개척 필요	냉동채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드럭스토어와 식자재 마트	가공·외식업체용(간편 샐러드, 샌드위치)가 유망	유통업체, 유기농 전문 소매점
판촉방법 제안	일본어, 영어 등 표기의 포장 개발	손질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냉동 방울양배추 개발	미국산에 비해 높은 신선도를 판매 전략으로 내세움	유기농을 전면적으로 홍보
유의점	한국산 키위는 후숙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온도 및 운송관리 능력제고 필요	일본에서는 방울양배추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향후 레시피 제안 등 프로모션이 필요함	일본에서 가공·외식업체용 잎상추 생산에 특화된 대규모 식물공장의 가동이 위협	재배가 어려운 유기농 블루베리의 안정 공급이 과제

1. 일본의 농산물 수입현황

가. 일본 농산물의 품목별 일본산 및 수입산의 비율

(1) 과실(신선·건조)

- 과실(신선·건조)에서 과거 10년간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사과」와 「포도」
- 수입 의존이 높은 품목은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 「라임」 「자몽」 「호두」 「키위」 「망고」 「파파야」 「아보카도」 「리치」

품목명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률 (2020/2010)	<2010년 대비 /2020년 수입액>	2010년 대비 증감률, 10% 이상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증감률 10%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국산이 상위에있는 품목	일본내 출하량에 비해 수입이 많은 품목
과실 (신선·건조)	바나나 (신선)	t	1,109,068	959,680	1,068,358	-3.7%	-0.4%			○
	파인애플 (신선)	t	142,577	150,598	157,033	10.1%	1.0%			○
	레몬 (신선·건조)	t	52,594	48,558	44,957	-14.5%	-1.6%			○
	라임 (신선·건조)	t	1,847	2,169	1,825	-1.2%	-0.1%			○
	오렌지 (신선·건조)	t	109,940	84,113	92,909	-15.5%	-1.7%			
	자몽 (신선·건조)	t	174,771	100,960	62,685	-64.1%	-9.7%			○
	수박 (신선)	t	799	289	670	-16.1%	-1.7%	○		
	멜론 (신선)	t	29,518	23,764	17,183	-41.8%	-5.3%			
	사과 (신선)	t	134	1,300	7,446	5464.3%	49.5%	○	○	
	앵두 (신선)	t	11,009	4,924	4,262	-61.3%	-9.1%			
	포도 (신선)	t	12,625	21,915	44,370	251.4%	13.4%	○	○	
	포도 (건조)	t	30,470	31,938	31,648	3.9%	0.4%			△
	밤 (신선·건조)	t	12,625	7,083	4,261	-66.3%	-10.3%	○		

품목명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율 (2020/2010)	<2010년 대비 /2020년 수입>	2010년 대비 증감률, 10% 이상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증감률 10%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국산이 상위에있는 품목	일본내 출하량에 비해 수입이 많은 품목
호두 (신선·건조)	t	9,436	13,789	18,826	99.5%	7.2%				○
스위트 아몬드 (신선·건조)	t	25,744	31,348	38,704	50.3%	4.2%				△
키위 (신선·건조)	t	62,963	78,648	113,432	80.2%	6.1%				○
딸기 (신선)	t	3,259	3,073	3,318	1.8%	0.2%				
망고 (신선)	t	10,391	5,841	6,720	-35.3%	-4.3%				○
파파야 (신선)	t	2,779	1,493	990	-64.4%	-9.8%				○
아보카도 (신선)	t	44,552	57,588	79,560	78.6%	6.0%				○
만다린 등 (신선·건조)	t	10,906	11,644	21,611	98.2%	7.1%				△
캐슈넛 (신선·건조)	t	6,678	9,549	11,592	73.6%	5.7%				△
피스타치오 (신선·건조)	t	2,218	1,897	2,190	-1.3%	-0.1%				△
마카다미아넛 (신선·건조)	t	2,348	2,264	2,571	9.5%	0.9%				△
리치 (신선·건조)	t	523	328	480	91.8%	-0.9%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작물통계」

(2) 채소(신선·냉장)

- 채소(신선·냉장)에서 과거 10년간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감자」 「토마토」 「방울양배추」 「배추」 「버섯」. 그중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것은 「토마토」 「배추」
- 수입 의존이 높은 품목은 「마늘」 「송이버섯」 「고추속·피멘타속」 「파프리카」. 그중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것은 「고추속·피멘타속」 「파프리카」

품목명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률 (2020/2010)	<2010년 대비 /2020년 수입량>	2010년 대비 증감률, 10% 이상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증감률 10%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국산이 상위에있는 품목	일본내 출하량에 비해 수입이 많은 품목
채소 (신선·건조)	t	756,742	774,392	669,602	-11.5%	-1.2%		○		△
감자	t	2	24,184	23,198	1203115%	155.9%	○		○	
토마토	t	2,971	7,038	8,743	194.3%	11.4%	○	○		
양파	t	339,477	303,422	219,961	-35.2%	-4.2%				
샬롯	t	437	428	491	12.3%	1.2%				△
마늘	t	18,557	20,496	22,832	23.0%	21%				○
리크·기타파속 식물	t	54,546	59,600	55,499	1.7%	0.2%				△
파	t	50,188	56,764	52,769	5.1%	0.5%				
콜리플라워	t	14	81	-	-	—				
방울양배추	t	17	103	142	740.0%	23.7%	○		○	
결구양배추	t	23,368	31,465	32,391	38.6%	3.3%		○		
브로콜리	t	35,683	17,804	7,066	-80.2%	-15.0%				
배추	t	149	767	5,591	3645.7%	43.7%	○	○		
기타 배추속 식물	t	243	253	13	-94.5%	-25.2%				△
결구양상추	t	5,720	10,074	7,941	38.8%	3.3%				

품목명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률 (2020/2010)	<2010년 대비 /2020년 수입액>	2010년 대비 증감률, 10% 이상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증감률 10%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국산이 상위에있는 품목	일본내 출하량에 비해 수입이 많은 품목
양상추 (결구제외)	t	270	368	73	-73.0%	-12.3%				
위트루프 치커리	t	464	644	242	-47.7%	-6.3%				△
기타 치커리	t	1,757	3,018	2,269	29.2%	2.6%				△
당근·순무	t	65,187	70,933	84,449	29.5%	2.6%				
당근	t			84,449		—				
샐서피·무등 식용근	t	38,336	45,924	44,213	15.3%	1.4%				△
우엉	t	36,866	44,054	40,504	9.9%	0.9%				
오이·게르킨	t	23	18	38	68.5%	5.4%		○		
완두콩	t	1,984	779	870	-56.1%	-7.9%				
동부속·강낭콩속콩	t	1,450	1,030	890	-38.6%	-4.8%				
기타 콩	t	1,092	630	367	-66.4%	-10.3%				△
아타초크	t	2	12	2	-29.2%	-3.4%				△
아스파라거스	t	12,538	8,927	9,309	-25.8%	-2.9%				
가지	t	78	34	46	-40.6%	-5.1%		○		
샐러리	t	4,946	7,817	5,117	3.5%	0.3%				
송이버섯	t	2,044	897	629	-69.2%	-11.1%				○
표고버섯	t	5,616	2,388	1,785	-68.2%	-10.8%				
버섯 (주름버섯속 버섯)	t	55	14	189	245.7%	13.2%	○		○	
기타 버섯	t	396	278	167	-57.7%	-8.3%		○		△
트리플	t	14	15	18	24.4%	2.2%				△
고추속·피멘타속	t	25,997	39,824	37,479	44.2%	3.7%		○		○

품목명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율 (2020/2010)	<2010년 대비 /2020년 수입자>	2010년 대비 증감률, 10% 이상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증감률 10%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국산이 상위에있는 품목	일본내 출하량에 비해 수입이 많은 품목
파프리카(피망 대상)	t	25,411	39,679	36,804	44.8%	3.8%		○		○
시금치·번행초 등	t		13			—				
스위트콘	t	51	17	2	-95.6%	-26.9%				
단호박	t	106,355	106,862	91,410	-14.1%	-1.5%		○		
올리브	t			9		—				
기타채소	t	6,902	8,237	6,160	-10.8%	-1.1%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3) 채소(냉동·기타 가공)

- 채소(냉동·기타가공)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팥콩」 「땅콩(조제품)」 「표고버섯(건조)」 「완두콩」

품목명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율 (2020/2010)	CAGR <2010년 대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율, 10% 이상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증감률 10%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국산이 상위에있는 품목	일본내 출하량에 비해 수입이 많은 품목
냉동 채소	냉동채소	t	831,203	912,189	1,034,014	24.4%	22%				△
	팥콩	t	66,818	72,865	71,122	6.4%	0.6%				○
	시금치 번행초	t	27,088	40,657	48,053	77.4%	5.9%				△
	스위트콘	t	41,765	43,878	47,583	13.9%	1.3%				△
	브로콜리	t	26,577	42,589	58,619	120.6%	8.2%				
	감자 가열냉동	t	264,236	229,281	254,503	-3.7%	-0.4%				△
채소캔 ·병조림류 등	채소캔 · 병조 림류등	t	657,247	673,004	704,465	7.2%	0.7%				△
	토마토 퓨레· 페이스트	t	98,380	120,597	144,164	46.5%	3.9%				△
	토마토 (조제한것)	t	102,066	109,187	118,295	15.9%	1.5%				△
	토마토 케첩	t	6,153	6,144	6,418	4.3%	0.4%				△
	아스파 라거스 통조림	t	1,330	935	941	-29.2%	-3.4%				△
	죽순 조제품	t	83,587	73,015	60,237	-27.9%	-3.2%				△
	프렌치 머시룸(통조림)	t	7,626	7,226	5,454	-28.5%	-3.3%				△
	스위트콘 (조제품)	t	48,519	54,046	58,033	19.6%	1.8%				△
	야채쥬스	t	36,045	44,172	49,698	37.9%	3.3%				△
기타채소 조제품	t	983,676	1,049,893	1,162,246	18.2%	1.7%				△	

품목명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율 (2020/2010)	CAGR <2010년 대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율, 10% 이상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증감률 10%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일본내 출하량에 비해 수입이 많은 품목
기타 채소조 제품· 기타	과실· 캔병조 림(조제)	t	565,178	538,070	544,431	-3.7%	-0.4%			△
	잼(가당)	t	6,744	4,535	3,451	-48.8%	-6.5%			△
	과일퓨레 ·파우더	t	4,963	6,387	7,517	51.5%	4.2%			△
	파인애플 통조림	t	35,873	31,948	28,832	-19.6%	-2.2%			△
	복숭아 통조림	t	51,260	44,748	43,070	-16.0%	-1.7%			△
	매실 (조제품)	t	8,529	6,199	5,940	-30.4%	-3.6%			△
	과즙	t	283,597	263,573	265,894	-6.2%	-0.6%			△
	오렌지 주스	t	89,212	80,910	79,164	-11.3%	-1.2%			△
	자몽주스	t	24,677	24,859	15,036	-39.1%	-4.8%			△
	파인애플 주스	t	10,765	7,932	11,499	6.8%	0.7%			△
	레몬주스	t	13,820	14,333	21,970	59.0%	4.7%			△
	라임주스	t	381	673	516	35.3%	3.1%			△
	포도주스	t	47,747	35,464	40,825	-14.5%	-1.6%			△
	사과주스	t	78,527	78,707	72,691	-7.4%	-0.8%			△
	크랜베리 주스	t		199	170		—			△
	기타과실 ·건과류 조제품	t	186,578	181,452	192,353	3.1%	0.3%			△
	파인애플 (냉동)	t	952	1,991	2,177	128.6%	8.6%			△
	땅콩 (조제한 것)	t	58,641	47,237	47,780	-18.5%	-2.0%			○
	땅콩 (볶은것)	t	10,255	5,860	8,052	-21.5%	-2.4%			
	채소· 채소조제품	t		—			△

품목명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율 (2020/2010)	CAGR <2010년 대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율, 10% 이상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증감률 10%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국산이 상위에 있는 품목	일본내 출하량에 비해 수입이 많은 품목
기타 채소조 제품·기타	채소 (신선, 냉장, 건조)	t	—		○		△
	간장·절단·부스라기·분말	t	46,001	42,935	41,136	-10.6%	-1.1%			△
	죽순 (건조)	t	2,027	1,920	1,793	-11.5%	-1.2%			△
	표고버섯 (건조)	t	6,127	5,029	4,354	-28.9%	-3.4%			○
	간장·콩·버섯·간장	MT	127,516	127,432	131,506	3.1%	0.3%			△
	잡콩	MT	74,718	72,176	78,926	5.6%	0.5%			
	팥	MT	18,885	20,359	25,517	35.1%	3.1%			△
	누에콩	MT	6,592	5,085	3,635	-44.9%	-5.8%			
	강낭콩	MT	11,786	11,857	12,618	7.1%	0.7%			
	완두콩	MT	12,676	14,430	18,386	45.0%	3.8%			○
	가래콩	MT	24,779	20,445	18,770	-24.3%	-2.7%			△
	녹두	MT	52,798	55,256	52,580	-0.4%	0.0%			△
	카사바·아로루트 등	t	42,284	19,637	15,376	-63.6%	-9.6%			△
	토란	t	7,858	4,348	3,598	-54.2%	-7.5%			
구약·물	t	467	464	111	-76.3%	-13.4%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작물통계」

나. 유망 가능성 세부조사 품목선정

- 과거 10년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일본의 출하량이 적은 품목, 한국산이 상위에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와 같음

유망 가능성 세부조사 품목	선정 이유
키위	<p>일본 키위의 연간 1가구당 소비지출금액은 2010년 1,073엔이었으나 2020년 2,085엔으로 최근 10년 동안 2배로 확대되었음</p> <p>또한 일본산은 15,600t인 것에 비해 수입산은 11만3,000 t으로,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함.</p> <p>수입산이 대부분이고 일본 내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망품목 선정. 제스프리사의 일본 국내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산 키위(골드키위)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조사함</p>
망고(애플망고)	<p>일본 내 생산량은 약 3,000t, 수입산은 약 6,000t으로 수입산이 우위에 있음. 수입국은 멕시코가 50%를 차지하며 이어서 태국, 대만 순임</p> <p>멕시코와 일본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산은 신선도가 높은 점을 내세우고, 고가격대는 일본산, 저가격대는 멕시코 등의 수입국으로 하며 한국산은 그 중간 가격대의 가능성을 조사함</p> <p>또한, 한국 국내에서 시설원예로 망고를 재배함에 따라 일본에서 수요 여부를 조사함</p>

- 한국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으로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브로콜리, 레몬, 블루베리, 잎상추(로메인 상추), 방울양배추)를 추가로 선정하여 STEP2에서 세부조사하는 것으로 결정

2. 일본 내 농산물 생산·유통현황

가. 조사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수확량·출하량

(1) 키위

- 2019년도 키위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97.4%인 1,900ha,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101.2%인 2만5,300톤

< 키위 재배면적 >

(단위: ha)

순위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2019년도 (2019년 4월~2020년 3월)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1	에히메	374	18.7	에히메	367	18.8	에히메	351	18.5
2	후쿠오카	279	14.0	후쿠오카	266	13.6	후쿠오카	263	13.8
3	와카야마	152	7.6	와카야마	152	7.8	와카야마	153	8.1
4	가나가와	136	6.8	가나가와	133	6.8	가나가와	132	6.9
5	시즈오카	120	6.0	시즈오카	118	6.1	시즈오카	111	5.8
6	군마	73	3.7	군마	73	3.7	군마	71	3.7
7	도치기	60	3.0	도치기	59	3.0	도치기	59	3.1
8	야마나시	55	2.8	야마나시	55	2.8	가가와	56	2.9
9	사가	55	2.8	가가와	55	2.8	야마나시	55	2.9
10	가가와	53	2.7	사가	50	2.6	지바	47	2.5
	전국 합계	2,000	100	전국 합계	1,950	100	전국 합계	1,900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키위 수확량 >

(단위: t)

순위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2019년도 (2019년 4월~2020년 3월)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1	에히메	6,840	22.8	에히메	5,210	20.8	에히메	6,000	23.7
2	후쿠오카	5,410	18.0	후쿠오카	4,580	18.3	후쿠오카	5,230	20.7
3	와카야마	4,060	13.5	와카야마	2,990	12.0	와카야마	3,040	12.0
4	가나가와	1,880	6.3	가나가와	1,820	7.3	가나가와	1,480	5.8
5	시즈오카	1,550	5.2	시즈오카	1,320	5.3	시즈오카	949	3.8
6	야마나시	1,010	3.4	군마	942	3.8	야마나시	825	3.3
7	군마	986	3.3	야마나시	902	3.6	군마	824	3.3
8	도치기	882	2.9	도치기	850	3.4	도치기	785	3.1
9	사가	759	2.5	사가	695	2.8	사가	699	2.8
10	지바	629	2.1	오이타	603	2.4	오이타	593	2.3
	전국 합계	30,000	100	전국 합계	25,000	100	전국 합계	25,300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2019년도 키위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103.2%인 2만 2,500톤
- 지역별로는 에히메가 5,660톤(구성비 25.2%)으로 가장 많고, 후쿠오카 4,940톤(22.0%), 와카야마 2,800톤(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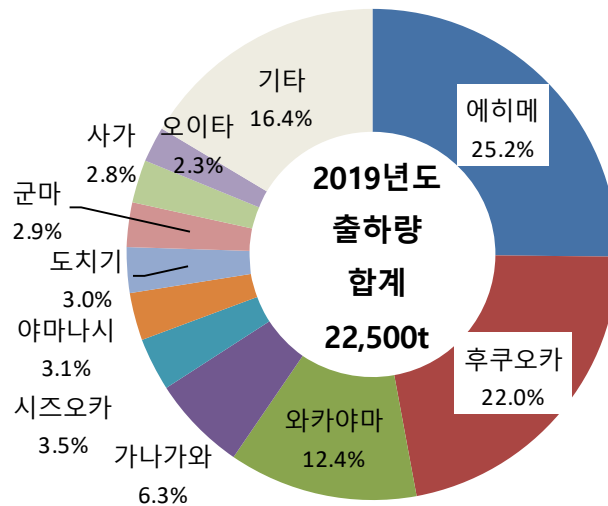
< 키위 출하량 >

(단위: t)

순위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2019년도 (2019년 4월~2020년 3월)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1	에히메	6,490	24.8	에히메	4,910	22.5	에히메	5,660	25.2
2	후쿠오카	5,080	19.4	후쿠오카	4,310	19.8	후쿠오카	4,940	22.0
3	와카야마	3,740	14.3	와카야마	2,750	12.6	와카야마	2,800	12.4
4	가나가와	1,760	6.7	가나가와	1,730	7.9	가나가와	1,420	6.3
5	시즈오카	1,220	4.7	시즈오카	990	4.5	시즈오카	780	3.5
6	야마나시	857	3.3	군마	773	3.5	야마나시	706	3.1
7	군마	769	2.9	야마나시	734	3.4	군마	678	3.0
8	도치기	672	2.6	도치기	674	3.1	도치기	659	2.9
9	사가	694	2.6	사가	634	2.9	사가	637	2.8
10	지바	559	2.1	오이타	533	2.4	오이타	524	2.3
	전국 합계	26,200	100	전국 합계	21,800	100	전국 합계	22,500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작물통계」

< 2019년도 키위 지역별 출하량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작물통계」

(2) 브로콜리

- 2019년도 브로콜리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103.8%인 1만 6,000ha,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110.2%인 16만 9,500톤

< 브로콜리 재배면적 >

(단위: ha)

순위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2019년도 (2019년 4월~2020년 3월)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1	홋카이도	2,500	16.8	홋카이도	2,560	16.6	홋카이도	2,700	16.9
2	사이타마	1,210	8.1	사이타마	1,240	8.1	가가와	1,390	8.7
3	가가와	1,110	7.4	가가와	1,170	7.6	사이타마	1,260	7.9
4	아이치	944	6.3	나가노	942	6.1	나가노	1,010	6.3
5	나가노	923	6.2	아이치	940	6.1	아이치	955	6.0
6	돗토리	784	5.3	도쿠시마	876	5.7	도쿠시마	940	5.9
7	도쿠시마	768	5.2	나가사키	781	5.1	나가사키	902	5.6
8	나가사키	737	4.9	돗토리	749	4.9	돗토리	731	4.6
9	군마	656	4.4	군마	661	4.3	군마	630	3.9
10	후쿠오카	537	3.6	후쿠오카	558	3.6	후쿠오카	549	3.4
	전국 합계	14,900	100	전국 합계	15,400	100	전국 합계	16,000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브로콜리 수확량 >

(단위: t)

순위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2019년도 (2019년 4월~2020년 3월)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1	홋카이도	25,000	17.3	홋카이도	22,800	14.8	홋카이도	26,700	15.8
2	사이타마	13,100	9.1	사이타마	14,000	9.1	아이치	15,700	9.3
3	아이치	12,900	8.9	아이치	13,900	9.0	가가와	15,400	9.1
4	가가와	11,100	7.7	가가와	13,000	8.5	사이타마	15,200	9.0
5	나가노	9,880	6.8	도쿠시마	10,200	6.6	도쿠시마	11,900	7.0
6	도쿠시마	8,830	6.1	나가노	9,700	6.3	나가노	10,600	6.3
7	나가사키	6,710	4.6	나가사키	7,970	5.2	나가사키	9,470	5.6
8	군마	6,400	4.4	군마	6,870	4.5	돗토리	7,270	4.3
9	돗토리	4,750	3.3	돗토리	5,760	3.7	군마	6,550	3.9
10	후쿠오카	4,330	3.0	후쿠오카	4,720	3.1	후쿠오카	5,060	3.0
	전국 합계	144,600	100	전국 합계	153,800	100	전국 합계	169,500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2019년도 브로콜리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110.6%인 15만 3,700톤
- 지역별로는 홋카이도가 2만 5,600톤(구성비 16.7%)으로 가장 많고, 아이치 1만 4,600톤(9.5%), 가가와 1만 4,400톤(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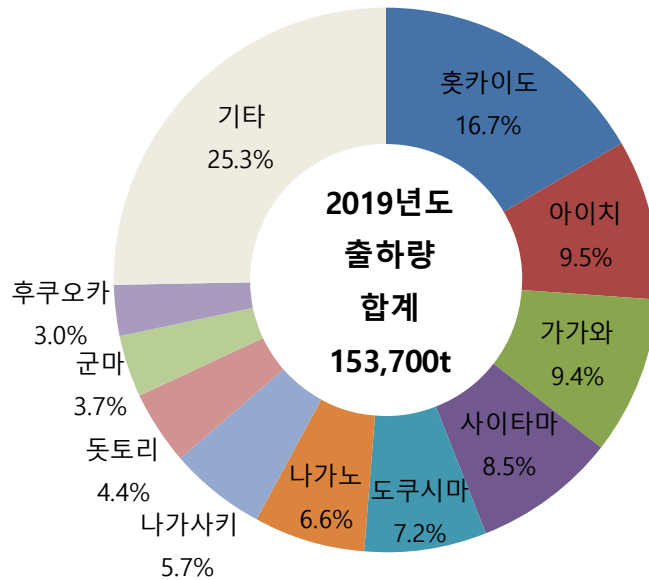
< 브로콜리 출하량 >

(단위: t)

순위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2019년도 (2019년 4월~2020년 3월)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1	홋카이도	23,800	18.3	홋카이도	21,700	15.6	홋카이도	25,600	16.7
2	아이치	12,000	9.2	아이치	12,900	9.3	아이치	14,600	9.5
3	사이타마	11,200	8.6	가가와	12,200	8.8	가가와	14,400	9.4
4	가가와	10,400	8.0	사이타마	12,000	8.6	사이타마	13,100	8.5
5	나가노	9,470	7.3	도쿠시마	9,480	6.8	도쿠시마	11,100	7.2
6	도쿠시마	8,120	6.2	나가노	9,310	6.7	나가노	10,200	6.6
7	나가사키	6,230	4.8	나가사키	7,390	5.3	나가사키	8,780	5.7
8	군마	5,540	4.3	군마	5,930	4.3	돗토리	6,780	4.4
9	돗토리	4,320	3.3	돗토리	5,370	3.9	군마	5,650	3.7
10	후쿠오카	3,940	3.0	후쿠오카	4,310	3.1	후쿠오카	4,640	3.0
	전국 합계	130,200	100	전국 합계	138,900	100	전국 합계	153,700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작물통계」

< 2019년도 브로콜리 지역별 출하량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작물통계」

(3) 레몬

- 2018년도 레몬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107.8%인 565ha,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85.8%인 7,089톤

< 레몬 재배면적 >

(단위: ha)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1	히로시마	227	46.4	히로시마	247	47.2	히로시마	267	47.2
2	에히메	122	25.0	에히메	126	24.1	에히메	137	24.1
3	와카야마	36	7.4	와카야마	42	8.0	와카야마	44	7.7
4	구마모토	17	3.5	구마모토	18	3.4	구마모토	21	3.7
5	오카야마	12	2.5	미야자키	13	2.5	미야자키	15	2.7
6	미야자키	11	2.2	오카야마	12	2.3	오카야마	12	2.1
7	가가와	9	1.9	가가와	11	2.0	가가와	12	2.0
8	미에	8	1.6	사가	9	1.7	사가	10	1.8
9	사가	8	1.5	미에	8	1.5	미에	8	1.4
10	나가사키	7	1.4	나가사키	7	1.2	나가사키	7	1.2
	전국 합계	488	100	전국 합계	524	100	전국 합계	565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레몬 수확량 >

(단위: t)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1	히로시마	5,220	61.7	히로시마	4,790	58.0	히로시마	3,570	50.4
2	에히메	1,757	20.8	에히메	1,897	23.0	에히메	1,850	26.1
3	와카야마	559	6.6	와카야마	580	7.0	와카야마	656	9.3
4	미에	185	2.2	구마모토	247	3.0	미야자키	174	2.5
5	구마모토	128	1.5	미야자키	133	1.6	구마모토	145	2.0
6	미야자키	106	1.2	사가	101	1.2	미에	141	2.0
7	가가와	83	1.0	가가와	85	1.0	사가	99	1.4
8	사가	78	0.9	나가사키	85	1.0	가가와	85	1.2
9	나가사키	63	0.7	고치	53	0.6	나가사키	82	1.2
10	고치	51	0.6	미에	50	0.6	고치	50	0.7
	전국 합계	8,459	100	전국 합계	8,259	100	전국 합계	7,089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2018년도 레몬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86.0%인 5,528톤
- 지역별로는 히로시마가 2,327톤(구성비 42.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에히메 1,731톤(31.3%), 와카야마 531톤(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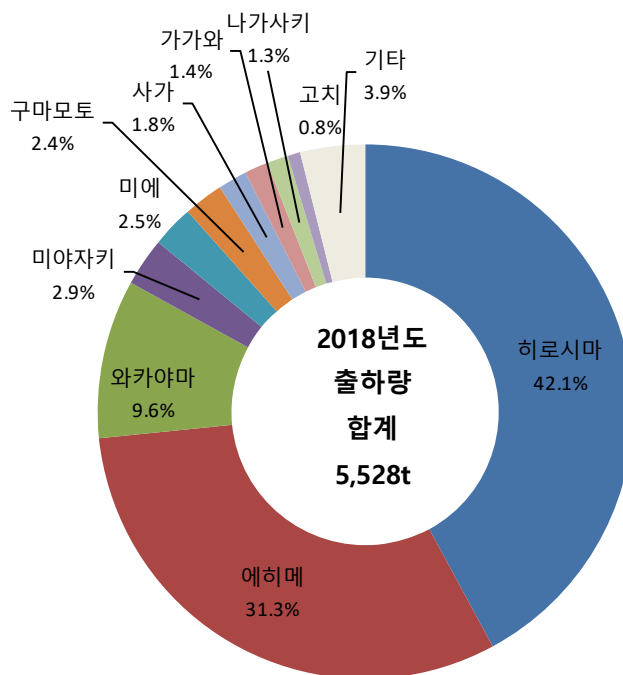
< 레몬 출하량 >

(단위: t)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1	히로시마	3,418	54.0	히로시마	3,247	50.6	히로시마	2,327	42.1
2	에히메	1,645	26.0	에히메	1,773	27.6	에히메	1,731	31.3
3	와카야마	446	7.0	와카야마	461	7.2	와카야마	531	9.6
4	미에	185	2.9	구마모토	216	3.4	미야자키	161	2.9
5	구마모토	112	1.8	미야자키	125	1.9	미에	141	2.5
6	미야자키	99	1.6	사가	99	1.5	구마모토	131	2.4
7	사가	76	1.2	가가와	77	1.2	사가	98	1.8
8	가가와	74	1.2	나가사키	71	1.1	가가와	77	1.4
9	나가사키	52	0.8	오카야마	57	0.9	나가사키	71	1.3
10	고치	47	0.7	미에	50	0.8	고치	43	0.8
	전국 합계	6,334	100	전국 합계	6,422	100	전국 합계	5,528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작물통계」

< 2019년도 레몬 지역별 출하량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작물통계」

(4) 블루베리

- 2018년도 블루베리의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95.7%인 1,068ha,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93.3%인 2,388톤

< 블루베리 재배면적 >

(단위: ha)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1	나가노	111	10.4	도쿄	128	11.5	도쿄	128	12.0
2	도쿄	110	10.3	나가노	112	10.0	나가노	95	8.9
3	군마	85	8.0	이바라키	106	9.5	군마	86	8.0
4	이바라키	75	7.0	군마	85	7.6	이바라키	84	7.9
5	이와테	56	5.2	사이타마	59	5.3	사이타마	61	5.7
6	지바	49	4.6	이와테	57	5.1	이와테	53	4.9
7	아오모리	46	4.3	아오모리	45	4.1	아오모리	44	4.1
8	홋카이도	44	4.1	홋카이도	43	3.8	홋카이도	42	3.9
9	사이타마	41	3.8	지바	42	3.8	지바	41	3.8
10	아키타	37	3.4	아키타	39	3.5	아키타	38	3.5
	전국 합계	1,068	100	전국 합계	1,115	100	전국 합계	1,068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특산과수 생산동태 등 조사」

< 블루베리 수확량 >

(단위: t)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1	도쿄	330	13.3	도쿄	384	15.0	도쿄	384	16.1
2	나가노	284	11.5	이바라키	306	11.9	군마	271	11.3
3	군마	269	10.9	나가노	276	10.8	나가노	259	10.9
4	이바라키	244	9.8	군마	267	10.4	이바라키	240	10.0
5	지바	133	5.4	지바	126	4.9	지바	105	4.4
6	이와테	114	4.6	이와테	113	4.4	이와테	103	4.3
7	아이치	77	3.1	사이타마	110	4.3	사이타마	94	3.9
8	아오모리	72	2.9	아이치	78	3.0	아이치	73	3.1
9	사이타마	70	2.8	야마가타	74	2.9	아오모리	66	2.8
10	야마가타	67	2.7	아오모리	70	2.7	구마모토	66	2.7
	전국 합계	2,476	100	전국 합계	2,558	100	전국 합계	2,388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업성 「특산과수 생산동태 등 조사」

- 2018년 블루베리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92.4%인 1,521톤
- 지역별로는 나가노가 179톤(구성비 11.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쿄가 140톤(9.2%), 군마가 135톤(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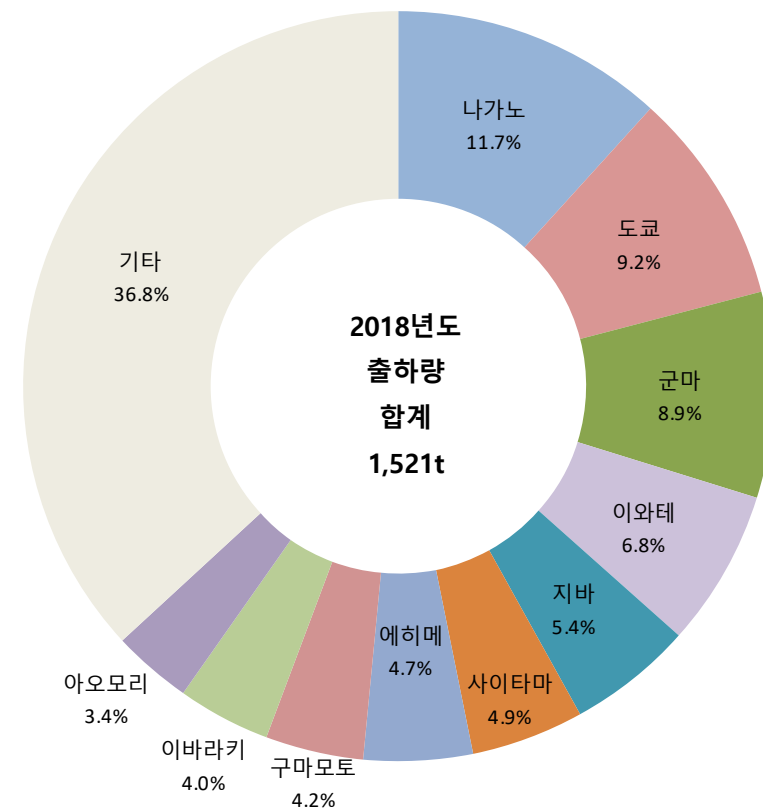
< 블루베리 출하량 >

(단위: t)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1	나가노	211	12.6	나가노	198	12.0	나가노	179	11.7
2	도쿄	210	12.6	도쿄	140	8.5	도쿄	140	9.2
3	군마	126	7.5	이바라키	136	8.3	군마	135	8.9
4	이와테	114	6.8	군마	122	7.4	이와테	103	6.8
5	지바	101	6.0	이와테	113	6.8	지바	82	5.4
6	에히메	73	4.3	지바	94	5.7	사이타마	74	4.9
7	이바라키	72	4.3	에히메	75	4.5	에히메	71	4.7
8	아오모리	56	3.3	사이타마	74	4.5	구마모토	64	4.2
9	야마가타	51	3.1	야마가타	56	3.4	이바라키	61	4.0
10	사이타마	45	2.7	아오모리	56	3.4	아오모리	52	3.4
	전국 합계	1,672	100	전국 합계	1,645	100	전국 합계	1,521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특산과수 생산동태 등 조사」

< 2018년도 블루베리 지역별 출하량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5) 망고

- 2018년도 망고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102.5%인 443ha,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85.2%인 3,452톤

< 망고 재배면적 >

(단위: ha)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1	오кина와	251	59.5	오кина와	261	60.5	오кина와	273	61.6
2	미야자키	91	21.6	미야자키	89	20.5	미야자키	91	20.6
3	가고시마	66	15.7	가고시마	66	15.3	가고시마	64	14.5
4	구마모토	5	1.3	구마모토	5	1.2	구마모토	5	1.1
5	고치	2	0.5	시즈오카	2	0.6	고치	3	0.6
6	시즈오카	2	0.4	홋카이도	2	0.5	시즈오카	2	0.5
7	후쿠오카	2	0.4	고치	2	0.5	오카야마	1	0.2
8	와카야마	1	0.3	후쿠오카	1	0.3	후쿠오카	1	0.2
9	도쿄	1	0.2	오카야마	1	0.2	홋카이도	1	0.2
10	에히메	1	0.1	와카야마	1	0.2	나가사키	1	0.2
	전국 합계	421	100	전국 합계	432	100	전국 합계	443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특산과수 생산동태 등 조사」

< 망고 수확량 >

(단위: t)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1	오кина와	1,297	44.4	오кина와	2,206	54.5	오кина와	1,782	51.6
2	미야자키	1,097	37.5	미야자키	1,203	29.7	미야자키	1,165	33.7
3	가고시마	402	13.8	가고시마	488	12.1	가고시마	380	11.0
4	구마모토	66	2.3	구마모토	77	1.9	구마모토	66	1.9
5	고치	22	0.7	고치	22	0.5	고치	27	0.8
6	후쿠오카	12	0.4	홋카이도	21	0.5	시즈오카	9	0.3
7	와카야마	9	0.3	시즈오카	9	0.2	홋카이도	7	0.2
8	시즈오카	7	0.3	후쿠오카	8	0.2	후쿠오카	5	0.1
9	도쿄	5	0.2	와카야마	6	0.1	와카야마	5	0.1
10	나가사키	4	0.1	나가사키	4	0.1	도쿄	4	0.1
	전국 합계	2,923	100	전국 합계	4,047	100	전국 합계	3,452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특산과수 생산동태 등 조사」

- 2018년도 망고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86.0%인 3,329톤
- 지역별로는 오키나와가 1,744톤(구성비 5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야자키 1,123톤(33.7%), 가고시마 350톤(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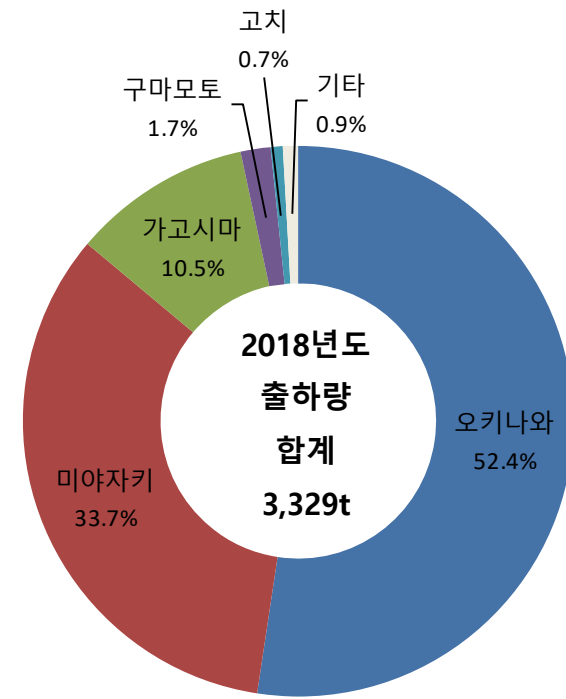
< 망고 출하량 >

(단위: t)

순위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7년도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1	오키나와	1,276	45.2	오키나와	2,130	55.1	오키나와	1,744	52.4
2	미야자키	1,049	37.2	미야자키	1,159	30.0	미야자키	1,123	33.7
3	가고시마	373	13.2	가고시마	437	11.3	가고시마	350	10.5
4	구마모토	65	2.3	구마모토	74	1.9	구마모토	58	1.7
5	고치	21	0.7	홋카이도	21	0.5	고치	24	0.7
6	후쿠오카	11	0.4	고치	20	0.5	시즈오카	8	0.2
7	와카야마	8	0.3	시즈오카	8	0.2	홋카이도	7	0.2
8	시즈오카	7	0.2	후쿠오카	7	0.2	후쿠오카	5	0.1
9	도쿄	4	0.1	와카야마	6	0.1	와카야마	4	0.1
10	나가사키	4	0.1	나가사키	4	0.1	도쿄	3	0.1
	전국 합계	2,819	100	전국 합계	3,869	100	전국 합계	3,329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특산과수 생산동태 등 조사」

< 2018년도 망고 지역별 출하량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특산과수 생산동태 등 조사」

(6) 방울양배추

- 2018년도 방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102.8%인 36ha,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93.7%인 316톤

< 방울양배추 재배면적 >

(단위: ha)

순위	2014년도 (2014년 4월~2015년 3월)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1	시즈오카	27	84.4	시즈오카	31	88.6	시즈오카	33	91.7
2	야마가타	1	3.1	미야기	1	2.9	야마가타	1	2.8
3	효고	1	3.1	야마가타	1	2.9	사이타마	1	2.8
4	시마네	1	3.1						
5	후쿠오카	1	3.1						
	전국 합계	32	100	전국 합계	35	100	전국 합계	36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 방울양배추 수확량 >

(단위: t)

순위	2014년도 (2014년 4월~2015년 3월)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1	시즈오카	304	91.0	시즈오카	310	92.0	시즈오카	294	93.0
2	효고	11	3.3	야마가타	5	1.5	야마가타	5	1.6
3	후쿠오카	6	1.8	가나가와	3	0.9	가나가와	4	1.3
4	시마네	5	1.5	효고	3	0.9	미야기	2	0.6
5	미야기	2	0.6	미야기	2	0.6	오사카	2	0.6
6	사이타마	2	0.6	지바	2	0.6	효고	2	0.6
7	가나가와	2	0.6	오사카	2	0.6	사이타마	1	0.3
8	야마가타	1	0.3	미야자키	2	0.6	지바	1	0.3
9	이와테	1	0.3	도쿠시마	1	0.3			0.0
10	오사카	1	0.3						0.0
	전국 합계	334	100	전국 합계	337	100	전국 합계	316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 2018년도 방울양배추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94.0%인 314톤
- 지역별로는 시즈오카가 294톤(구성비 93.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야마가타 5톤(1.6%), 가나가와 3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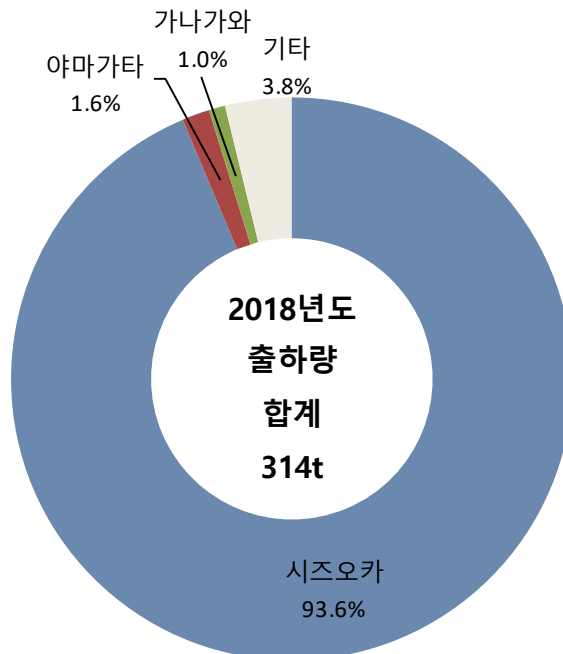
< 방울양배추 출하량 >

(단위: t)

순위	2014년도 (2014년 4월~2015년 3월)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1	시즈오카	304	93.3	시즈오카	310	92.8	시즈오카	294	93.6
2	효고	9	2.8	야마가타	5	1.5	야마가타	5	1.6
3	후쿠오카	4	1.2	효고	3	0.9	가나가와	3	1.0
4	시마네	2	0.6	가나가와	2	0.6	미야기	2	0.6
5	미야기	2	0.6	미야기	2	0.6	오사카	2	0.6
6	사이타마	1	0.3	오사카	2	0.6	효고	2	0.6
7	가나가와	1	0.3	미야자키	1	0.3	사이타마	1	0.3
8	야마가타	1	0.3	도쿠시마	1	0.3	지바	1	0.3
9	오사카	1	0.3						
	전국 합계	326	100	전국 합계	334	100	전국 합계	314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 2018년도 방울양배추 지역별 출하량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7) 잎상추

- 2018년도 잎상추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101.0%인 3,365ha,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105.9%인 6만 7,362톤

< 잎상추 재배면적 >

(단위: ha)

순위	2014년도 (2014년 4월~2015년 3월)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지역	재배면적	비율(%)
1	나가노	1,253	38.7	나가노	1,320	39.6	나가노	1,237	36.8
2	후쿠오카	505	15.6	후쿠오카	519	15.6	후쿠오카	598	17.8
3	이바라키	433	13.4	이바라키	473	14.2	이바라키	449	13.3
4	이와테	135	4.2	이와테	137	4.1	가가와	135	4.0
5	군마	106	3.3	가가와	105	3.2	이와테	114	3.4
6	가가와	99	3.1	군마	99	3.0	군마	110	3.3
7	아이치	97	3.0	아이치	99	3.0	시즈오카	109	3.2
8	효고	79	2.4	효고	81	2.4	아이치	90	2.7
9	지바	67	2.1	시즈오카	77	2.3	지바	80	2.4
10	시즈오카	60	1.9	미야기	65	2.0	효고	79	2.3
	전국 합계	3,236	100	전국 합계	3,330	100	전국 합계	3,365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 잎상추 수확량 >

(단위: t)

순위	2014년도 (2014년 4월~2015년 3월)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지역	수확량	비율(%)
1	나가노	28,961	42.7	나가노	27,092	42.6	나가노	26,812	39.8
2	후쿠오카	10,724	15.8	이바라키	9,001	14.2	후쿠오카	10,030	14.9
3	이바라키	8,360	12.3	후쿠오카	8,728	13.7	이바라키	8,314	12.3
4	군마	2,089	3.1	가가와	2,024	3.2	시즈오카	2,206	3.3
5	아이치	1,934	2.9	군마	1,834	2.9	가가와	2,121	3.1
6	홋카이도	1,923	2.8	아이치	1,713	2.7	군마	2,102	3.1
7	지바	1,801	2.7	시즈오카	1,654	2.6	아이치	2,092	3.1
8	효고	1,607	2.4	효고	1,588	2.5	이와테	1,895	2.8
9	가가와	1,581	2.3	이와테	1,480	2.3	지바	1,883	2.8
10	시즈오카	1,407	2.1	지바	1,366	2.1	홋카이도	1,642	2.4
	전국 합계	67,825	100	전국 합계	63,577	100	전국 합계	67,362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 2018년도 잎상추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105.8%인 6,086톤
- 지역별로는 나가노현이 2만 6,443톤(구성비 4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후쿠오카현 9,940톤(15.0%), 이바라키현 8,287톤(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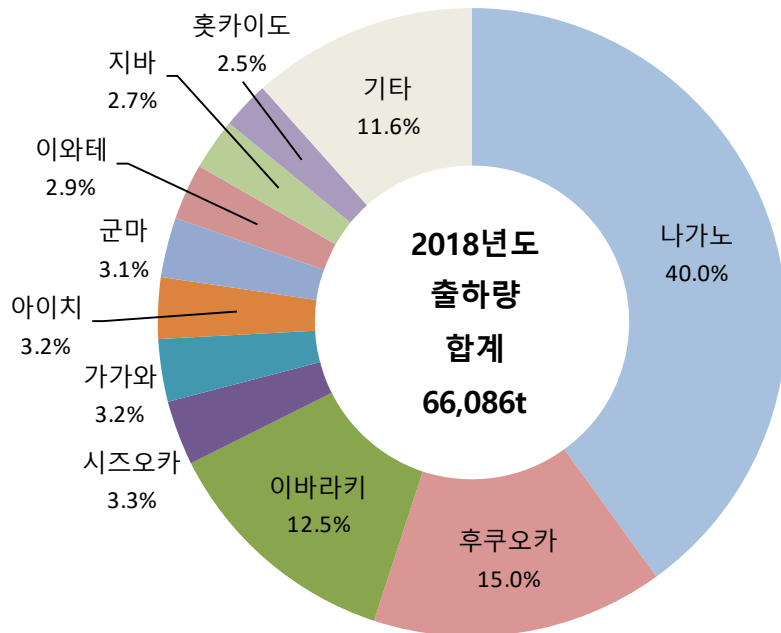
< 잎상추 출하량 >

(단위: t)

순위	2014년도 (2014년 4월~2015년 3월)			2016년도 (2016년 4월~2017년 3월)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지역	출하량	비율(%)
1	나가노	28,759	43.6	나가노	27,012	43.3	나가노	26,443	40.0
2	후쿠오카	10,125	15.3	이바라키	8,831	14.1	후쿠오카	9,940	15.0
3	이바라키	8,211	12.4	후쿠오카	8,590	13.8	이바라키	8,287	12.5
4	군마	1,943	2.9	가가와	2,024	3.2	시즈오카	2,206	3.3
5	아이치	1,915	2.9	군마	1,695	2.7	가가와	2,121	3.2
6	홋카이도	1,837	2.8	아이치	1,694	2.7	아이치	2,086	3.2
7	지바	1,777	2.7	시즈오카	1,643	2.6	군마	2,052	3.1
8	가가와	1,581	2.4	이와테	1,475	2.4	이와테	1,894	2.9
9	효고	1,442	2.2	지바	1,360	2.2	지바	1,759	2.7
10	시즈오카	1,405	2.1	효고	1,344	2.2	홋카이도	1,622	2.5
	전국 합계	65,991	100	전국 합계	62,411	100	전국 합계	66,086	100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 2018년도 잎상추 지역별 출하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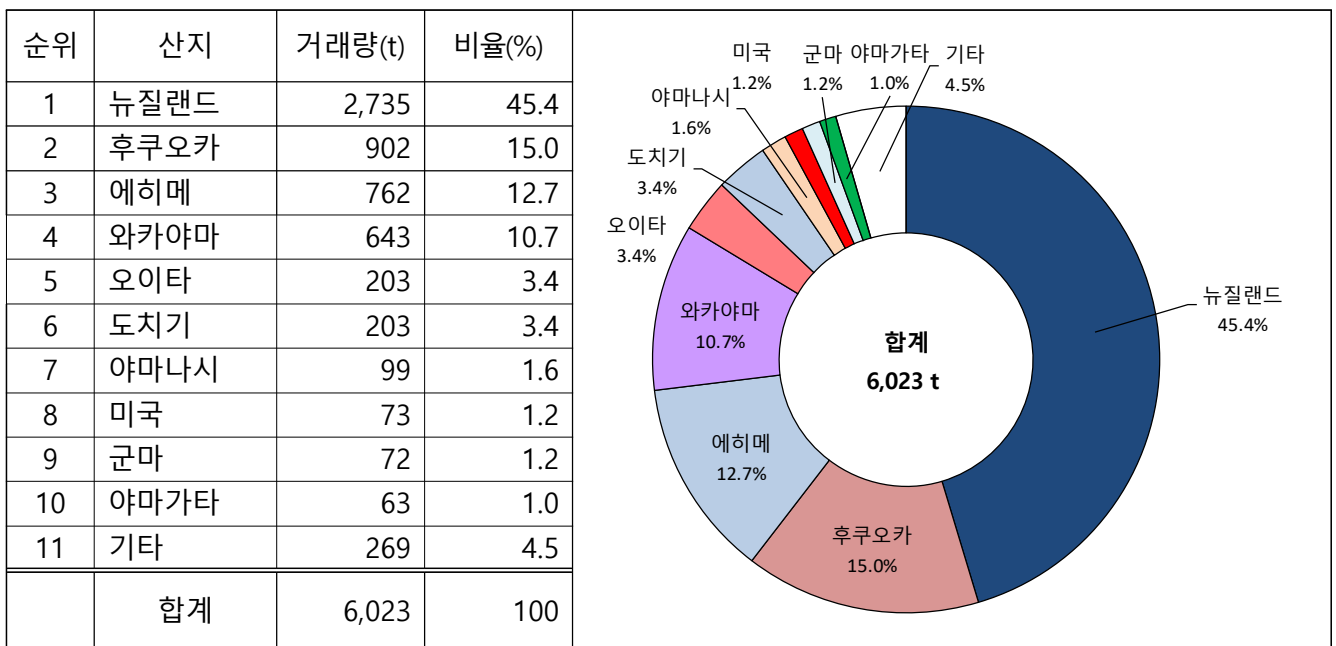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 채소생산 현황 조사」

나. 도매시장 거래동향

(1) 키위

-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키위 거래실적은 6,023톤임. 뉴질랜드산이 2,735톤(45.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후쿠오카산 902톤(15.0%), 에히메산 762톤(12.7%)
- 수입산은 뉴질랜드산 외에 미국산 73톤, 칠레산 57.5톤, 한국산 5.6톤이 거래되었음.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거래실적 6,023톤 중 수입산은 2,872톤(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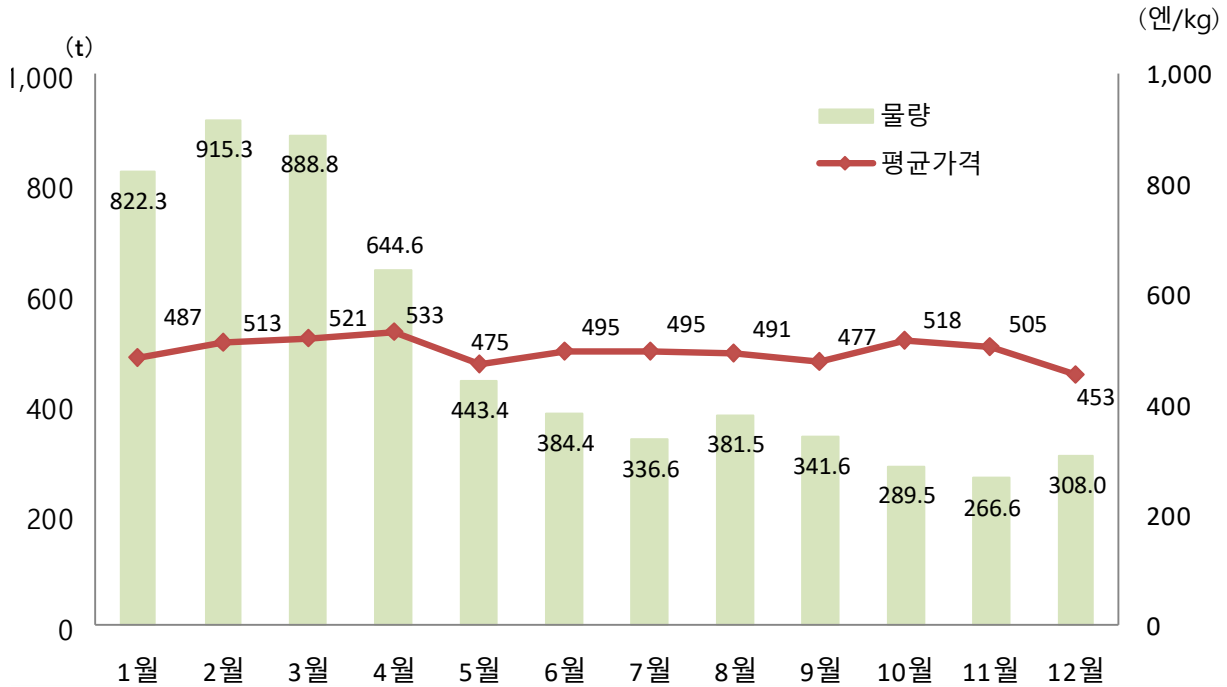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키위 산지별 거래실적 >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 2020년 키위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1~3월은 일본산지가 중심이며, 4~12월은 뉴질랜드산이 중심임. 도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평균가격은 497.2엔/kg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키위 월별 거래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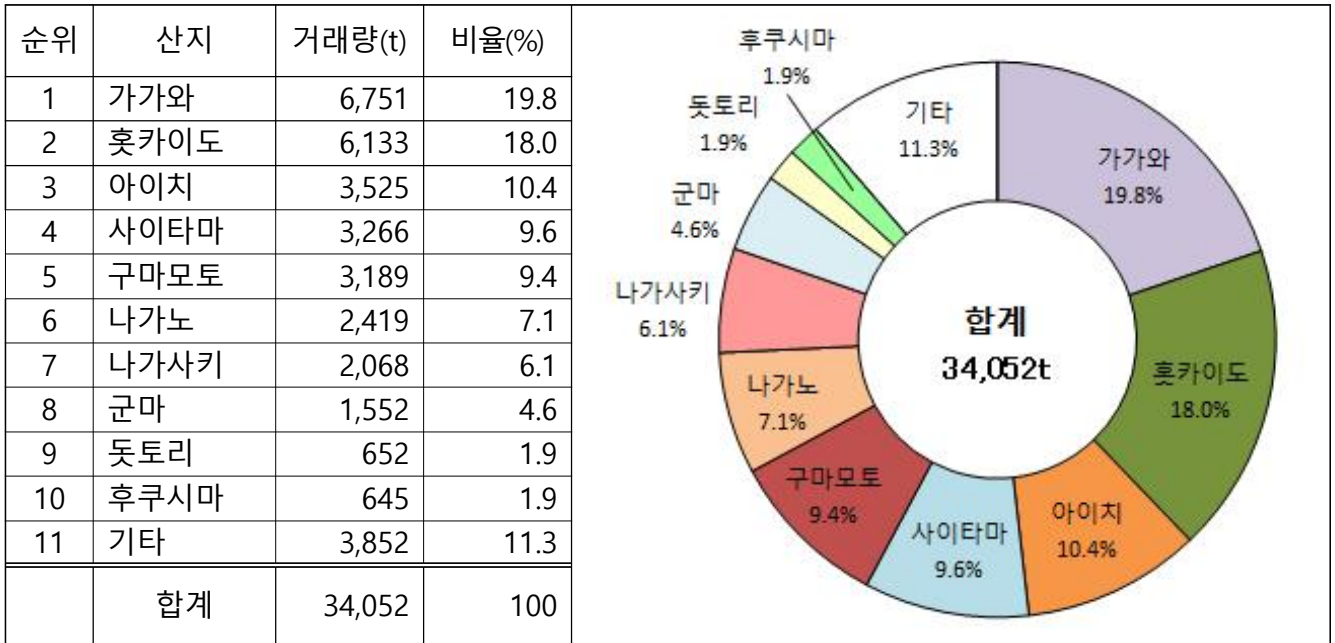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뉴질랜드	75.5	0.8	0.0	348.1	428.5	377.0	326.0	372.1	322.7	218.2	132.6	133.3	2,734.7
후쿠오카	262	273	229	58	0	0	0	0	0	18	22	40	902
에히메	174	207	229	94	1	0	0	0	2	5	3	48	762
와카야마	149	273	182	38	0	0	0	0	0	0	0	1	643
오이타	39	44	67	52	0	0	0	0	0	0	0	1	203
도치기	26	26	40	23	0	0	0	0	0	12	41	34	203
야마나시	11	7	6	4	0	0	0	0	0	18	31	22	99
미국	12	18	31	0	2	0	2	3	3	0	0	0	73
군마	11	12	24	12	1	0	0	0	0	1	6	5	72
야마가타	25	18	5	0	0	0	0	0	3	0	2	9	63
칠레	0.0	0.0	0.0	5.2	7.5	7.0	7.6	7.0	9.9	7.6	5.7	0.0	57.5
나라	10	17	15	0	0	0	0	0	0	0	0	0	42
가나가와	1	2	29	7	0	0	0	0	0	0	0	0	40
가가와	10	1	2	0	0	0	0	0	0	4	14	7	37
한국	0.1	0.7	1.4	1.2	2.3	0.0	0.0	0.0	0.0	0.0	0.0	0.0	5.6
기타	16.1	16.8	26.3	2.1	0.1	0.2	0.8	0.0	0.7	7.3	9.3	7.4	87.1
합계	822	915	889	645	443	384	337	382	342	289	267	308	6,023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2) 브로콜리

-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브로콜리 거래실적은 34,052톤임. 가가와 6,751톤(1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홋카이도 6,133톤(18.0%), 아이치 3,525톤(10.4%)
- 수입산은 미국산이 603톤, 중국산이 329톤, 멕시코산이 8.3톤 거래되었음. 또한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거래실적 34,052톤 중, 수입산은 940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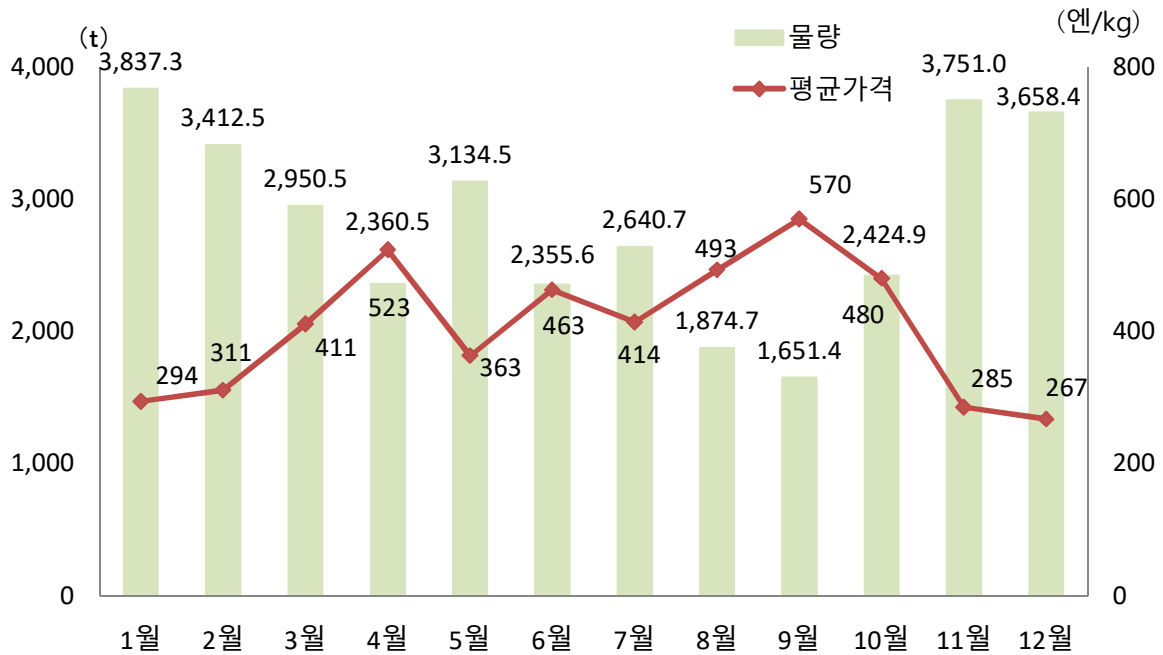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브로콜리 산지별 거래실적 >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 2020년 브로콜리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1~6월은 가가와현 및 아이치현 등의 혼슈(本州) 산지가 중심이며, 7~10월이 되면 서늘한 홋카이도산의 거래가 중심이 되고, 11~12월은 혼슈 산지의 거래가 증가함. 도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평균가격은 497.2엔/kg이며, 7~9월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높아짐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브로콜리 월별 거래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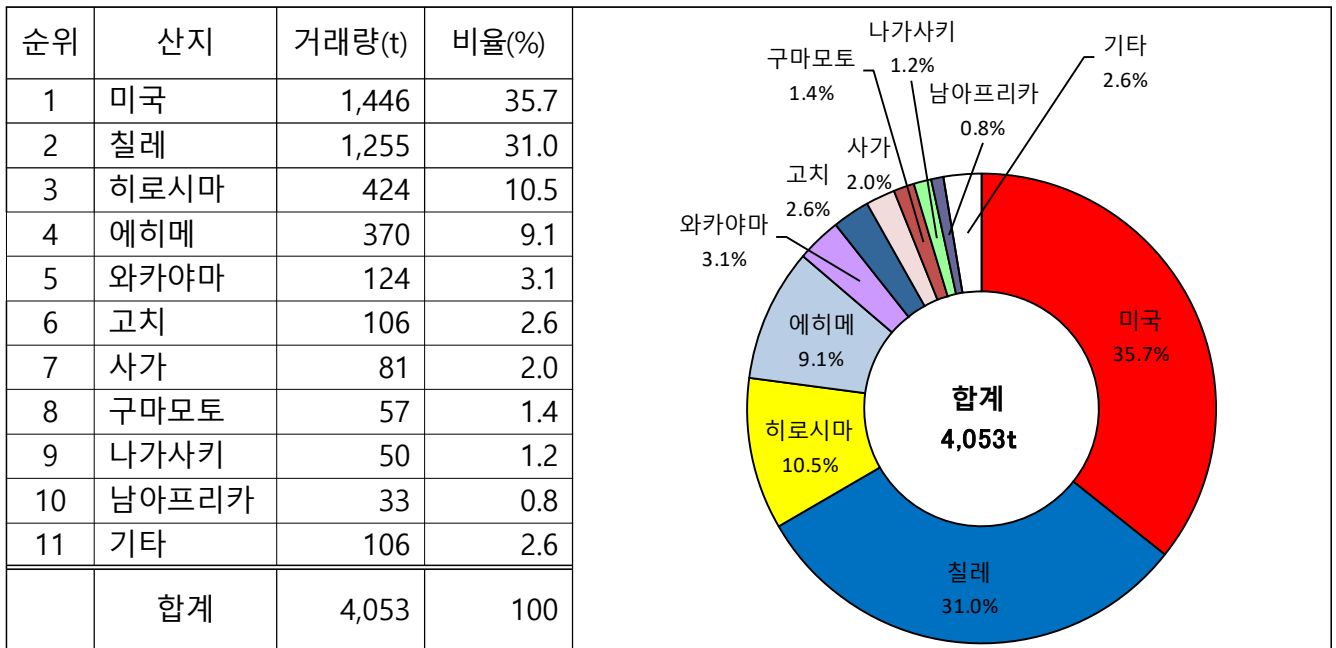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가가와	1,100	1,180	1,167	728	968	71	0	0	0	6	626	906	6,751
홋카이도	0	13	9	13	0	299	1,717	1,573	1,115	1,116	199	78	6,133
아이치	956	577	487	172	258	13	0	0	0	32	330	699	3,525
사이타마	268	185	117	482	455	20	0	0	2	377	957	403	3,266
구마모토	539	556	491	442	384	67	0	0	0	39	324	347	3,189
나가노	0	0	0	0	18	670	602	210	424	423	70	2	2,419
나가사키	252	249	234	284	366	88	0	0	6	45	199	345	2,068
군마	191	170	45	25	66	94	50	0	0	70	447	394	1,552
돗토리	77	45	70	28	103	149	0	0	0	22	75	83	652
후쿠시마	0	0	0	0	147	366	5	0	0	59	45	22	645
미국	14.9	14.2	32.7	17.5	82.6	83.9	75.2	81.5	75.8	93.0	30.6	1.4	603.4
효고	161	137	128	22	23	1	0	0	0	5	18	89	583
기타	279	286	172	145	264	434	192	10	27	139	430	289	2,666
합계	3,837	3,413	2,950	2,360	3,134	2,356	2,641	1,875	1,651	2,425	3,751	3,658	34,052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3) 레몬

-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레몬 거래실적은 4,053톤임. 미국산이 1,446톤(3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칠레산 1,255톤(31.0%), 히로시마산 424톤(10.5%)
- 수입산은 미국산, 칠레산 이외에는 남아프리카산이 33톤, 호주산이 19톤, 뉴질랜드산이 6.6톤 등이 거래되었음. 또한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거래실적 4,053톤 중 수입산은 2,727톤(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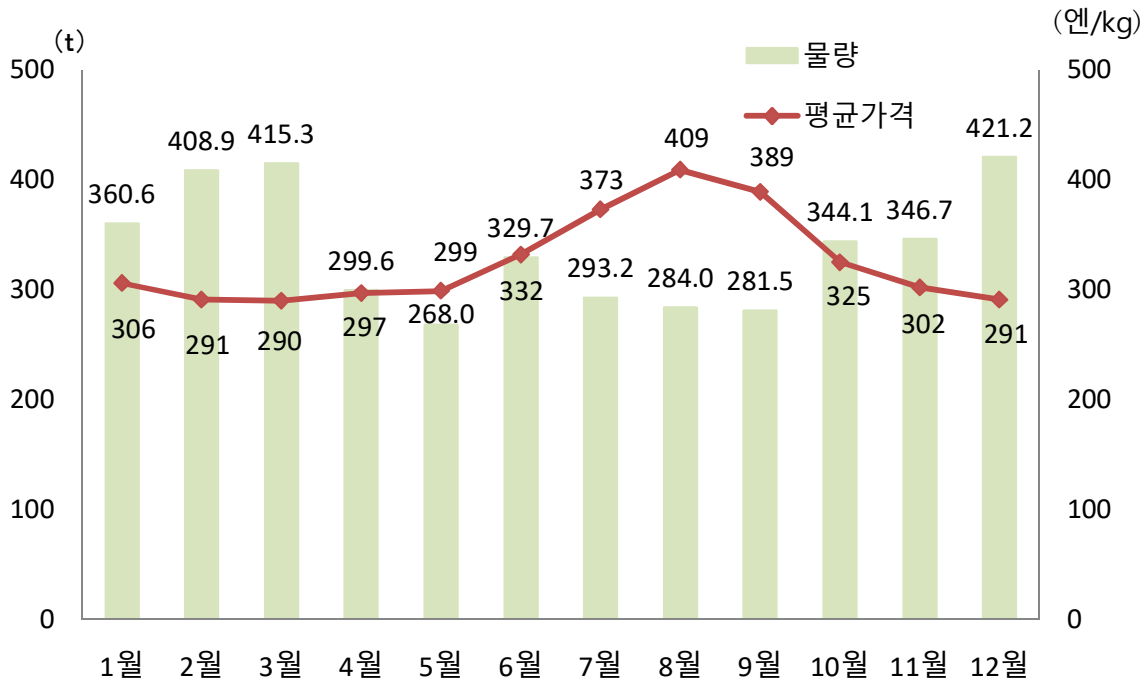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레몬 산지별 거래실적 >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 2020년 레몬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1~6월은 미국산 및 일본산이 중심이며, 7~11월이 되면 남반구의 칠레산 거래가 중심
- 도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평균가격은 404.4엔/kg이며, 7~9월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높아짐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레몬 월별 거래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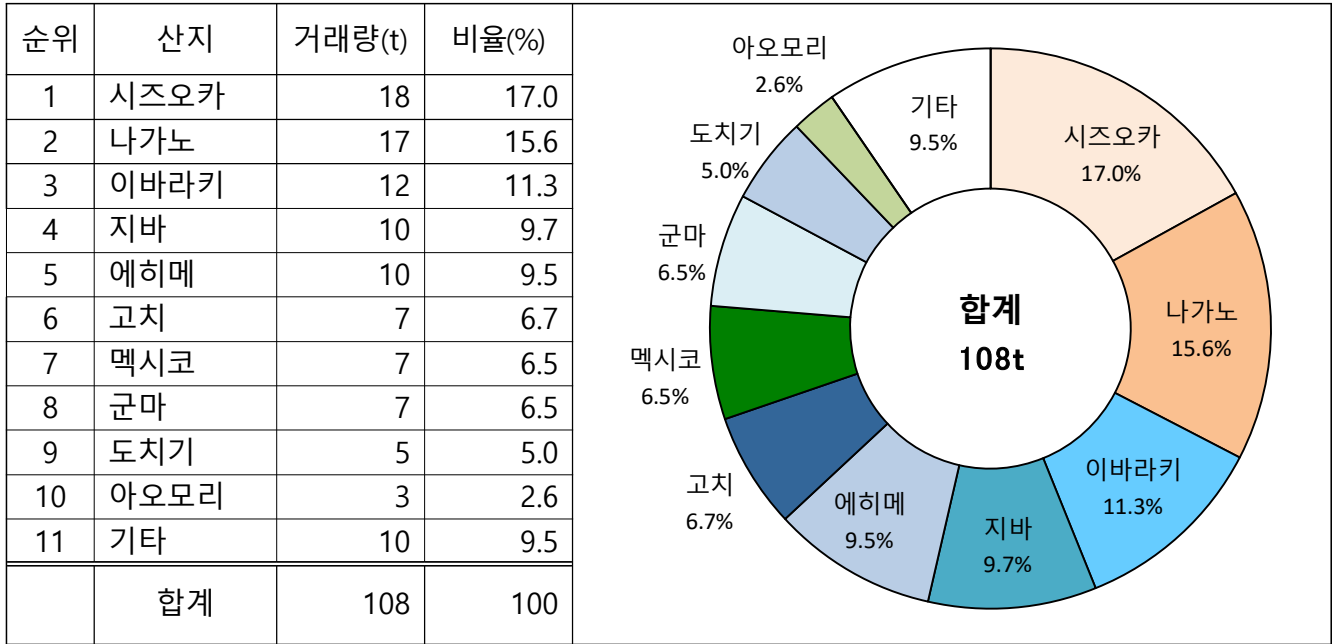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미국	229	249	248	135	162	233	58	27	3	3	6	94	1,446
칠레	17.5	1.6	0.1	0.0	7.3	47.2	200.7	206.4	208.4	215.4	200.5	149.9	1,254.9
히로시마	33	37	38	75	65	37	6	7	3	18	56	49	424
에히메	32	47	76	45	6	1	3	5	5	31	41	77	370
와카야마	7	13	27	23	17	3	1	0	0	9	13	12	124
고치	6	14	10	7	3	1	9	11	12	17	7	9	106
사가	4	4	5	4	1	0	5	9	17	19	8	6	81
구마모토	11	8	3	1	0	0	0	1	7	12	7	8	57
나가사키	3	16	3	3	2	1	1	4	12	4	1	1	50
남아프리카	0.2	0.2	0.0	0.0	0.0	1.3	8.7	8.6	6.7	5.1	2.0	0.4	33.2
기타	18.3	18.6	5.6	6.9	4.6	5.5	0.9	5.9	8.1	10.6	6.1	15.2	106.2
합계	361	409	415	300	268	330	293	284	282	344	347	421	4,053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4) 블루베리

-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블루베리 거래실적은 108톤임. 시즈오카 18톤(17.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가노 17톤(15.6%), 이바라키 12톤(11.3%)
- 수입산은 멕시코산이 7톤, 미국산이 2.1톤, 칠레산이 1.8톤 거래되었음. 또한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거래실적 108톤 중 수입산은 10.9톤(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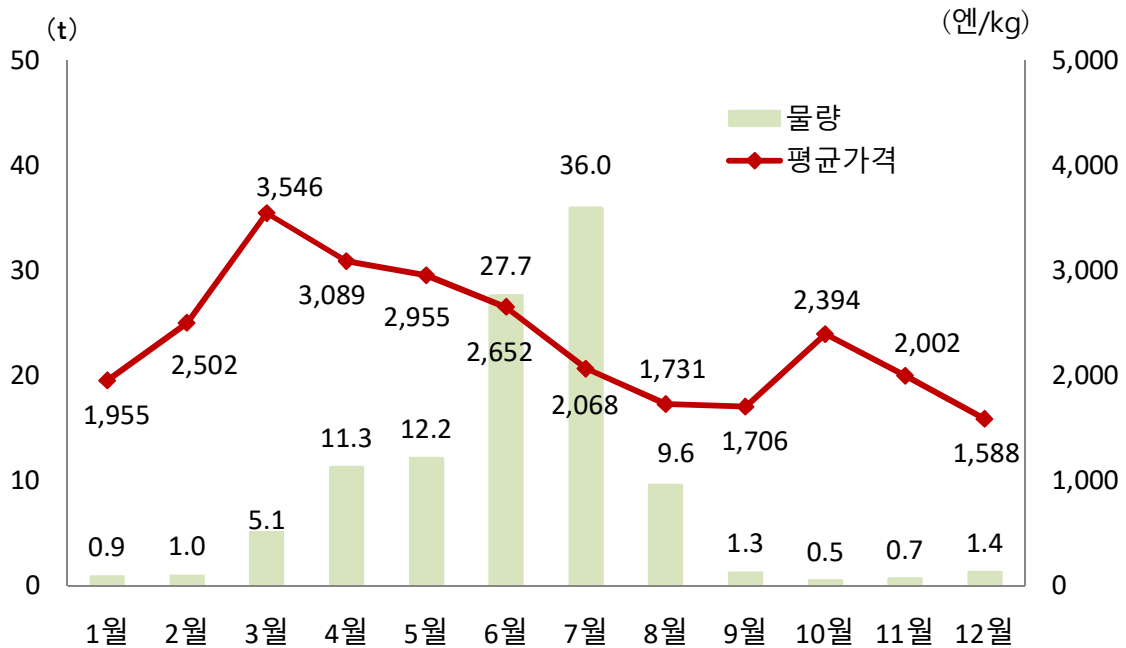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블루베리 산지별 거래실적 >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 2020년 블루베리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3~5월은 시즈오카 등의 일본 산지가 중심이며, 7월이 되면 서늘한 나가노산의 거래량이 증가
- 도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평균가격은 2,357.5엔/kg이며, 3월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높아짐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블루베리 월별 거래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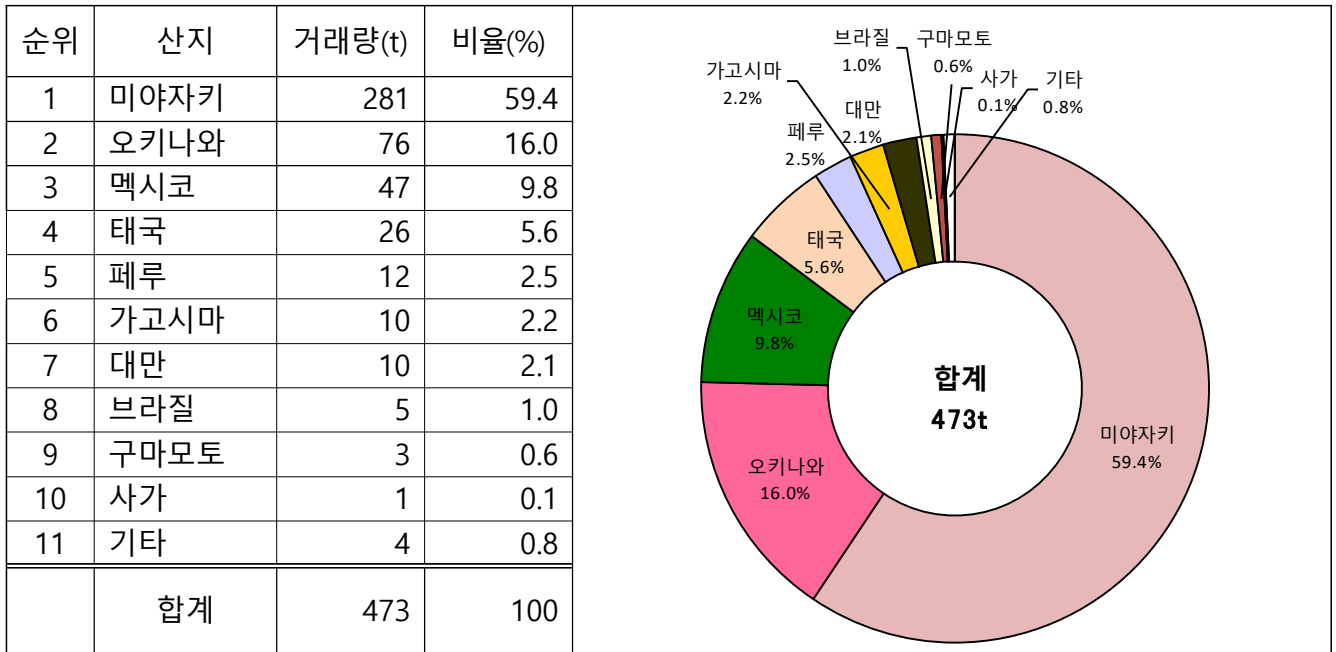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시즈오카	0	0	3	7	6	1	0	0	0	0	0	0	18
나가노	0	0	0	0	0	3	12	0	0	0	0	0	17
이바라키	0	0	0	0	0	7	4	1	0	0	0	0	12
지바	0	0	0	0	1	5	3	2	0	0	0	0	10
에히메	0	0	0	1	2	2	5	1	0	0	0	0	10
고치	0	0	0	0	2	3	2	0	0	0	0	0	7
멕시코	0.8	0.7	0.9	1.4	0.9	0.3	0.2	0.0	0.1	0.3	0.6	0.7	7.1
군마	0	0	0	0	0	2	3	2	1	0	0	0	7
도치기	0	0	0	0	0	2	2	1	0	0	0	0	5
아오모리	0	0	0	0	0	0	2	1	0	0	0	0	3
기타	0.2	0.2	0.2	0.7	0.9	2.2	3.8	0.8	0.4	0.2	0.1	0.6	10.3
합계	1	1	5	11	12	28	36	10	1	1	1	1	108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5) 망고

-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망고 거래실적은 473톤임. 미야자키가 281톤(59.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키나와 76톤(16.0%), 멕시코 47톤(9.8%)
- 수입산은 멕시코산 이외에 태국산 26톤, 페루산 12톤, 대만산 10톤, 브라질산 5톤 등이 거래되었음. 또한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거래실적 473톤 중 수입산은 110.5톤(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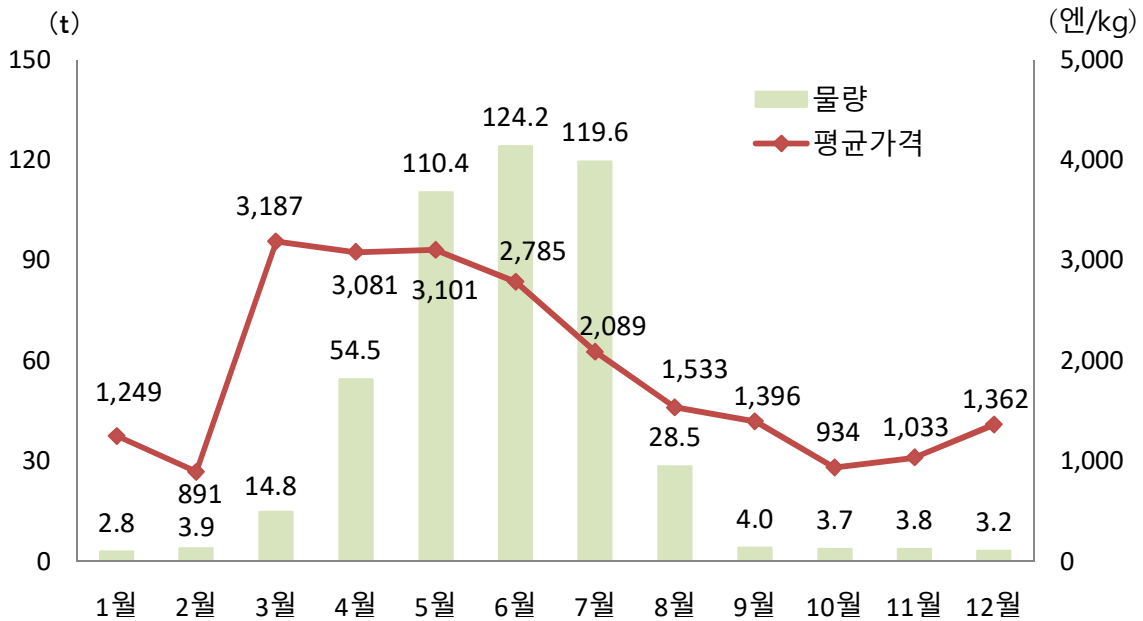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망고 산지별 거래실적 >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 2020년 망고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4~7월은 미야자키산이 중심이며, 7월이 되면 오키나와산의 거래량이 증가함. 그 외 시기에는 수입산 거래가 중심
- 도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평균가격은 1,940엔/kg이며, 미야자키산의 거래가 시작되는 3월은 거래가격이 높아짐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망고 월별 거래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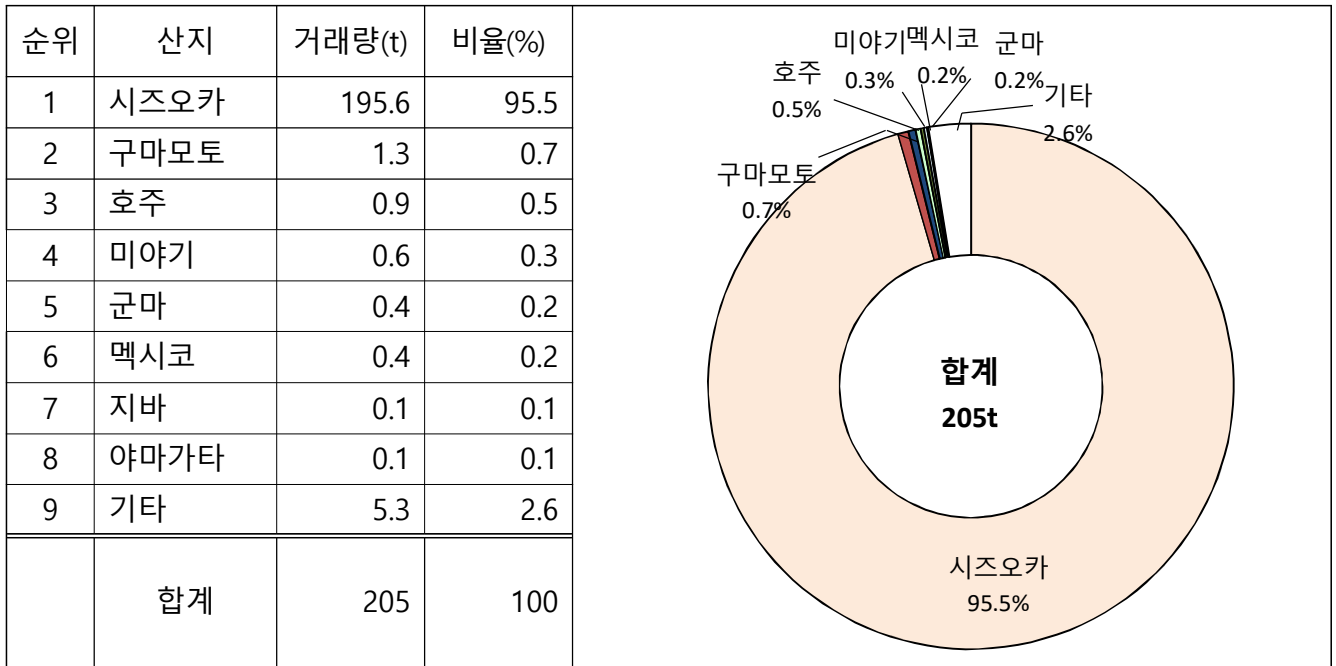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미야자키	0	0	7	44	86	91	50	4	0	0	0	0	281
오키나와	0	0	0	0	0	9	54	11	1	0	0	0	76
멕시코	0.0	0.0	0.3	2.4	10.9	13.6	10.8	6.8	1.0	0.5	0.0	0.1	46.5
태국	1.0	1.2	3.3	2.6	5.0	3.5	0.3	5.5	0.5	1.8	1.2	0.4	26.3
페루	1.6	2.4	3.6	2.4	0.0	0.0	0.0	0.0	0.0	0.0	0.4	1.1	11.6
가고시마	0	0	0	3	5	2	0	0	0	0	0	0	10
대만	0	0	0	0	0	4	4	1	0	1	0	0	10
브라질	0.2	0.2	0.2	0.0	0.0	0.0	0.0	0.0	0.0	0.7	2.0	1.2	4.6
구마모토	0	0	0	0	2	1	0	0	0	0	0	0	3
기타	0	0	0	0	1	0	0	1	1	0	0	0	4
합계	3	4	15	54	110	124	120	28	4	4	4	3	473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6) 방울양배추

-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방울양배추 거래실적은 205톤임. 시즈오카 195.6톤(9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마모토 1.3톤(0.7%), 호주산 0.9톤(0.5%)
- 수입산은 호주산 이외에 멕시코 0.4톤, 기타 수입산이 5톤 등이 거래되었음. 또한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거래실적 205톤 중 수입산은 7톤(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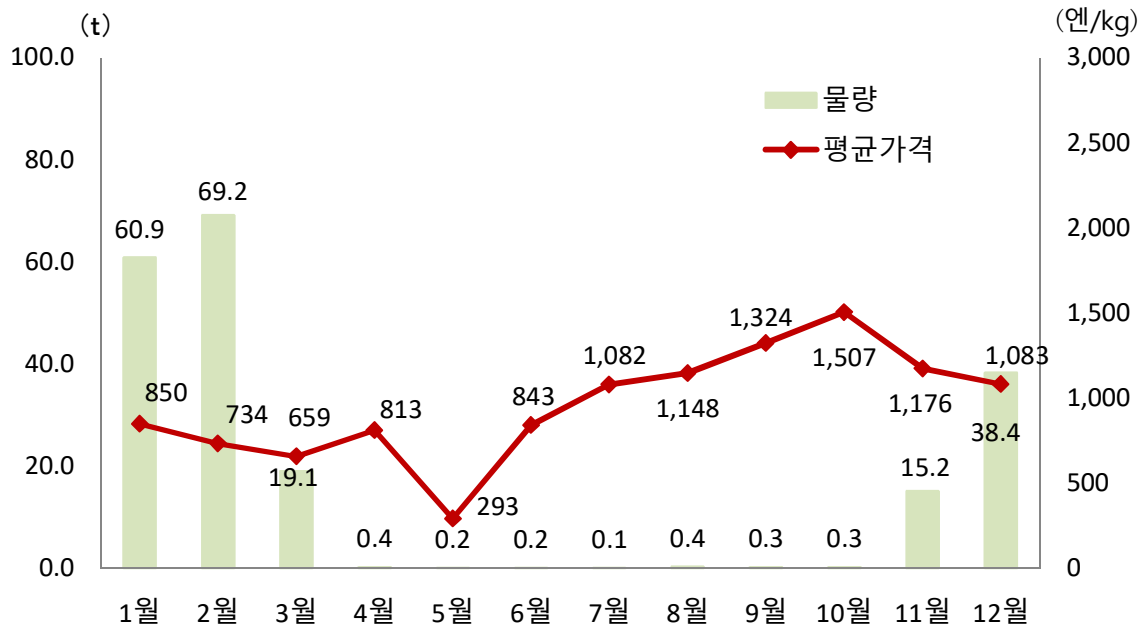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방울양배추 산지별 거래실적 >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 2020년 방울양배추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11~3월은 시즈오카 등의 일본산이 중심이며, 그 외에는 일본산 거래가 거의 없음. 일본산 거래가 없는 시기에는 남반구의 호주산 거래가 중심
- 도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평균가격은 951.9엔/kg이며, 거래량이 적은 7~10월에는 가격이 높아짐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방울양배추 월별 거래실적 >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시즈오카	59.6	67.3	17.8	0.0	0.0	0.0	0.0	0.0	0.0	0.0	14.2	36.6	196
기타 외국	1.1	0.8	1.0	0.0	0.0	0.0	0.0	0.0	0.2	0.3	0.9	0.8	5
구마모토	0.1	1.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호주	0.0	0.0	0.0	0.1	0.0	0.2	0.1	0.4	0.1	0.0	0.0	0.0	1
미야자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5	1
군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0
멕시코	0.0	0.0	0.0	0.2	0.2	0.0	0.0	0.0	0.0	0.0	0.0	0.0	0
지바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야마가타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합계	60.9	69.2	19.1	0.4	0.2	0.2	0.1	0.4	0.3	0.3	15.2	38.4	205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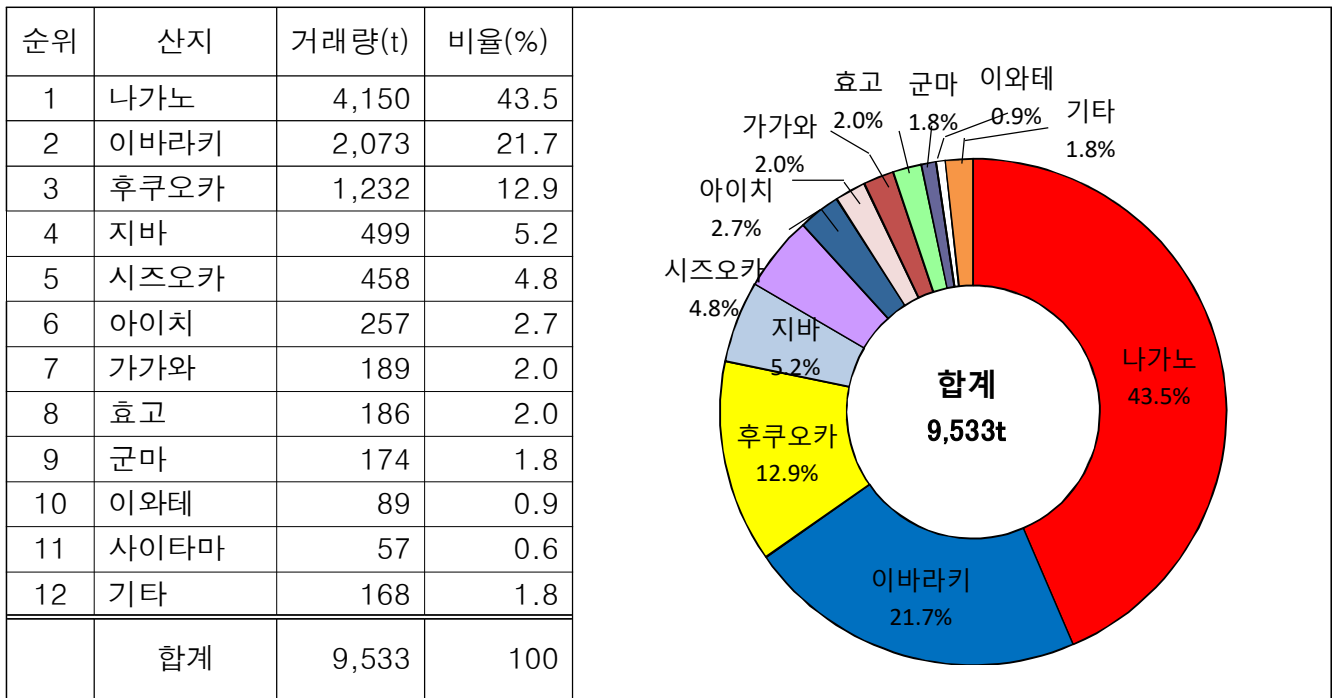
(7) 잎상추

① 써니 레터스

※ 로메인 상추의 통계정보는 파악이 지난하여, 같은 잎상추인 써니 레터스와 그린 리프 레터스 기재

-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써니 레터스 거래실적은 9,533톤임. 나가노가 4,150톤(43.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바라키 2,073톤(21.7%), 후쿠오카 1,232톤(12.9%). 수입산 거래 통계는 파악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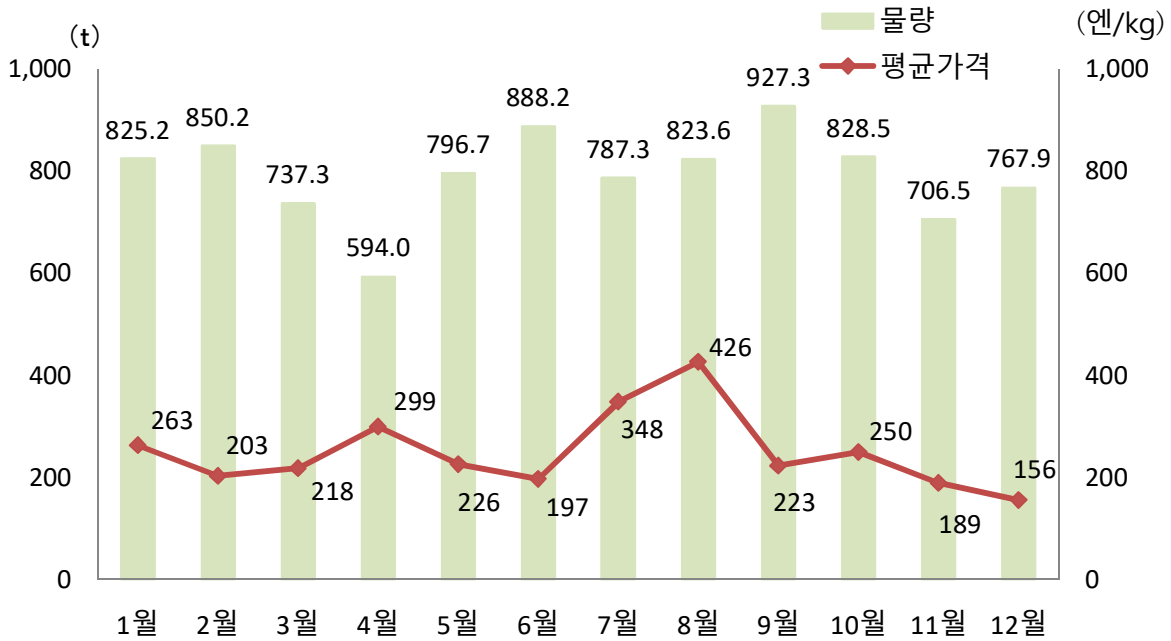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써니 레터스 산지별 거래실적 >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 2020년 써니 레터스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1~5월은 이바라키산 및 후쿠오카산 등의 혼슈 산지가 중심이며, 기온이 높아지는 6~9월에는 서늘한 나가노산이 중심이 됨. 기온이 낮아지는 10월 이후는 혼슈 산지로 이동함
- 도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평균가격은 151.8엔/kg이며, 7~8월의 여름철에는 가격이 높아짐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써니 레터스 월별 거래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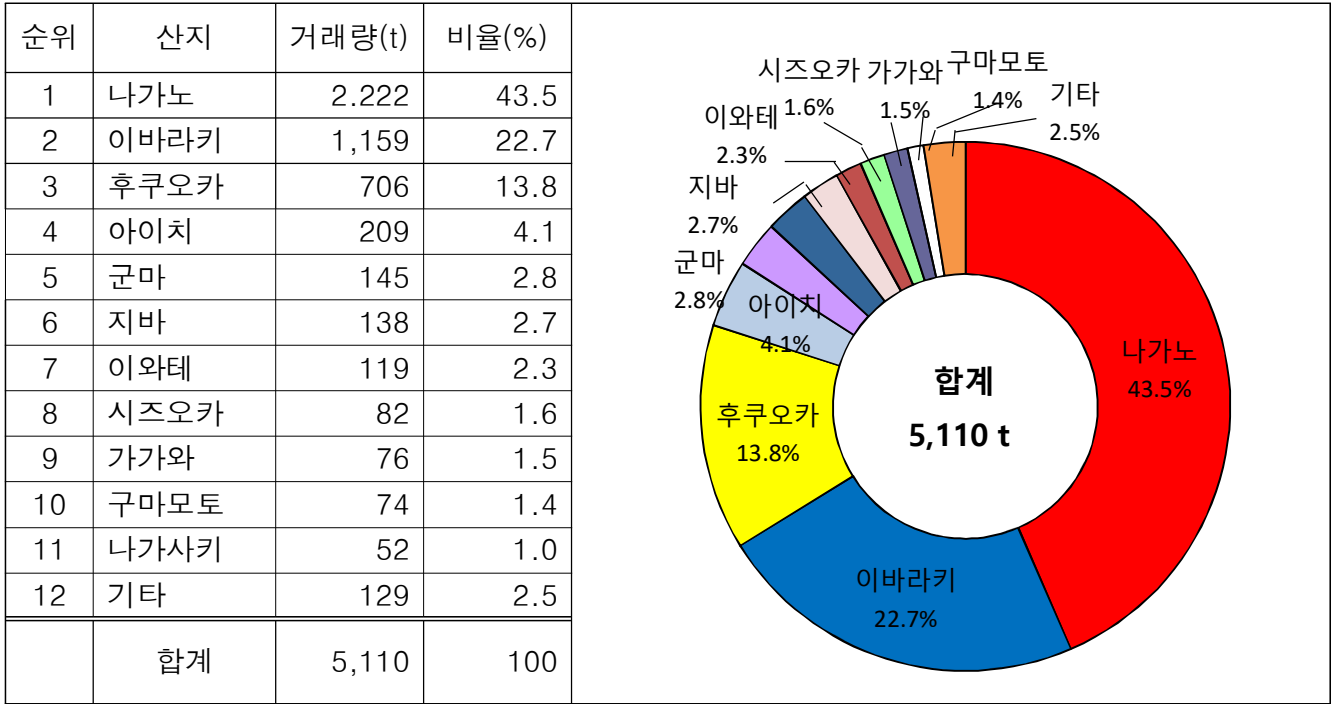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나가노	0	0	0	29	518	788	742	790	891	371	19	0	4,150
이바라키	99	178	346	357	138	7	1	0	5	373	434	136	2,073
후쿠오카	231	262	202	148	67	0	0	0	0	46	97	179	1,232
지바	150	112	64	23	2	2	0	0	0	1	26	120	499
시즈오카	132	125	55	8	1	0	0	0	0	0	12	126	458
아이치	99	70	11	0	0	0	0	0	0	0	19	58	257
가가와	47	38	24	4	1	0	0	0	0	0	22	54	189
효고	19	7	8	15	2	0	0	0	0	4	63	67	186
군마	2	1	0	1	57	60	20	14	9	8	1	0	174
이와테	0	0	0	0	1	17	20	14	18	18	1	0	89
사이타마	9	20	6	4	4	0	0	0	0	2	6	5	57
기타	38	38	21	7	6	13	4	5	4	5	6	22	168
합계	825	850	737	594	797	888	787	824	927	828	707	768	9,533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② 그린 리프 레터스

-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의 그린 리프 레터스 거래실적은 5,110톤임. 나가노산이 2,222톤 (43.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바라키산이 1,159톤(22.7%), 후쿠오카산이 706톤(13.8%)임. 수입산 거래 통계는 파악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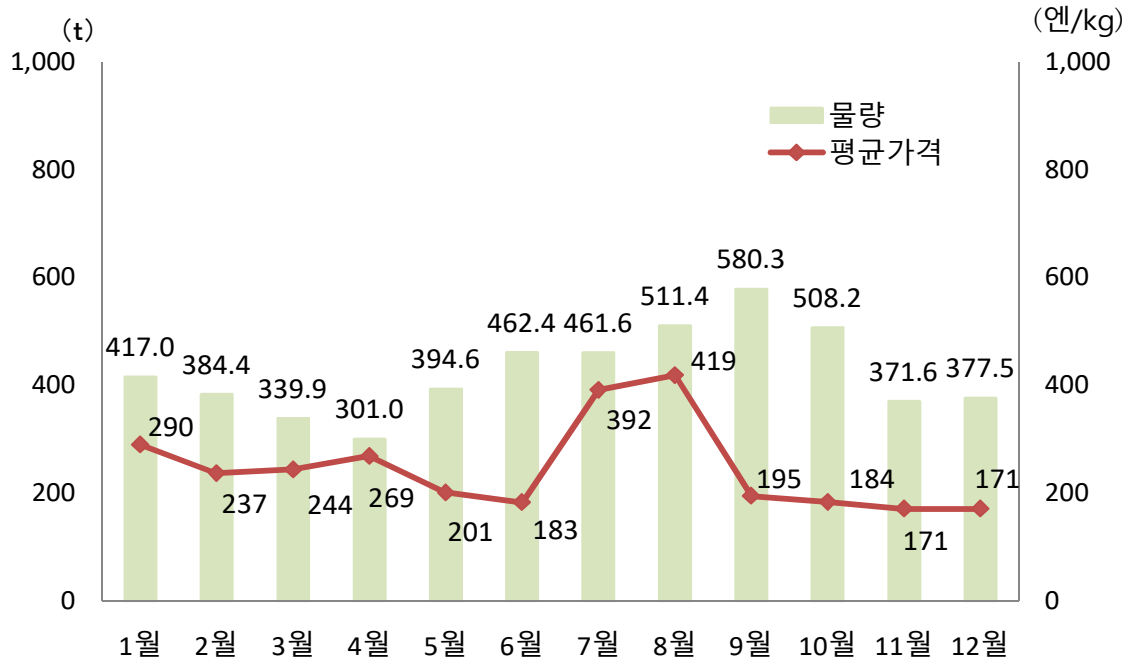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그린 리프 레터스 산지별 거래실적 >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 2020년 그린 리프 레터스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1~5월은 이바라키산 및 후쿠오카산 등의 혼슈 산지가 중심이고, 기온이 높아지는 6~9월에는 서늘한 나가노산이 중심이 됨. 기온이 낮아지는 11월 이후는 혼슈 산지로 이동함
- 도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평균가격은 249.8엔/kg이며, 7~8월의 여름철에는 가격이 높아짐

< 2020년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그린 리프 레터스 월별 거래실적 >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나가노	1	1	1	18	217	391	395	452	522	215	9	1	2,222
이바라키	78	122	172	199	83	1	0	0	3	196	214	91	1,159
후쿠오카	150	122	92	67	36	0	0	0	0	54	68	117	706
아이치	75	44	10	0	0	0	0	0	0	0	21	59	209
군마	0	0	0	1	45	41	17	16	16	8	0	0	145
지바	31	21	11	8	7	7	7	6	4	7	16	14	138
이와테	0	0	0	0	1	18	33	26	24	17	0	0	119
시즈오카	19	14	13	2	0	0	0	0	0	0	9	26	82
가가와	9	12	14	0	0	0	0	0	0	0	13	28	76
구마모토	29	25	13	0	0	0	0	0	0	0	0	7	74
나가사키	10	14	10	3	0	0	0	0	0	0	2	14	52
기타	14	11	6	2	4	5	11	12	11	13	21	21	129
합계	417	384	340	301	395	462	462	511	580	508	372	377	5,110

*출처 :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다. 수입동향

(1) 수입량

- 조사대상 품목의 과거 10년간 수입량이 증가(2010년→2020년)한 것은 키위(180.2%), 블루베리(신선, 122.0%), 방울양배추(840.0%), 브로콜리(냉동, 220.6%), 블루베리(냉동, 141.5%)

<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량 >

(단위 t)

품목	수입물량				2020년 누계 합계 상위 3개국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2020년 증감률	1위			2위			3위		
					국명	물량	비율	국명	물량	비율	국명	물량	비율
레몬(신선·건조)	52,594	48,558	44,957	-14.5%	미국	22,308	49.6%	칠레	18,725	41.7%	뉴질랜드	1,845	4.1%
키위(신선)	62,963	78,648	113,432	180.2%	뉴질랜드	106,365	93.8%	미국	4,075	3.6%	칠레	2,527	2.2%
망고(신선)	10,391	5,841	6,720	-35.3%	멕시코	3,503	52.1%	태국	1,269	18.9%	대만	687	10.2%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및로건베리	473	603	488	103.1%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및구스베리	23	11	8	37.1%									
크랜베리, 빌베리, 기타 산앵두나무속과실	1,547	1,730	1,996	129.1%									
블루베리(신선) 합계	2,042	2,345	2,492	122.0%	멕시코	1,045	42.0%	미국	997	40.0%	칠레	409	16.4%
레몬주스	13,820	14,333	21,970	59.0%	아르헨티나	7,397	33.7%	이탈리아	7,015	31.9%	이스라엘	5,093	23.2%
채소(신선·냉장)													
방울양배추	17	103	142	840.0%	멕시코	51	35.7%	미국	42	29.9%	벨기에	19	13.6%
브로콜리	35,683	17,804	7,066	-80.2%	미국	5,305	75.1%	멕시코	866	12.3%	중국	799	11.3%
잎상추	270	368	73	-73.0%	미국	58	79.4%	대만	15	20.6%	-	-	
냉동채소													
브로콜리	26,577	42,589	58,619	220.6%	중국	28,441	48.5%	에콰도르	27,328	46.6%	과테말라	1,238	2.1%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및구스베리(설탕첨가)	111	115	46	41.9%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및구스베리(기타)	1,842	3,004	2,989	162.2%									
기타 베리(설탕 첨가)	7	0	0	0.0%									
기타 베리(기타)	13,034	15,746	18,187	139.5%									
블루베리(냉동) 합계	14,994	18,866	21,223	141.5%	캐나다	11,954	56.3%	미국	3,811	18.0%	칠레	2,279	10.7%

*출처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2) 수입금액

- 조사대상 품목 중 과거 10년간 수입금액이 증가(2010년→2020년)한 것은 레몬(127.4%), 키위(232.7%), 블루베리(신선, 127.6%), 방울양배추(817.6%), 잎상추(116.7%), 브로콜리(냉동, 310.1%), 블루베리(냉동, 167.3%)

<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금액 >

(단위 : 백만엔)

품목	수입금액				2020년 누계 합계 상위 3개국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2020년 증감률	1위			2위			3위		
					국명	물량	비율	국명	물량	비율	국명	물량	비율
레몬 (신선·건조)	6,840	11,253	8,713	127.4%	미국	5,051	58.0%	칠레	2,971	34.1%	뉴질랜드	364	4.2%
키위(신선)	21,045	27,225	48,968	232.7%	뉴질랜드	46,805	95.6%	미국	1,478	3.0%	칠레	555	1.1%
망고(신선)	4,030	3,406	3,148	78.1%	멕시코	1,190	37.8%	태국	734	23.3%	대만	583	18.5%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및 로건베리	1,020	1,716	1,099	107.8%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 및 구스베리	33	25	17	50.7%									
크랜베리, 빌베리, 기타 산양두나무속과실	1,760	2,687	2,473	140.5%									
블루베리 (신선) 합계	2,813	4,428	3,589	127.6%	미국	1,534	42.7%	멕시코	1,510	42.1%	칠레	489	13.6%
레몬주스	3,904	5,955	6,866	175.9%	아르헨티나	2,153	31.4%	이탈리아	2,075	30.2%	이스라엘	1,799	26.2%
방울양배추	9	64	77	817.6%	미국	24	30.6%	멕시코	18	23.7%	벨기에	14	18.2%
브로콜리	6,022	4,752	1,658	27.5%	미국	1,282	77.3%	멕시코	187	11.3%	중국	164	9.9%
잎상추	32	134	37	116.7%	미국	35	94.2%	대만	2	5.8%	-	-	-
냉동채소													
브로콜리	3,858	9,580	11,962	310.1%	에콰도르	6,490	54.3%	중국	4,874	40.7%	과테말라	293	2.5%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 및 구스베리(설탕첨가)	43	80	29	67.0%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 및 구스베리(기타)	735	1,633	1,228	167.0%									
기타 베리(설탕 첨가)	3	0	0	0.0%									
기타 베리(기타)	3,767	7,523	6,351	168.6%									
블루베리(냉동) 합계	4,548	9,237	7,608	167.3%	캐나다	3,947	51.9%	미국	1,435	18.9%	칠레	949	12.5%

*출처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3) 수입단가

- 조사대상 품목 중 과거 10년간 수입단가가 증가(2010년→2020년)한 것은 레몬(149.0%), 키위(129.2%), 망고(120.8%), 블루베리(신선, 104.6%), 브로콜리(139.0%), 잎상추(431.6%), 브로콜리(냉동, 140.6%), 블루베리(냉동, 118.2%)

품목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대비 2020년 증감률
레몬 (신선·건조)	130.1	231.7	193.8	149.0%
키위(신선)	334.2	346.2	431.7	129.2%
망고(신선)	387.8	583.1	468.5	120.8%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및 로건베리	2,157.0	2,843.8	2,255.1	104.6%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및구스베리	1,456.1	2,256.9	1,988.5	136.6%
크랜베리, 빌베리, 기타 산앵두나무속과실	1,138.1	1,553.1	1,239.0	108.9%
블루베리 (신선) 합계	1,377.5	1,888.6	1,440.3	104.6%
레몬주스	282.5	415.5	312.5	110.6%
방울양배추	558.6	619.8	543.7	97.3%
브로콜리	168.8	266.9	234.6	139.0%
잎상추	118.5	363.5	511.5	431.6%
브로콜리(냉동)	145.1	224.9	204.1	140.6%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레드커런트 및 구스베리(설탕첨가)	390.9	697.9	626.0	160.1%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레드커런트 및 구스베리(기타)	399.1	543.7	410.8	102.9%
기타 베리(설탕 첨가)	432.8	1,553.3	-	-
기타 베리(기타)	289.0	477.7	349.2	120.8%
블루베리(냉동) 합계	303.3	489.6	358.5	118.2%

*출처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라. 유통현황

(1) 일본산 및 수입산의 동향

- 일본산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브로콜리, 망고, 잎상추 3품목임. 도매시장에서 수입산 거래량이 많은 것은 키위, 레몬, 망고 3품목
- 수입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키위, 냉동 브로콜리, 과즙레몬, 블루베리(신선, 냉동), 망고, 방울양배추 8품목임. 그중 상위 3개국 점유율이 90% 미만인 것은 과즙레몬, 냉동 블루베리, 망고, 방울양배추 4품목

< 일본산 출하량 및 도매시장 거래량 >

품목	일본산 출하량(t)			2020년 도쿄도 도매시장 거래량					
	2017년도	2019년도	증감률	거래량(t)	일본산(t)	수입산(t)	일본산	수입산	평균 도매가격 (엔/kg)
키위	26,200	22,500	85.9%	6,023	3,151	2,872	52.3%	47.7%	497.2
브로콜리	130,200	153,700	118.0%	34,052	33,112	940	97.2%	2.8%	497.2
레몬	6,334	5,528	87.3%	4,053	1,326	2,727	32.7%	67.3%	404.4
블루베리	1,672	1,521	91.0%	108	97	11	89.9%	10.1%	2,357.5
망고	2,819	3,329	118.1%	473	363	110.5	76.6%	23.4%	1,940
방울양배추	326	314	96.3%	205	198	7	96.6%	3.4%	951.9
잎상추※	65,991	66,086	100.1%	14,643	14,643	0	100.0%	0.0%	200.8

※ 잎상추의 도매시장 거래량은 잎상추, 써니 레터스, 그린 리프 레터스 합계

* 출처 : 일본 농림수산물성 통계

품목	형태	2020년 수입량(t)				수입 상대국			
		2015년	2020년	증감률	수입단가 (엔/kg)	1위	2위	3위	3개국이 차지하는 비율
키위	신선	78,648	113,432	144.2%	431.7	뉴질랜드	미국	칠레	99.6%
브로콜리	신선	17,804	7,066	39.7%	234.6	미국	멕시코	중국	98.7%
	냉동	42,589	58,619	137.6%	204.1	에콰도르	중국	과테말라	97.2%
레몬	신선·건조	48,558	44,957	92.6%	193.8	미국	칠레	뉴질랜드	95.4%
	과즙	14,333	21,970	153.3%	312.5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이스라엘	88.8%
블루베리	신선	2,345	2,492	106.3%	1,440.3	멕시코	미국	칠레	98.4%
	냉동	18,866	21,223	112.5%	358.5	캐나다	미국	칠레	85.0%
망고	신선	5,841	6,720	115.0%	468.5	멕시코	태국	대만	81.2%
방울양배추	신선	103	142	137.9%	543.7	미국	멕시코	벨기에	79.3%
잎상추	신선	368	73	19.8%	511.5	미국	대만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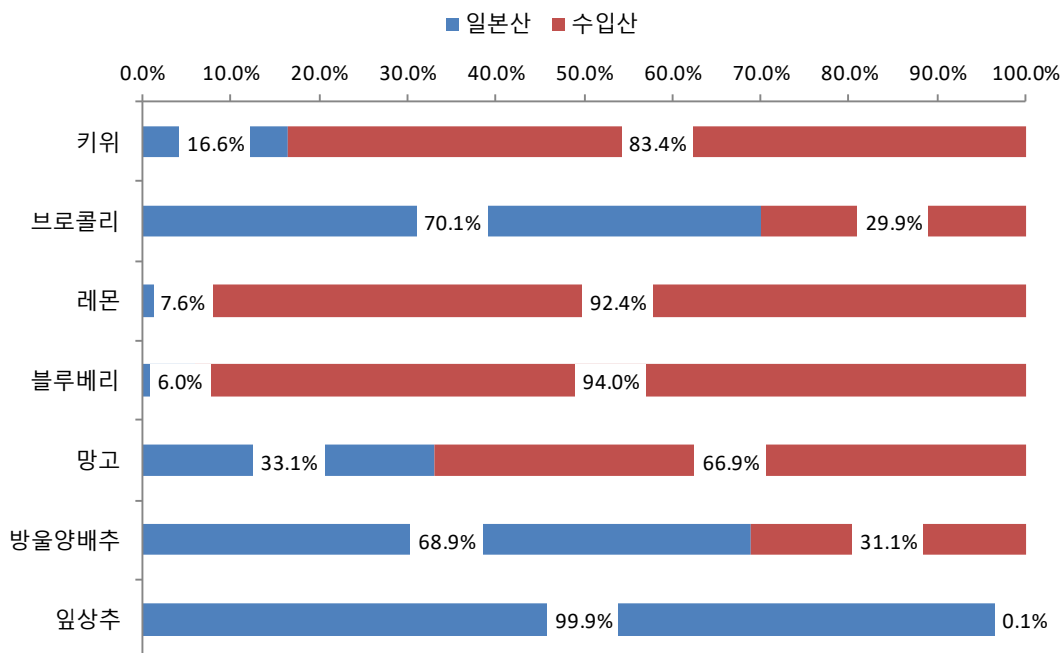
* 출처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2) 일본산 및 수입산 구성비율(출하량 기준)

-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산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키위, 레몬, 블루베리 3품목
- 일본산 출하량 중, 시설재배가 많은 것은 망고뿐이며, 그 외는 노지재배가 중심

< 일본산 및 수입산 비율(출하량 기준) >

품목	일본산 출하량			2020년 수입량(t)	일본산+수입산 합계(톤)
	일본산 출하량(톤)	시설	노지		
키위	22,500t	-	22,500t (100.0%)	113,432t	135,932t
원산국 구성비	16.6%			83.4%	100.0%
브로콜리	153,700t	-	153,700t (100.0%)	65,685t	219,385t
원산국 구성비	70.1%			29.9%	100.0%
레몬	5,528t	-	5,528t (100.0%)	66,927t	72,455t
원산국 구성비	7.6%			92.4%	100.0%
블루베리	1,521t	-	1,521t (100.0%)	23,715t	25,236t
원산국 구성비	6.0%			94.0%	100.0%
망고	3,329t	2,701t (81.1%)	628t (18.9%)	6,720t	10,049t
원산국 구성비	33.1%			66.9%	100.0%
방울양배추	314t	-	314t (100.0%)	142t	456t
원산국 구성비	68.9%			31.1%	100.0%
잎상추	66,086t	6,571t (9.9%)	59,515t (90.1%)	73t	66,159t
원산국 구성비	99.9%			0.1%	100.0%



*출처 : [일본산 출하량] 일본 농림수산업성 통계, [수입량]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3) 용도별 구성비율(출하량 기준)

- 일본산 출하량 중, 소매용 비율이 높은 것은 키위, 망고이며, 가공용도(업무·외식용) 비율이 높은 것은 브로콜리, 잎상추

< 일본산·수입산 용도별 출하량 및 구성비율 >

(단위 :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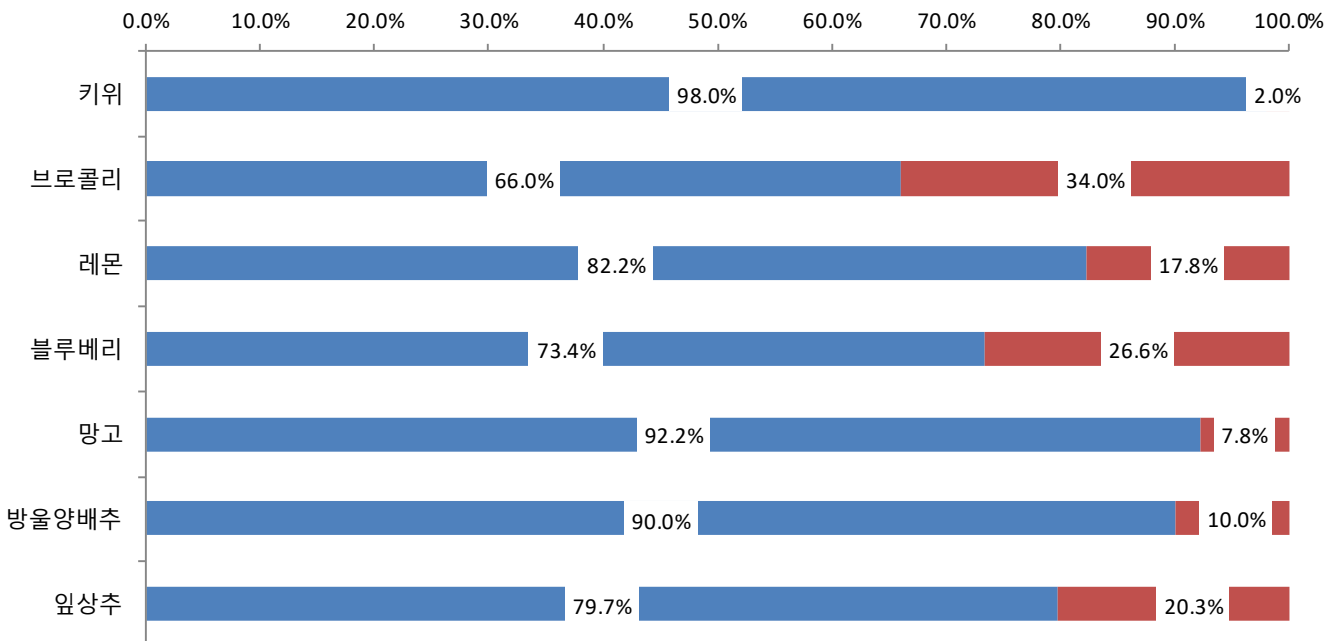
품목	일본산 출하량			수입산 용도분야별 구성비				합계
	출하량 합계	소매용	가공용도 (업무·외식용)	수입량 합계	신선	냉동	기타	
키위※	22,500	22,050	450	113,432	113,432	—	—	135,932
브로콜리※	153,700	101,442	52,258	65,685	7,066	58,619	—	219,385
레몬	5,528	4,544	985	66,927	44,957	—	21,970	72,455
블루베리	1,521	1,117	404	23,715	2,492	21,223	—	25,236
망고	3,329	3,070	259	6,720	6,720	—	—	10,049
방울양배추※	314	283	31	142	142	—	—	456
잎상추	65,469	52,177	13,292	73	73	—	—	65,542

※ 키위,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용도별 구성비율은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출처 : [일본산 출하량]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 [수입량]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일본산 용도별 구성비율 >

■ 소매용 ■ 가공용도(업무·외식용)



*출처 : 키위, 브로콜리, 방울양배추의 용도 비율은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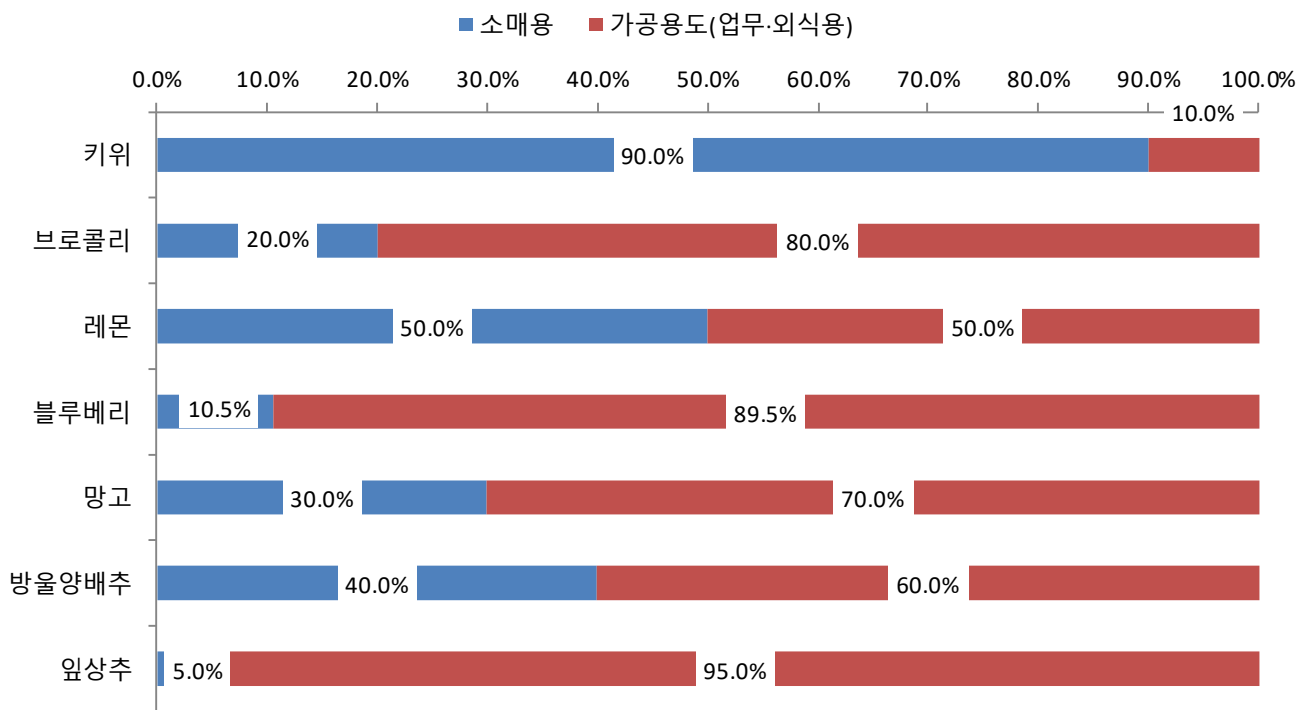
*그 외 품목은 일본 농림수산성 「무역통계」

- 소매용 비율이 높은 품목은 키위 10만2,089톤(90.0%)
- 가공용도(업무·외식용) 비율이 높은 품목은 잎상추 69톤(95.0%), 블루베리 2만1,225톤 (89.5%)

< 수입산 용도별 출하량 및 비율 >

(단위 : t)

품목	소매용	가공용도 (업무·외식용)	수입량 합계
키위	102,089	11,343	113,432
브로콜리	13,137	52,548	65,685
레몬	33,464	33,464	66,927
블루베리	2,490	21,225	23,715
망고	2,016	4,704	6,720
방울양배추	57	85	142
잎상추	4	69	73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4) 주요 판매처 · 판매동향

- 수입 채소를 취급하고 있는 주요 판매처 및 판매동향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품목의 주요 판매처 및 판매동향 >

조사품목	유통업체 판매	가공용도(업무·외식용) 납품
키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트코에서 미국산 『허니키위(Tropikiwi)』 판매. 가격: 1.6kg/1,498엔(소비세포함). 개당 중량: 약 89g 단가: 약 83엔. 원산지: 미국 캘리포니아. 생산자: 미국 Wild River <p style="text-align: center;">< 미국산 허니키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 가공(커트)회사, 호텔, 음식점, 항공사(기내식용)
브로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베물산 식자재마트에서 냉동 브로콜리 (중국산) 판매 내용량: 500g 가격: 159엔(소비세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 중국산 냉동 브로콜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트코에서 냉동채소 『브로콜리(2.27kg)』 판매 가격: 868엔(소비세포함) 원산지: 과테말라 생산자: New World Farms <p style="text-align: center;">< 2kg이상 『냉동 브로콜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 채소 사업자, 반찬 회사, 음식점 등

조사품목	유통업체 판매	가공용도(업무·외식용) 납품
레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카사포로푸드&베버리지의 2020년 「포카레몬100」판매수량은 전년대비 125%. 음료인「키레이트레몬」도 110%로, 주력 브랜드 2개가 과거 최고 출하량을 갱신함. 레몬사업 전체로는 전년대비 116%인 약 290억 엔으로 확대됨 ·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포카레몬100」의 공급체제를 2021년 3월부터 1.5배로 증강하고, 2022년에는 약 3배 규모까지 확대함.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항상 마시는 음료에 레몬을 소량 넣어 마시는 등의 활용 제안도 적극적으로 전개 <p style="text-align: center;">< 레몬상품군 ></p>  <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포카사포로푸드&베버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븐일레븐에서 냉동식자재 『조각레몬』판매 가격: 192엔(소비세포함) 용량: 100g 원산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자: 노스이와 세븐&아이그룹의 공동개발 <p style="text-align: center;">< 세븐일레븐 / 조각레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 가공(커트)회사, 호텔, 음식점 · 고베물산의 식자재마트가 전개하는 「슬라이스 레몬」 가격: 213엔(소비세포함) 용량: 등글게 자른 냉동레몬 300g분 원산지: 칠레 수입자: 고베물산 <p style="text-align: center;">< 슬라이스 레몬 ></p> 

조사품목	유통업체 판매	가공용도(업무·외식용) 납품
블루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의 블루베리 생산 최대기업인 Silver Valley Farms은 일본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 블루베리 레시피 등을 소개하는 「Berry at home」 프로젝트를 전개. 동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블루베리 출하량이 증가하여 2020년 3~4월은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한 수출량을 기록했으며, 간식 만들거나 평소 가정에서 별로 먹지 않는 과일을 즐기는 수요 발생 파악 · 세븐일레븐에서 냉동과일 『블루베리』판매 가격: 200엔(소비세포함). 내용량: 1봉지 130g 원산지: 캐나다 생산자: 노스이와 세븐&아이그룹 공동개발 <p style="text-align: center;">< 세븐일레븐 / 냉동 블루베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블루베리는 음식점, 호텔, 과일 가공(커팅)회사에 공급 · 냉동 블루베리는 과자회사 및 과자 소매점 등에 공급
망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트코에서 제품명 「트로피칼마리아망고짱크」 판매 가격 : 998엔(소비세포함) 100g당 약 67엔 내용량: 냉동 조각망고 1.5kg 원산지: 페루 수입자: ASK <p style="text-align: center;">< 코스트코 / 냉동망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호텔, 과일 가공(커팅) 회사에 공급

조사품목	유통업체 판매	가공용도(업무·외식용) 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븐일레븐에서 애플망고 판매 *무지개(마하차녹) 망고를 급속 동결한 상품 가격: 213엔(소비세포함) 내용량: 110g 원산지: 태국 수입자: 노스이 <p style="text-align: center;">< 세븐일레븐 / 애플망고 ></p> 	
방울양배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트코에서 중미 과테말라산 「방울양배추」 판매 가격: 899엔(소비세포함) 내용량: 680g 원산지: 과테말라 판매사: 미국 North Bay Produce <p style="text-align: center;">< 코스트코 / 방울양배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베물산의 식자재마트에서 냉동식품으로 「방울양배추」 판매 가격: 138엔(소비세포함) 내용량: 500g 원산지: 벨기에 * 냉동식품코너에서 판매하며, 가볍게 데쳐져 있어 손질 없이 요리에 활용 <p style="text-align: center;">< 고베물산/ 방울양배추 ></p> 
앞상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트코에서 「로메인하츨리프」를 뿌리를 자른 상태로 판매 가격: 798엔(소비세포함) 내용량: 1봉지 907g(3개) 원산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 채소 사업자, 조리빵 반찬 회사(샌드위치용)

(5) 실 수요기업 대응동향

조사품목	대상기업	대응동향																																																																	
키위	수입상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7,500톤의 키위를 취급하고 있음. 그중 뉴질랜드산이 약 7,000톤(93.3%), 미국 약 450톤(6%), 한국 약 10~30톤(0.4%), 일본산이 약 10톤임 뉴질랜드산의 경우 1~3월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 시기에 미국산, 한국산, 일본산으로 대체하고 있음. 한국산은 100% 업무용(음식점, 호텔, 항공사의 기내식 등)으로 출하하고 있었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한국산 키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키위 취급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산지</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뉴질랜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한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캘리포니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수입상사 A사 홈페이지</p>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뉴질랜드				■	■	■	■	■	■	■	■	■	한국	■	■										■	캘리포니아	■	■	■								■	■	일본	■	■	■	■							■	■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뉴질랜드				■	■	■	■	■	■	■	■	■																																																						
한국	■	■										■																																																							
캘리포니아	■	■	■								■	■																																																							
일본	■	■	■	■							■	■																																																							
수입상사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키위는 2019년까지 수입판매량이 증가했음. 다만, 한국산 키위는 후숙관리가 불충분한 점과 COVID-19에 따른 마이너스 영향도 커서 현재는 판매량이 거의 없음 																																																																		
브로콜리	수입상사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산 브로콜리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수입품 취급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수입산은 주로 미국산, 중국산을 취급 																																																																	
	채소도매회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산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수입산은 상황에 따라 취급함. 가공·외식업체용으로 통 채소와 간편 채소를 공급하고 있음 브로콜리는 저당질 채소로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가 쌀밥 대신에 먹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음. 동사가 주로 취급하는 일본산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가이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입산이 있으면 좋겠다고 함 																																																																	
레몬	수입상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레몬 취급량은 약 2,000톤이며, 최대 수입국은 미국임. 미국산 레몬은 연중 수입되고 있지만, 6월~9월은 그 이전에 수확되어 저장된 것에서 출하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상품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칠레나 뉴질랜드산을 수입해 신선한 레몬을 공급하고 있음 수요분야는 업무용이 80% 이상이며, 레몬사와의 인기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COVID-19 이후 음식점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일반소비자용 수요가 확대하고 있음. 레몬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는 비타민C 및 구연산 등의 건강측면의 가치가 큼. 위드 코로나 속에서 소비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구입이 증가하고 있음 																																																																	

조사품목	대상기업	대응동향																																																																	
블루베리	수입상사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신선 블루베리 수입량은 약 2,500톤이며, 그중 당사에서는 연간 500~600톤을 수입하고 있어, 전체 수입량의 20~24%를 차지해 점유율 1위임 수입량 중, 멕시코산 약 250~300톤(50%), 미국산 약150~200톤(30%), 나머지가 칠레산으로 약 100톤(20%)을 취급함 멕시코산을 9월 말~다음 해 6월 말까지 약 9개월간 수입하고, 5월 말~9월 말까지는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신선 블루베리 취급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산지</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멕시코</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칠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미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즈오카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멕시코	■	■	■	■	■	■				■	■	■	칠레	■	■								■	■	■	미국						■	■	■	■	■			시즈오카현			■	■	■							
		산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멕시코	■	■	■	■	■	■				■	■	■																																																							
칠레	■	■								■	■	■																																																							
미국						■	■	■	■	■																																																									
시즈오카현			■	■	■																																																														
출처: 수입상사 C 홈페이지																																																																			
망고	수입상사 D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산 옐로우망고를 수입·판매하고 있으나, 애플망고는 취급하지 않음. 애플망고는 이전에 멕시코산, 대만산을 전개했었음 당사의 옐로우망고 수입 판매량은 약간 감소세이지만, COVID-19의 확산 전까지는 연간 약 100톤을 취급했었음. 그러나 현재는 COVID-19 영향으로 급감해, 연간 20톤까지 감소했음 일본 국내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COVID-19 영향으로 항공운임이 급등한 점과 태국에서 망고를 수확할 노동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방울양배추	수입상사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니양배추, 로메인 상추는 미국산임. 수입형태는 모두 신선품으로, 냉동이나 가공품은 취급하지 않음 																																																																	
	채소도매회사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업체에서는 양배추 1통 통째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향후 방울양배추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잎상추	채소도매회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메인 상추는 일본 국내의 재배농가가 적고, 수입산의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임. 일본 국내시장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므로 수입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채소도매회사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잎상추는 일본 국내의 노지재배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음. 여름철부터 가을에 걸쳐 태풍 등의 영향으로 노지재배 제품의 거래가 막힐 수 있음. 이 시기에 저가의 수입품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임 																																																																	

(6) 가격동향

조사품목	대상기업	가격동향
키위	수입상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키위 수요가 높아지는 영향으로, 키위 조달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한국산 키위도 몇 년 전에는 300엔/kg 전후였으나, 최근에는 400~450엔/kg으로 상승 · 뉴질랜드산이 450~480엔/kg, 한국산은 420엔/kg 전후임. 또한 일본산은 500엔/kg 전후이므로, 수입산과 일본산의 가격 차이는 최근 좁혀지고 있음
브로콜리	수입상사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브로콜리 수입가격은 미국산 : 250엔/kg 전후로, 소매가격은 미국산 1송이(200~400g) 140엔 전후 · 냉동 브로콜리 수입가격은 중국산이 220~250엔/kg, 소매가격 520~550엔/kg
레몬	수입상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레몬의 수입가격은 미국산이 200엔/kg 전후로 수입되어, 도매로 320~350엔/kg으로 공급. 주로 업무용으로 공급되며, 소매가격은 480~550엔/kg 전후.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음식점의 영업규제로 인해 가격은 하락세
블루베리	수입상사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블루베리의 수입가격은 1,600~2,000엔/kg으로 상사에서 도매 회사에 공급하고, 일반 소매용은 3,000엔/kg 전후, 영업용은 2,500엔/kg으로 판매
망고	수입상사 D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에서는 옐로우망고 5kg/케이스 3,000엔 이하, 250~400g/개 300엔대 등의 조건을 제시함. 그러나 당사에서는 이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는 항공편 및 선박편으로 도착하여, 그 후에는 일본 국내의 운송비용이 상품원가에 포함됨. COVID-19 상황으로 항공운임이 급등하고 있음. 다만, 수출국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청과물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수송비용은 약간 낮음. 현재는 태국이 높음
방울양배추	채소도매회사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울양배추는 상사가 600엔/kg로 조달하여, 도매회사(가공회사)에 700~980엔/kg에 공급하고, 일반 소매용은 1,800엔/kg 전후, 업무용은 1,200엔/kg 전후로 공급
잎상추	채소도매회사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상추는 700~1,000엔/kg으로 상사에서 도매회사(간편 채소 등)에 공급하고, 업무용으로 1,500엔/kg으로 공급함. COVID-19 전에는 2,000엔/kg 전후로 공급

< 가격동향 >

품목	일본산 평균 도매가격 (엔/kg)	형태	수입단가 (엔/kg) CIF기준	일본산과의 가격차이	수입상사→ 도매업자 단가(엔/kg)	소매용 최종가격 (엔/kg)	가공용도 (업무· 외식용) (엔/kg)
키위	497.2	신선	431.7	86.8%	450~500	1,000~	800~
브로콜리	497.2	신선	234.6	47.2%	250~300	700~	600~
		냉동	204.1	41.0%	220~250	—	520~550
레몬	404.4	신선·건조	193.8	47.9%	200~250	—	300~
		과즙	312.5	77.3%	320~350	—	480~550
블루베리	2,357.5	신선	1,440.3	61.1%	1,600~2,000	3,000~	2,500~
		냉동	358.5	15.2%	400~700	720~1,000	900~
망고	1,940	신선	468.5	24.1%	600~900	1,000~	900~
방울양배추	951.9	신선	543.7	57.1%	700~980	1,800~	1,200~
앞상추	200.8	신선	511.5	254.7%	700~1,000	—	1,500~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7) 유통구조

조사품목		유통구조		
키위	일본산	출하량 : 2만 2,500t 산지 : 에히메(25.2%), 후쿠오카(22.0%)	도매(도쿄청과 등), 상사, 제스프리인터내셔널재팬 등	유통업체 판매 98% 가공용도(업무·외식용) 2%
	수입산	수입량 : 11만 3,432t 뉴질랜드(93.8%)	상사, 제스프리인터내셔널 재팬 등	유통업체 판매 90% 가공용도(업무·외식용) 10%
브로콜리	일본산	출하량 : 15만 3,700t 산지 : 홋카이도(16.7%), 아이치(9.5%)	도매 (도쿄청과, 도쿄시티청과, 다이카오사카청과)	유통업체 판매 66% 가공용도(업무·외식용) 34%
	수입산	수입량(냉장) : 7,066t 미국(75%) 등 수입량(냉동) : 5만 8,619t 중국(48.5%), 에라도르(46.6%) 등	상사 (H&F 인터내셔널재팬, 다이에이청과 유니온 등)	유통업체 판매 20% 가공용도(업무·외식용) 80%
레몬	일본산	출하량 : 5,528t 산지 : 히로시마(42%), 에히메(31%) 등	도매 (도쿄청과, 도쿄시티청 과, 다이카오사카청과 등)	유통업체 판매 82.2% 가공·외식업체(납품) 17.8%
	수입산	수입량(신선건조) : 4만 4,957t 미국(49.6%), 칠레(41.7%) 등 레몬주스: 2만 1,970t 아르헨티나(33.7%) 이탈리아(31.9%)	상사 (후나쇼상사, 유니온, Wismettac Foods 등)	유통업체 판매 50% 가공·외식업체(납품) 50%

조사품목		유통구조			
블루베리	일본산	출하량 : 1,521t 산지 : 나가노(11.7%), 도쿄(9%) 등	도매 (도쿄청과, 도쿄시티청과, 다이카오사카청과 등)	유통업체 판매 73.4%	가공·외식업체(납품) 26.6%
	수입산	수입량(신선) : 2,492t 멕시코(42%), 미국(40%) 등 수입량(냉동) : 2만 1,223t 캐나다(56%), 미국(18%) 등	상사 (WATARI, 후나쇼상사, H&F인터내셔널, Wismettac Foods 등)	유통업체 판매 10.5%	가공·외식업체(납품) 89.5%
망고	일본산	출하량 : 3,329t 오키나와(52%), 미야자키 (33%) 등	도매 (도쿄청과, 도쿄시티청과, 다이카오사카청과 등)	유통업체 판매 92.2%	가공·외식업체(납품) 7.8%
	수입산	수입량(신선) : 6,720t 멕시코(52%), 태국(18%) 등	상사 (WATARI, 후나쇼상사, 쇼와무역, Wismettac Foods, 유니온 등)	유통업체 판매 30%	가공·외식업체(납품) 70%
방울양배추	일본산	출하량: 314t 시즈오카(93.4%) 등	도매 (도쿄청과, 도쿄시티청과, 다이카오사카청과 등)	유통업체 판매 90%	가공·외식업체(납품) 10%
	수입산	수입량(신선): 142t 멕시코(35%), 미국(29%) 등	상사 (마루, H&F인터내셔널 등)	유통업체 판매 40%	가공·외식업체(납품) 60%

조사품목		유통구조			
앞상추	일본산	출하량 : 6만 6,086t 나가노(40%), 후쿠오카(15%) 등	도매 (도쿄청과, 도쿄시티청과, 다이카오사카청과 등)	유통업체 판매 79.7%	가공·외식업체(납품) 20.3%
	수입산	수입량(신선) : 73t 멕시코(79%), 대만(21%) 등	상사 (교에이랜드, 이씨커피그룹 등)	유통업체 판매 5%	가공·외식업체(납품) 95%

3. 일본시장 진출·확대 가능성

가. 일본 실수요기업의 한국산에 대한 견해

조사품목	대상기업	견해
키위	수입상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키위가 일본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이며, 당사는 초창기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산의 거래가 없는 1월~3월경에 판매하고 있음 · 한국산 키위는 부산의 농가에서 한국의 수출상사인 경남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산 키위는 2014~2019년까지 연간 10~30톤을 취급했으며, 품종은 주로 헤이워드종(그린) · 한국산은 후숙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함. 뉴질랜드산은 온도관리가 철저하며, 판매점포에서도 10일 정도 판매가 가능해 인기가 있음 · 또한 한국 국내에서도 키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생산자가 수출용으로 돌리지 않고, 한국 국내 출하를 하는 경향이 있어, 업무용 거래처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을 조달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음
	수입상사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키위를 연말~1, 2월 정도의 기간에 취급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관리 문제와 COVID-19의 영향도 있어 현재는 적극적인 취급량 확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 · 키위는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그 품질관리 및 트레이서빌리티가 중요함. 그러나 한국산은 수확 후에 어느 정도의 양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 결과 품질 및 물량확보의 불안정으로 이어짐 · 뉴질랜드산은 제스프리 시스템으로 대표되듯, 농가에서 매장까지 일관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음. 칠레산도 비교적 품질관리를 잘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각 나라·각지의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수요에 맞추어 한국산 키위를 취급하고 있음. 향후 한국의 품질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을 기대함

나. 한국산 진출·확대 가능

- 이번 조사 품목 중에서 한국산의 보급 가능성이 있는 것은 키위, 방울양배추, 잎상추 3품목임. 블루베리는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하고, 3품목은 아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보급 가능성	조사품목	대상기업	한국산의 보급 가능성
○	키위	수입상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음식점용 등의 업무용 수요가 회복되면, 다시 한국산 키위의 수입량을 확대하고 싶음. 다만, 한국산 키위의 조달 가격이 400~450엔/kg으로, 당사는 채산성이 낮음. 400엔/kg 이하로 조달하고 싶음 · 또한 1~3월에 걸쳐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및 온도관리 철저 등도 요망됨. 향후 일반소매점 등 판로확대를 생각하면 포장 패키지(한글을 기재하지 않음) 변경 등도 요망됨
		수입상사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키위의 온도 및 운송관리 부족을 지적할 수 있음. 품질 및 물량의 불안정으로 이어짐. 사업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확실한 대응이 중요함 · 국가적인 대응이 한국산 청과물의 수요확대 등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브로콜리	채소도매회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로콜리는 저당질 채소로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가 쌀밥 대신에 먹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음. 일본산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향후 수입이 증가할 것임 · 신선 브로콜리는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고, 냉동 브로콜리는 에콰도르산과 중국산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낮아 진입이 어려움
×	레몬	수입상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건조 레몬은 북반구의 미국, 남반구의 칠레로 산지가 구분되어 있으며, 양국 모두 고품질이기 때문에 진입 가능성은 낮음. 또한 레몬주스 등의 과즙은 저가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낮아 진입이 어려움
△	블루베리	수입상사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블루베리는 북반구의 멕시코, 미국과 남반구의 칠레 3개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나라는 고품질의 블루베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음 · 한국산 블루베리의 진입 가능성으로는 유기농 블루베리의 수출임. 유기농 블루베리는 공급량이 적고, 소비자 니즈도 높아서 향후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임 · 수입산 신선 블루베리의 소매가격은 3,000엔/kg 전후이지만, 유기농 블루베리는 4,000엔/kg임 전후. 한국이 안정된 수량의 유기농 블루베리를 공급한다면, 거래를 희망하는 일본상사가 많을 것임

보급 가능성	조사품목	대상기업	한국산의 보급 가능성
×	망고	수입상사 D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애플망고는 고급 브랜드 제품으로 파악됨. 한국 국내에서는 선물용의 유통량이 많아, 큰 사이즈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산의 유통이 증가해, 가격도 내리고 있음. 일본과 수확시기가 거의 같은 제주도 애플망고를 일본산과 동일하게 유통시킨다면 그 수요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산 애플망고보다 제주도산을 압도적인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면 수요가 생길지도 모름 · 한편 1등급의 선물용 제주도 애플망고가 아니라, 모양이 작거나, 2등급, 3등급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것도 일본 국내 망고 수요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판매방법은 제주도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음
○	방울 양배추	채소도매회사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울양배추는 일본 국내의 재배농가가 적고, 수입산의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임. 일본 국내시장에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보급 가능성이 있음
○	앞상추	채소도매회사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상추는 결구 양상추에 비해 폐기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업무용 간편 채소 사업자 및 샌드위치 회사에서 수요가 높음. 또한 샌드위치 시장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일본산은 최근 기후불순으로 공급량이 불안정함. 따라서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대만 2개국임. 미국은 거리가 멀어 신선도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일본과 가까운 한국산 앞상추의 수요가 높아질 것임

4. 일본시장 진출·확대 방안

가.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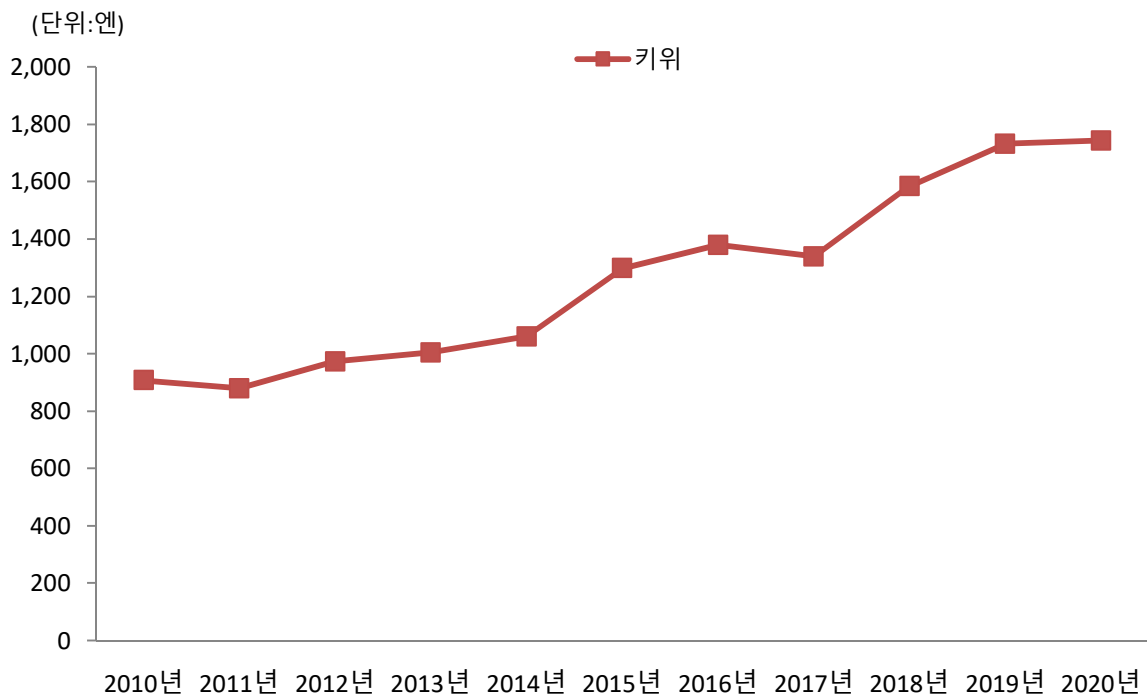
(1) 1가구당 연간 평균 구매액

- 대상 품목의 2020년 1가구당 소비 동향을 보면, 키워는 2010년 907엔, 2020년은 2010년 대비 192.2%인 1,743엔으로 대폭 확대

< 1가구당 연간 키워 평균 구매액 >

(단위: 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2010년 대비 / 2020년 지출금액 >
907	880	973	1,005	1,060	1,298	1,380	1,340	1,585	1,732	1,743	6.8%





*출처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2) 일본 내 현황 및 유통 가능성

조사품목	일본 내 현황
키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위는 비교적 장기보관이 가능한 과일이지만, 뉴질랜드에서 4월경 수확된 키위는 온도관리를 철저히 해도 8개월밖에 품질이 유지되지 않음. 따라서 12월에서 3월까지의 키위 수입량이 급감함 • 제스프리사에서는 일본 국내의 생산자와 재배 계약을 체결해, 일본산 키위를 생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량이 적음 • 키위 수입상사 A사에 따르면, 일본산의 가격이 수입품의 1.5배로, 경쟁력이 없다는 점이 과제
	유통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산의 수입량이 줄어드는 1~3월에 한국산 키위의 수요가 높음 • 당도가 높은 골드키위는 한국에서도 재배되고 있어, 1~3월에 공급이 가능하다면 시장성은 높음 • 그린키위의 매장 가격은 개당 88~120엔이지만, 골드키위는 100~130엔 정도 • 한국산 키위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A사에 따르면 일본어 포장패키지 또는 한국어가 기재되지 않은 포장패키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가공·외식업체용 뿐만 아니라 마트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

(3) 유망 품목의 형태

조사품목	유망 품목의 형태
키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품종은 골드키위. 한국 국내에는 원형의 해금골드, 종 모양의 제시골드 등 자체 개발한 품종이 있어, 겨울철에 귀한 신선 골드키위를 공급할 수 있다면 니즈는 높음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산 유망 키위 품종></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 해금, 우: 제시</p>

*출처 : 후나쇼상사

(4) 일본 내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 키위는 최대 수입국인 뉴질랜드산이 약 450엔/kg이며, 일본산 키위는 480~500엔/kg. 수입상사에서는 한국산 키위를 400엔/kg 이하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

<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

형태	수입단가 (엔/kg) <CIF>※	주요 수입국 수입단가 (수입국→수입상사) (엔/kg)	이 중 일본 내 물류비 (엔/kg)	주요 수입국	한국산 수입가격범위 (한국→수입상사) (엔/kg)	이 중 일본 내 물류비 (엔/kg)
신선	431.7	450엔	18.3	뉴질랜드	380~400	20

※ CIF가격(보험료·운임비 포함 가격)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5) 향후 유망 품목 및 수요분야 진출 시 유의점

유망품목	키위
차별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산의 거래가 줄어드는 1~3월에 수출 • 유망 품종은 골드키위
희망가격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0~400엔/kg • 당도가 높고 인기가 있는 골드키위는 400엔/kg도 수요가 있음
유망 유통·판매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외식업체용은 COVID-19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향후는 일반 소매용의 개척 필요
희망판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영어 등이 표기된 포장패키지 개발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키위는 온도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관일수가 길어지는 온도관리 및 운송관리가 필요

나. 방울양배추

(1) 1가구당 연간 평균 구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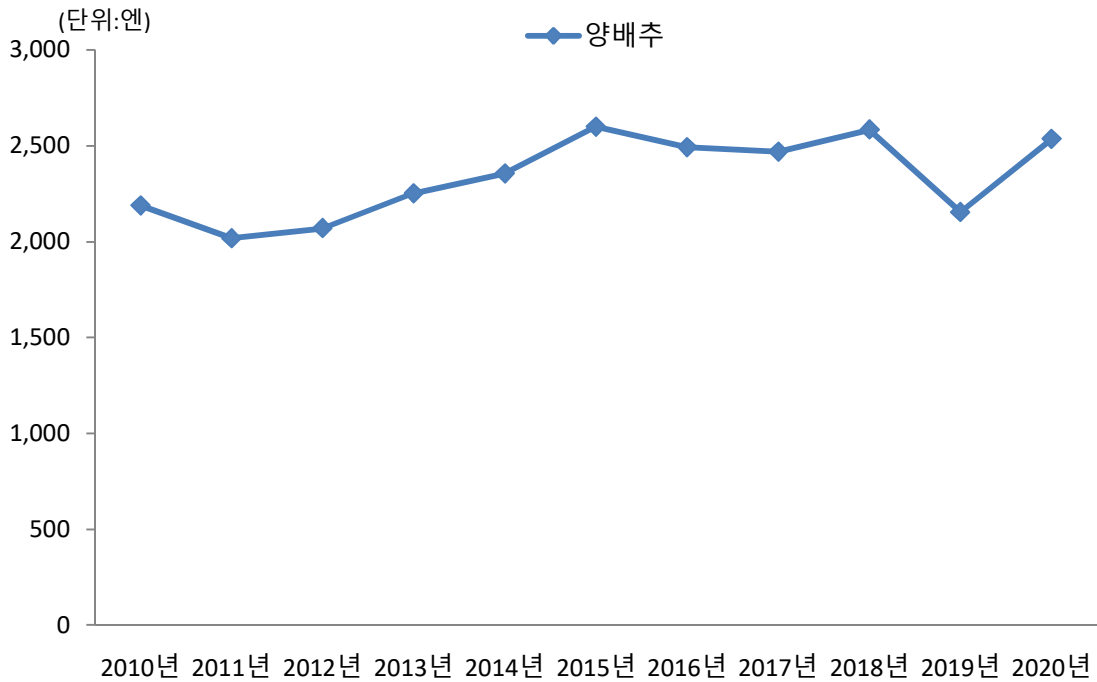
- 대상 품목의 2020년 1가구당 소비 동향을 보면, 양배추는 2010년 2,188엔, 2020년은 2010년 대비 116%인 2,537엔으로 대폭 확대

※ 방울양배추의 통계정보는 파악이 지난하여, 「양배추」 통계정보 기재

< 1가구당 연간 양배추 평균 구매액 >

(단위: 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2010년 대비 / 2020년 지출금액 >
2,188	2,017	2,070	2,253	2,356	2,600	2,493	2,470	2,584	2,154	2,537	1.5%



*출처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2) 일본 내 현황 및 유통 가능성

조사품목	일본 내 현황
방울양배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 방울양배추의 출하량은 314톤이며, 이 중 시즈오카현이 93.6%. 기후 불순 등으로 산지의 분산화가 과제 • 일본산 방울양배추는 12~3월까지 출하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는 조달이 어려움 • 일본 소비자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이 과제 • 인지도 제고를 위해 향후 레시피 제안(수프, 스투, 카레에 그대로 넣어서 사용, 샐러드 등) 및 프로모션이 필요
	유통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방울양배추는 가볍게 데쳐진 상태로 수입되어 특별한 손질 없이 요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및 요리시간 단축 니즈가 높아지는 일본에서 보급 가능성이 있음 • 방울양배추의 수입량은 2010년에 17톤이었으나, 2015년 103톤, 2020년 142톤으로 확대

(3) 유망 품목의 형태

조사품목	유망 품목의 형태
방울양배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울양배추는 작은 품종과 높이 자라는 품종으로 크게 구분됨. 높이 자라는 품종이 많이 수확할 수 있어 유망함 • 높이 자라는 품종 중 하나인 「고모치칸란(子持甘藍)」은 양배추의 변종으로 벨기에에서 탄생하여, 19세기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로 퍼짐. 이 품종은 직경 3cm 이상의 큰 방울양배추가 20~30개 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수출 형태로는 방울양배추를 살짝 데쳐 냉동한 형태가 유망함

(4) 일본 내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 방울양배추는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가 600엔/kg, 일본산이 951엔/kg이므로 한국산은 550엔/kg이면 가격 경쟁력이 있음. 또한 신선보다 냉동 형태가 유망하며 가격대는 180엔/kg이면 가격 경쟁력이 있음

<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

형태	수입단가 (엔/kg) <CIF>※	주요 수입국 수입단가 (수입국→수입상사) (엔/kg)	이 중 일본 내 물류비 (엔/kg)	주요 수입국	한국산 수입가격범위 (한국→수입상사) (엔/kg)	이 중 일본 내 물류비 (엔/kg)
신선	543.7	600	56.3	멕시코	550	30
냉동	172.4	200	27.6	중국	180	25

※ CIF가격(보험료·운임비 포함 가격)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5) 향후 유망 품목 및 수요분야 진출 시 유의점

유망품목	방울양배추
차별화 전략	• 일본산은 12~3월까지 출하되기 때문에 연중 출하가 바람직함
희망가격대	• 신선 550엔/kg, 냉동 180엔/kg
유망 유통·판매채널	• 냉동채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드럭스토어와 식자재마트
희망판촉방법	• 손질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냉동 방울양배추 개발
유의점	• 일본에서는 방울양배추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향후 레시피 제안 및 방울양배추 자체의 인지도 제고(프로모션)이 필요함

다. 양상추

(1) 1가구당 연간 평균 구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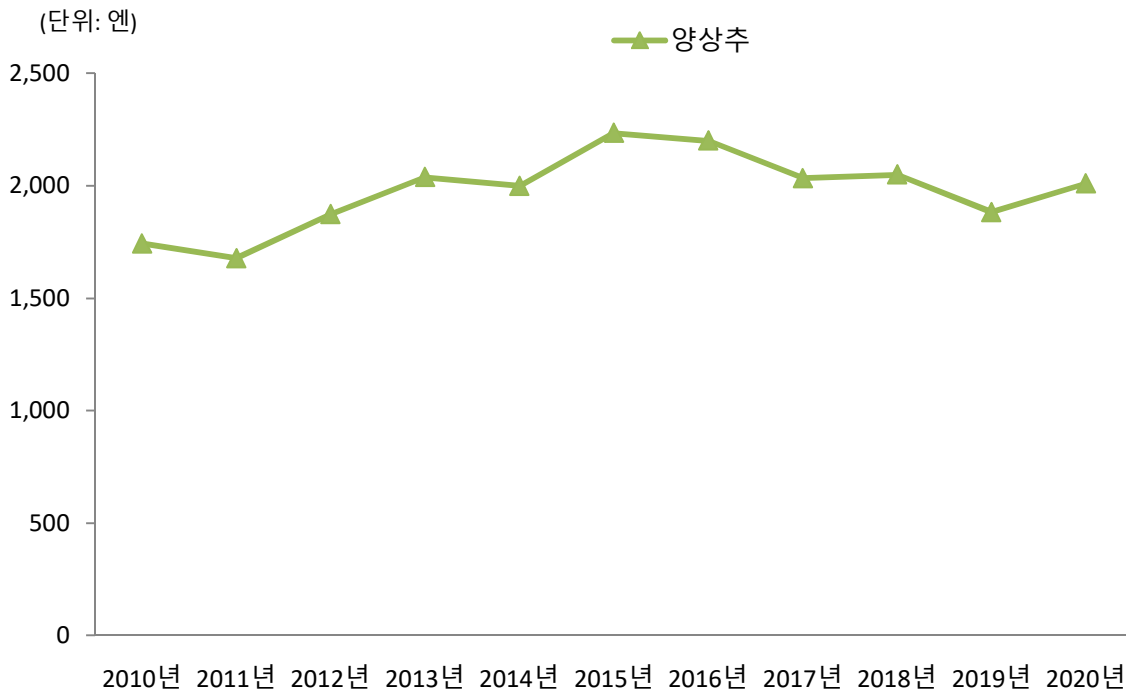
- 대상 품목의 2020년 1가구당 소비 동향을 보면, 양상추는 2010년에 1,744엔이며, 2020년은 2010년 대비 115.3%인 2,010엔으로 대폭 확대

※양상추는 통계정보가 없으므로 「양상추」를 기재

< 1가구당 연간 양상추 평균 구매액 >

(단위: 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2010년 대비 /2020년 지출금액 >
1,744	1,678	1,875	2,039	2,000	2,235	2,201	2,035	2,050	1,884	2,010	1.4%




*출처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2) 일본 내 현황 및 유통 가능성

조사품목	일본 내 현황
잎상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 잎상추는 연중 수요가 높지만, 최근 여름철의 기온상승 등에 따라 공급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공·외식업체용 수요(간편채소, 샌드위치 기업)에서는 안정된 수량 및 가격을 희망함 • 최근 일본산 잎상추가 흉작일 때 대만산이 가공·외식업체용으로 수입되었음
	유통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상추는 양상추에 비해 폐기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간편채소 사업자의 수요가 높음 • 2020년 잎상추 수입량은 73톤, 수입국은 미국과 대만 2개국 • 일본과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신선도가 높은 점을 홍보한다면 한국산도 가능성이 있음 • 일본산이 흉작일 때, 가공·외식업체용 수요가 높음

(3) 유망 품목의 형태

조사품목	유망 품목의 형태
<p>잎상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상추는 로메인 상추, 써니 레터스, 프릴 레터스(그린 리프 레터스)로 분류되고, 수요 분야에 따라 니즈가 다름 • 로메인 상추는 잎이 짙은 녹색으로 볼륨이 있고 두툼하며 약간 쓴맛이 남. 아삭아삭 씹히는 감촉을 살린 시저 샐러드나 수프 및 파스타 등의 가열 조리에 적합함 • 써니 레터스는 잎은 붉은 보라색이고, 잎상추의 총칭으로 「레드 레터스」라고도 불림. 다른 양상추와 섞어 샐러드를 만들면 자줏빛이 어우러져 화려한 비주얼로 완성됨 • 프릴 레터스는 그린 리프의 일종으로 잎 끝이 까칠까칠하고 가는 프릴 형태임. 잎이 두껍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어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적합함 • 잎상추는 신선품이 유망 <p style="text-align: center;"><로메인 상추(좌), 써니 레터스(가운데), 프릴 레터스(우)></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4) 일본 내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 앞상추는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680엔/kg이므로 한국산은 근거리를 활용해 550엔/kg이면 가격 경쟁력이 있음

<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

형태	수입단가 (엔/kg) <CIF>※	주요 수입국 수입단가 (수입국→수입상사) (엔/kg)	이 중 일본 내 물류비 (엔/kg)	주요 수입국	한국산 수입가격범위 (한국→수입상사) (엔/kg)	이 중 일본 내 물류비 (엔/kg)
신선	511.5	680	168.5	미국	550	45

※ CIF가격(보험료·운임비 포함 가격)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5) 향후 유망 품목 및 수요분야 진출 시 유의점

유망품목	앞상추
차별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비해 일본과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높은 신선도가 차별화 포인트
희망가격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엔/kg, 연중 출하가 바람직함 • 연중 출하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원에 재배
유망 유통·판매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외식업체용(간편 샐러드, 샌드위치)이 유망
희망판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에 비해 높은 신선도가 판매전략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가공·외식업체용 양상추 생산에 특화한 대규모 식물공장 가동이 위협 요소

라. 블루베리

(1) 수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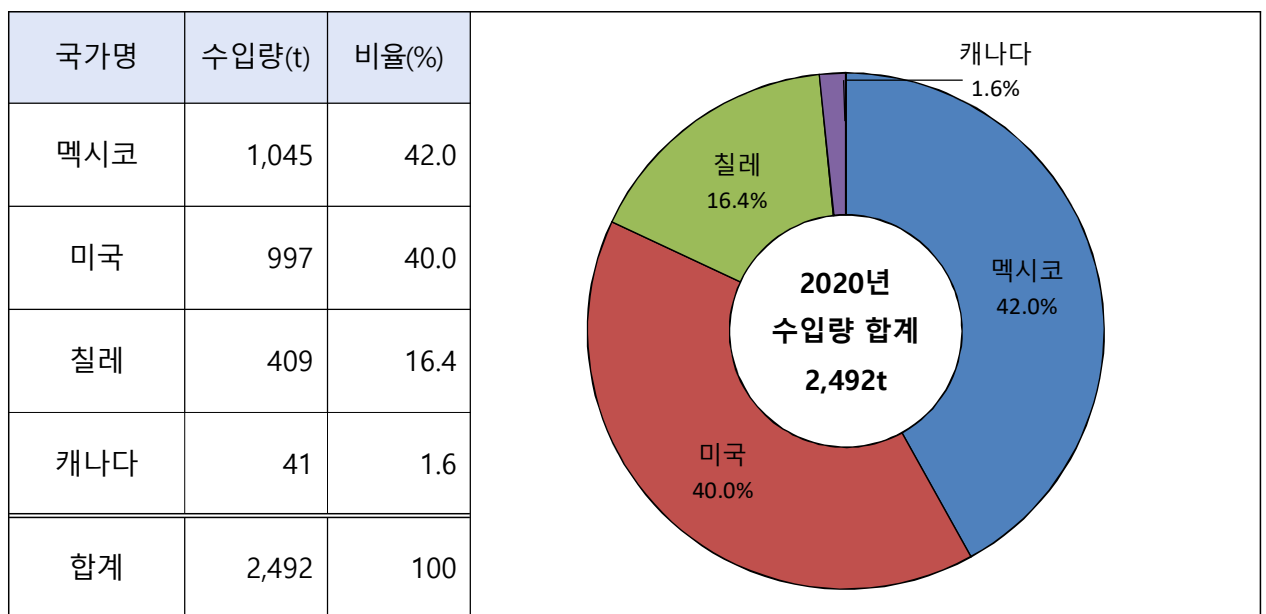
- 일본의 블루베리 소비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신선 블루베리의 수입량을 보면 2020년 2,492톤으로, 2010년에 비해 122% 이상 증가
- 신선 블루베리의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가 1,045톤(42.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997톤(40.0%), 칠레 409톤(16.4%)

< 블루베리(신선) 수입량 추이 >

(단위: 톤)

품목	2010년	2015년	2020년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및 로건베리	473	603	488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 및 구스베리	23	11	8
크랜베리, 빌베리 및 기타 박시니엄속 과실	1,547	1,730	1,996
합계	2,042	2,345	2,492
지난 조사결과 대비	—	114.8%	106.3%

< 2020년 블루베리(신선) 국가별 수입 비율 >



*출처 : 재무성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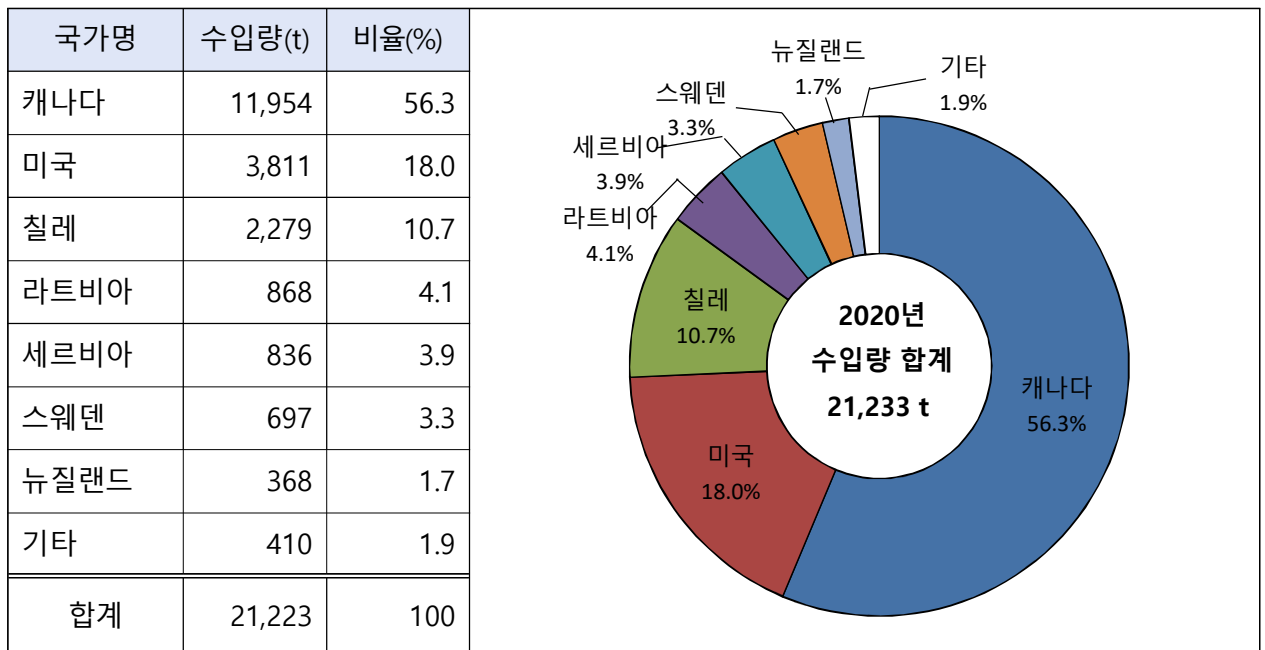
- 냉동 블루베리 수입량을 보면 2020년 2만1,223톤으로 2010년 대비 140% 이상 증가
- 냉동 블루베리의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가 1만1,954톤(56.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3,811톤(18.0%), 칠레 2,279톤(10.7%)

< 블루베리(냉동) 수입량 추이 >

(단위: 톤)

품목	2010년	2015년	2020년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 및 구스베리(설탕을 더한 것)	111	115	46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 블랙커런트, 화이트커런트, 레드커런트 및 구스베리(기타)	1,842	3,004	2,989
기타 베리(설탕을 더한 것)	7	0.3	0
기타 베리(기타)	13,034	15,746	18,187
합계	14,994	18,866	21,223
지난 조사결과 대비	—	125.8%	112.5%

< 2020년 블루베리(냉동) 국가별 수입 비율 >



*출처 : 재무성 「무역통계」

(2) 일본 내 현황 및 유통 가능성

조사품목	일본 내 현황
블루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 블루베리 출하량이 1,521톤인 것에 비해 신선 블루베리 수입량은 2,492톤, 냉동 블루베리는 2만1,223톤으로 수입이 많은 품목임 • 수입국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이며, 수입산 블루베리의 신선도 등 평가가 높아서 신규 진입은 어려움
	유통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냉동 블루베리의 수출 가능성은 낮지만, 희소가치가 높은 유기농 블루베리를 수출한다면 가능성 있음 • 수입 신선 블루베리의 소매가격은 약 3,000엔/kg이지만, 유기농 블루베리는 약 4,000엔/kg

(3) 유망 품목의 형태

조사품목	유망 품목의 형태
블루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베리는 종류가 다양함. 재배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재배에 적합한 조건이 각각 다름 • 노던 하이부시 블루베리는 미국 북동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야생종을 개량한 것으로 뿌리가 얇게 퍼지기 때문에 고온과 건조에 약한 반면, 겨울의 저온에 강해 일본에서는 간토(關東) 이북부터 도호쿠(東北) 지방에 적합함 • 서던 하이부시 블루베리는 노던 하이부시 블루베리를 개량한 따뜻한 지방에 적합한 품종. 온난한 지역에 적합해 일본에서는 도호쿠 남부~오키나와(沖繩)에서 재배 가능 • 래빗아이 블루베리는 간토 이남 지역에 적합하며, 사질토부터 점질토까지 토양 적응성이 넓고, 생육은 노던 하이부시계 및 서던 하이부시계보다 왕성해 수확량도 많음

(4) 일본 내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 블루베리는 신선 및 냉동 모두 진입 장벽이 높지만, 유기농 블루베리를 공급할 수 있다면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음. 가격대는 약 3,500엔/kg이면 가격 경쟁력이 있음

< 품목별 경쟁력 있는 수입가격 >

형태	수입단가 (엔/kg) <CIF>※	주요 수입국 수입단가 (수입국→수입상사) (엔/kg)	이 중 일본 내 물류비 (엔/kg)	주요 수입국	한국산 수입가격범위 (한국→수입상사) (엔/kg)	이 중 일본 내 물류비(엔/kg)
신선	1,440.3	1,500	59.7	멕시코	3,500	100

※ CIF가격(보험료·운임비 포함 가격)

※ 블루베리는 유기농 블루베리 상정가격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5) 향후 유망 품목 및 수요분야 진출 시 유의점

유망품목	블루베리
차별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니즈가 높지만 공급량이 적은 유기농 블루베리를 수출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 도모
희망가격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블루베리 3,500~엔/kg
유망 유통·판매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 유기농 전문 소매점
희망판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을 전면으로 내세워 홍보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가 어려운 유기농 블루베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과제

참고자료

□ 일본의 가공·업무용 채소를 둘러싼 사회구조 변화

- 일본에서는 가정 내 조리용이 중심인 채소 수요는 1970년대 이후 사회구조·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공·업무용 수요가 확대되어 왔음. 향후에도 외식 빈도 증가 및 가정식의 간편화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공·외식업체용으로 수요가 전환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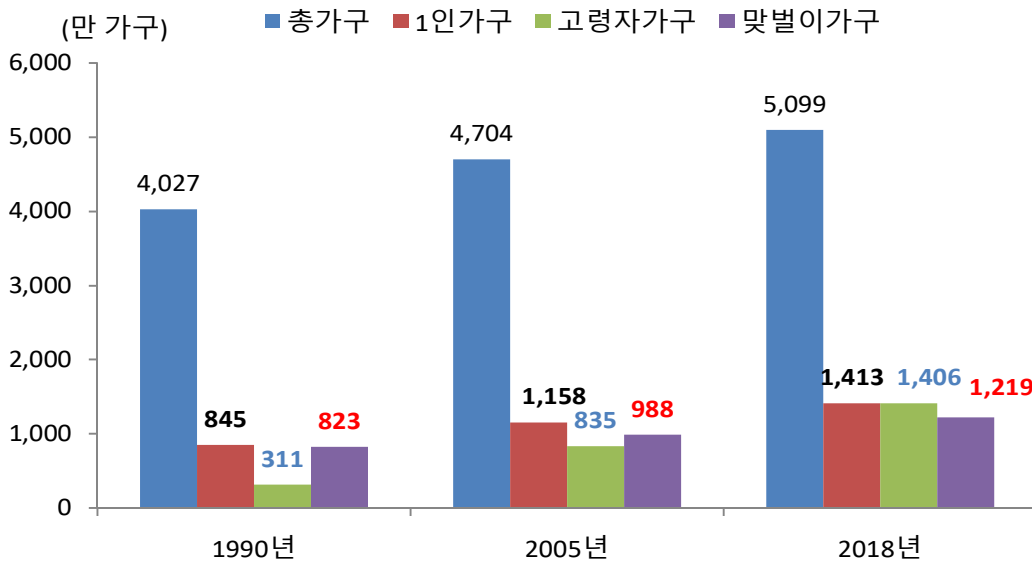
< 일본의 가공·외식업체용 채소를 둘러싼 사회구조 변화 >

1970~ 1980년대		<p>외식 체인화의 진전 등, 대량·계획 매입이 전제된 가공·외식업체용 수요가 증가</p>
1980~ 1990년대		<p>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식 빈도 증가되어 외식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국산을 중심으로 가공용 수입 채소가 증가</p>
2000년~ 현재		<p>가구 구성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음식의 간편화·다양화가 확대되어 간편 채소의 니즈 확대</p>
향후	<p>1인 가구 및 여성의 취업률 증가 추세 외식 빈도 증가 및 간편화가 요구되는 사회 정세는 향후 계속</p>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 고령화 진전 및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대가족 가구가 감소하고,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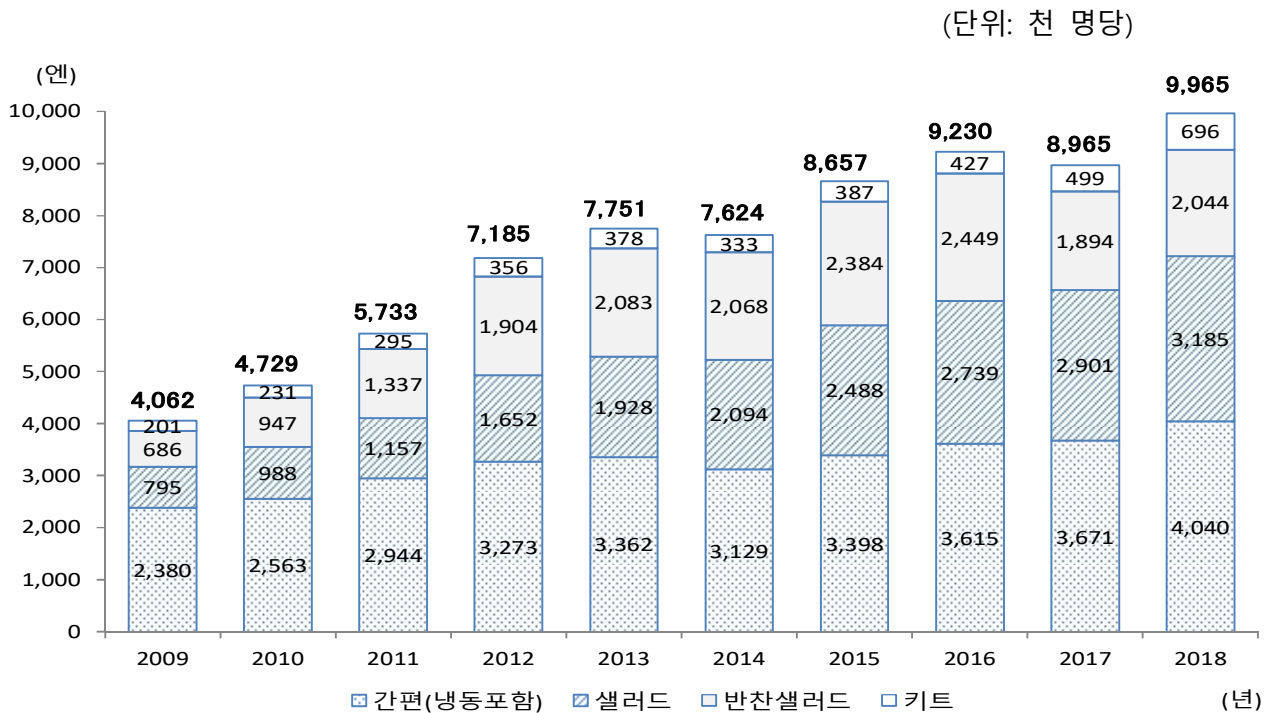
< 가구 구성의 변화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간편 채소 판매금액은 2009년 4,062엔에서 2018년에는 9,965엔으로 확대

< 간편 채소 판매금액 >



*출처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 드럭스토어 식품분야로의 판매 확대

- 드럭스토어 체인은 일반 의약품 및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헬스 & 뷰티케어 상품을 중심으로 일용잡화, 식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다양하게 갖추어 할인판매를 실시하여, 편리성과 저가격을 어필하는 것으로 성장해왔음
- COVID-19의 영향으로 식품 매출이 신장하고 있는 드럭스토어를 볼 수 있음. 드럭스토어가 주로 취급하는 인스턴트식품 및 과자류 등, 장기 보존이 가능한 식품류 등은 집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임. 이것들은 각 드러그 체인의 매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현재 COVID-19의 확산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 등 위생용품이 매출을 유지하고 있음. 돌발적으로 발생한 위생품 수요에 대응하면서 신선식품의 취급을 증가해, 원스톱으로 일상적인 쇼핑을 해결할 수 있는 점포를 만들어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식품판매에 주력하는 코스모스약품에서는 2020년 5월기, 총매출이 6,844억300만 엔이었으며, 그중 식품매출은 3,926억2,700만 엔으로 57.4%를 차지함. 또한 Genky Drug Stores는 총매출 1,222억2,300만 엔 중, 식품매출이 62.2%를 차지하는 등, 모두 소상공인에서 출점을 강화하는 드러그 체인 입장에서 식품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0년도 주요 기업 식품 매출액 >

(단위: 백만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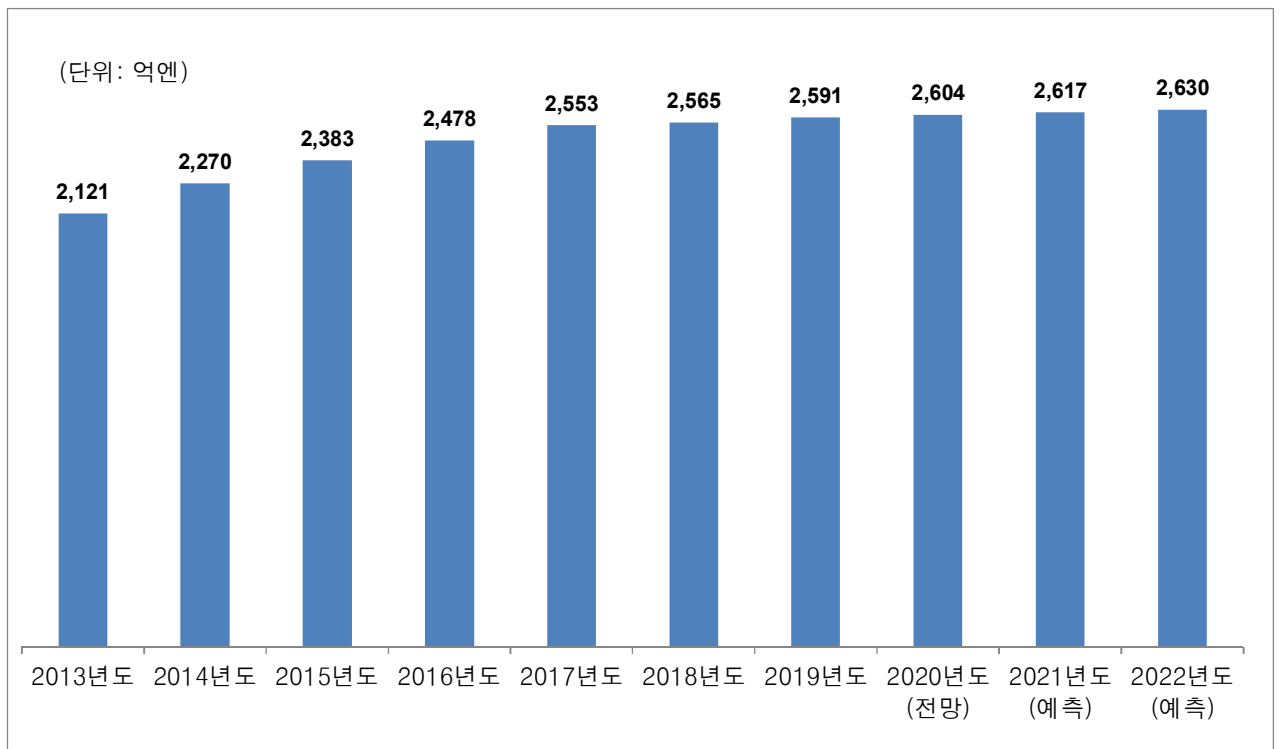
기업명	결산기	상품매출액	전기대비	식품매출액	전기대비	식품매출비율
코스모스약품	2020/5	684,403	112.0	392,627	114.2	57.4
Welcia Holdings	2020/2	868,280	111.4	191,927	110.9	22.1
TSURUHA Holdings	2020/5	841,036	107.5	194,494	111.3	23.1
가와치약품	2020/3	270,313	101.6	124,046	101.2	46.0
CREATE SD Holdings	2020/5	319,588	111.6	112,939	112.8	39.7
Genky DrugStores	2020/6	122,223	117.6	76,940	120.9	62.2
마쓰모토키요시홀딩스	2020/3	590,593	102.5	53,426	103.1	9.1
cocokara fine	2020/3	403,875	100.8	40,074	101.2	11.0
YAKUODO Holdings	2020/2	102,017	111.1	43,054	112.2	42.3
SATUDORA Holdings	2020/5	89,304	105.5	32,737	110.7	36.7

*주: 그룹 전체기준, 식품 구분은 각 사의 정의에 따름

□ 일본 국내의 샌드위치 시장규모 추이

- 최근 편의점·슈퍼마켓용 샌드위치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편의점의 보급 확대에 따라 커피와 세트 구매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 지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샌드위치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음
- 당사의 조사자료 「2019년판 빵 시장의 전망과 전략」에 의하면 샌드위치를 포함한 조리빵의 시장규모는 2013년도 2,121억 엔이었으나, 매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22년도에는 2,630억 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함

< 조리빵(샌드위치 등) 시장규모 추이(2013~2022년도 예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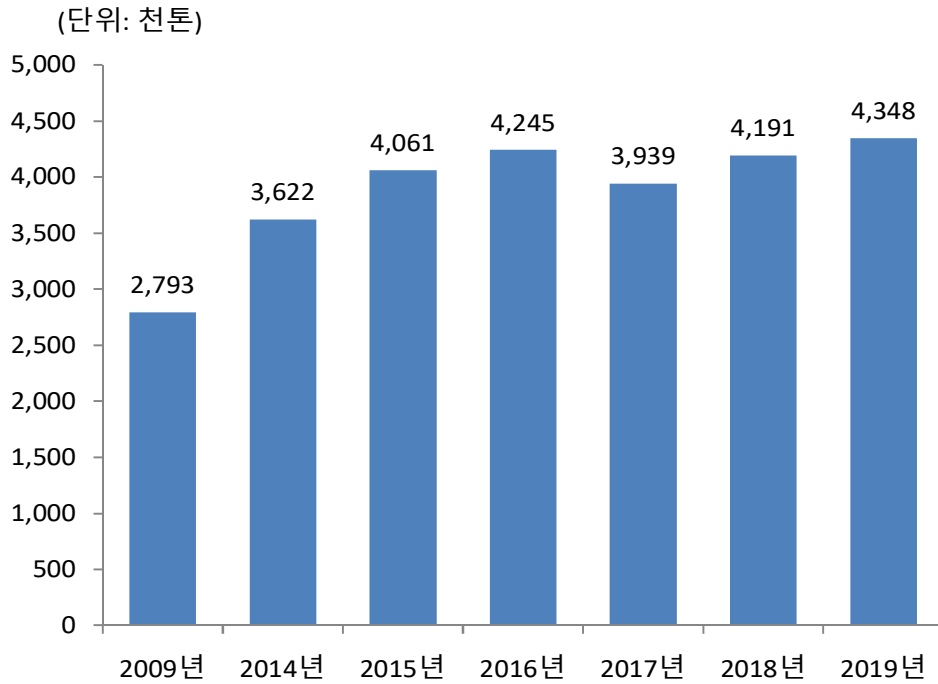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2019년판 빵 시장의 전망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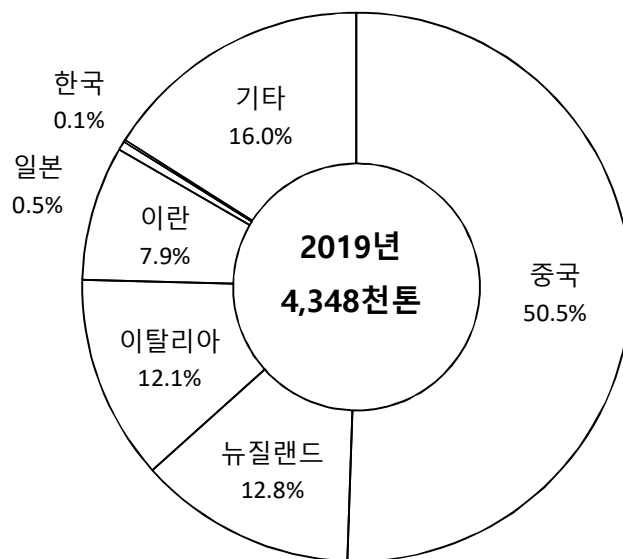
□ 키위의 해외 시장성

- 2019년 세계 키위 생산량은 434만8,000톤. 2009년도 대비 155만5,000톤 증가(155.6%)
- 2019년 국가별 생산량은 중국이 219만7,000톤(5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뉴질랜드 55만8,000톤(12.8%), 이탈리아 52만4,000톤(12.1%)

< 세계 키위 생산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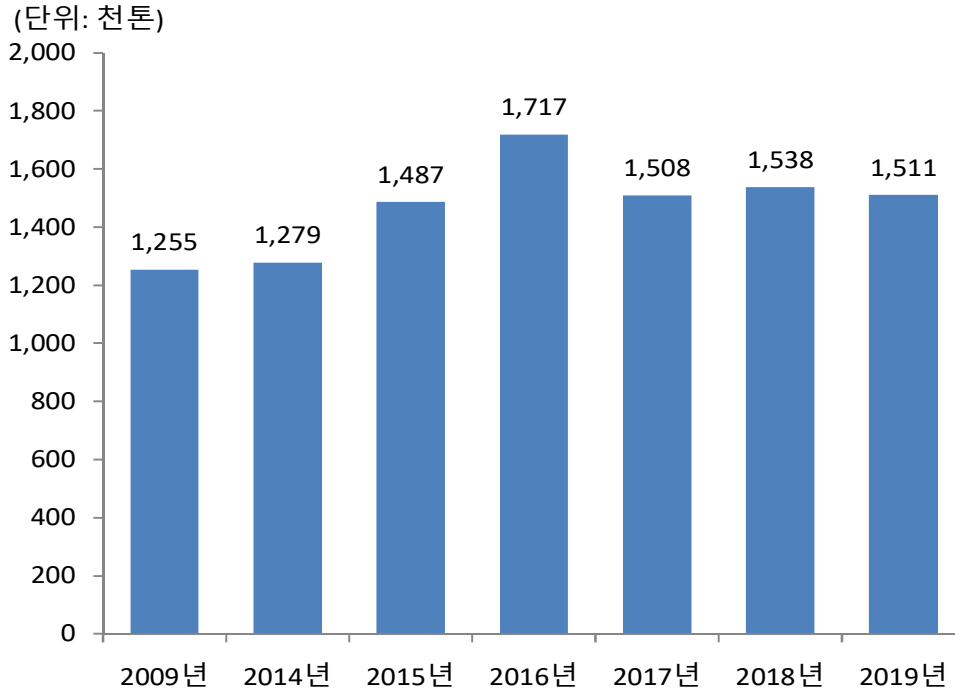
< 2019년 키위 국가별 생산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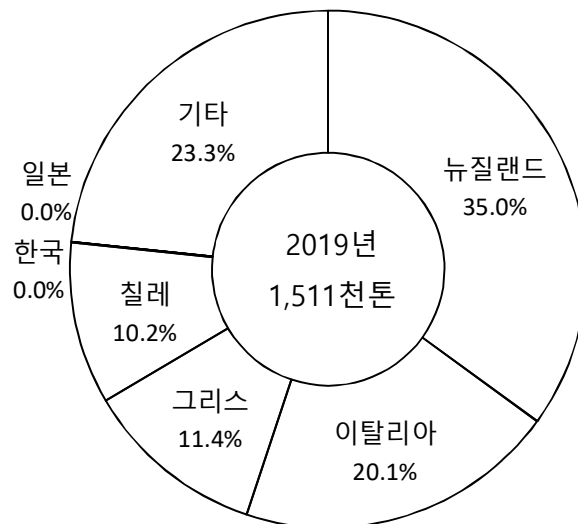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중앙과실협회

- 2019년 세계 키위 수출량은 151만1,000톤, 2009년 대비 25만6,000톤 증가(120.3%)
- 2019년 국가별 수출량은 뉴질랜드가 52만9,000톤(35.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탈리아 30만4,000톤(20.1%), 그리스 17만2,000톤(11.4%)

< 세계 키위 수출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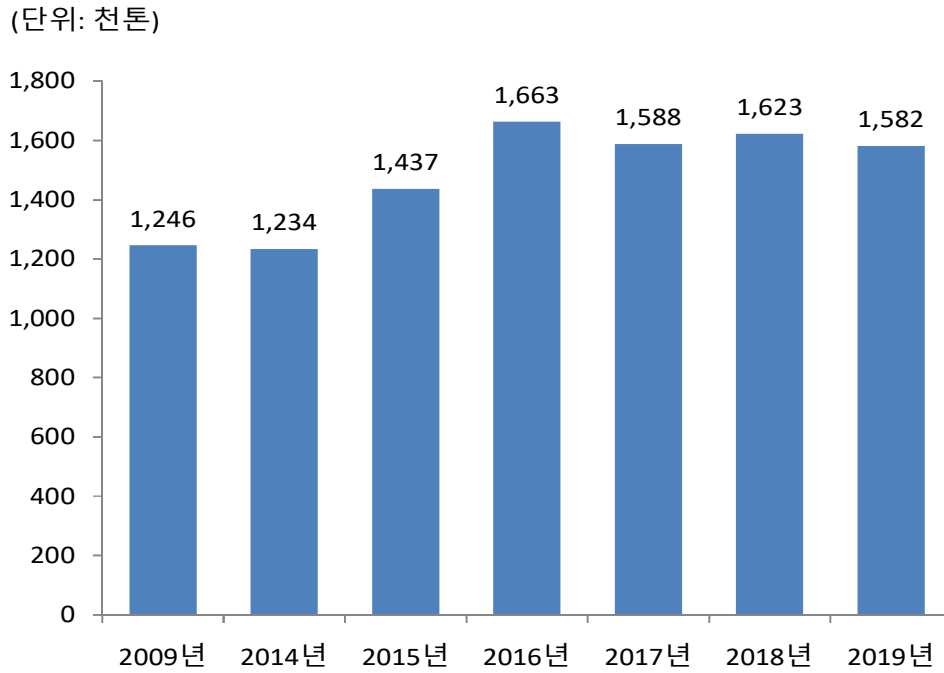
< 2019년 키위 국가별 수출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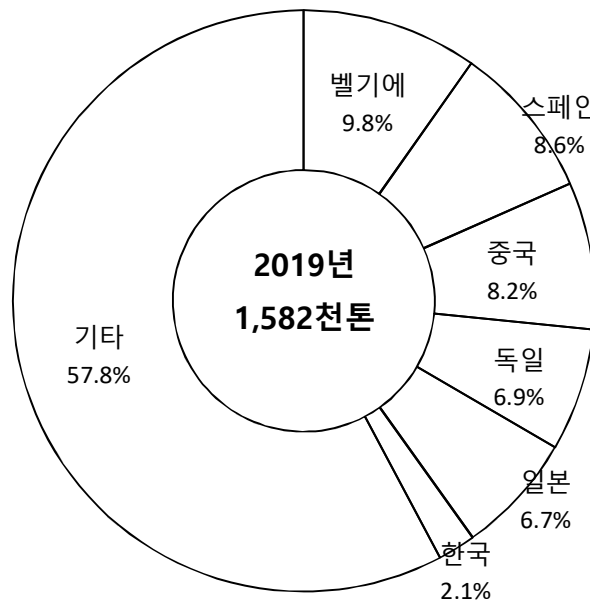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중앙과실협회

- 2019년 세계 키위 수입량은 158만2,000톤으로, 2009년 대비 33만6,000톤 증가(126.9%)
- 2019년 국가별 수입량은 벨기에가 15만4,000톤(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스페인 13만7,000톤(8.6%), 중국 12만9,000톤(6.9%). 일본은 10만7,000톤(6.7%), 한국은 3만3,000톤(2.1%)을 수입하고 있음

< 세계 키위 수입량 >



< 2019년도 키위 국가별 수입 비율 >



*출처 : 일본 중앙과실협회

- 2019년 세계 국가별 키위 소비량을 보면, 중국이 231만7,000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탈리아 28만3,700톤, 이란 25만700톤. 중국, 이탈리아, 이란 모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수입 의존율이 낮음
- 수입 의존율이 100%로 소비량이 상위인 곳은 4위인 벨기에가 15만4,400톤, 9위인 독일이 10만8,400톤, 11위인 러시아가 7만7,800톤으로 상위권임
- 아시아에서 수입 의존율이 높고 키위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세계 6위인 일본이 12만 9,800톤, 15위인 한국이 3만8,200톤, 16위인 대만이 3만4,600톤, 21위인 홍콩이 2만8,100톤

< 2019년 세계 키위 소비량 >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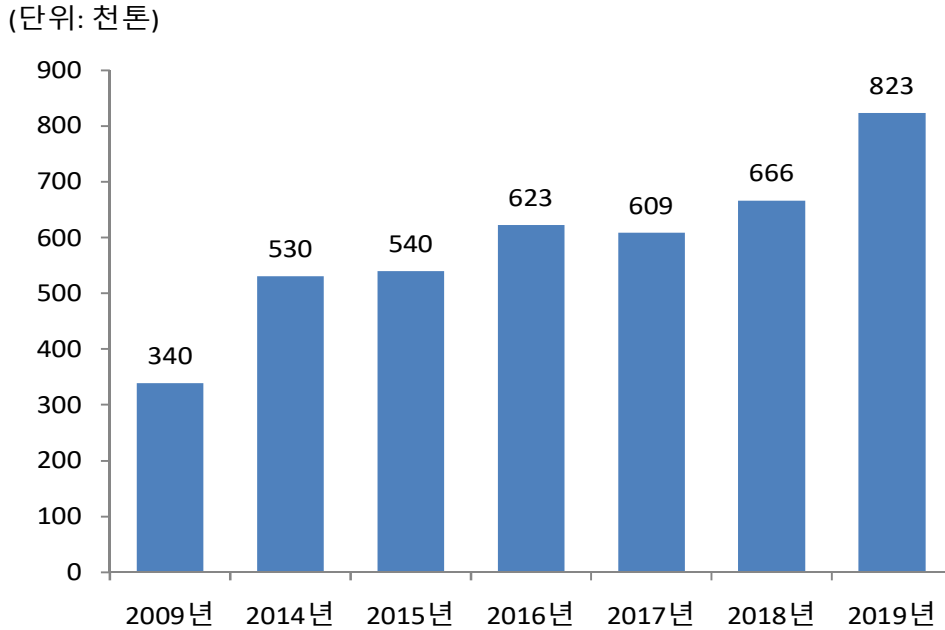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생산량	수출량	국가별 출하량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국가별 소비량 (출하량+ 수입량)	수입 의존율
1위	중국	2,196.7	8.9	2,187.9	129.1	2,317.0	5.6%
2위	이탈리아	524.5	304.1	220.3	63.4	283.7	22.3%
3위	이란	344.2	93.4	250.7		250.7	0.0%
4위	벨기에				154.4	154.4	100.0%
5위	스페인	24.5	22.2	2.3	136.6	138.9	98.4%
6위	일본	23.3	0.02	23.3	106.5	129.8	82.1%
7위	프랑스	55.8	11.1	44.8	75.4	120.2	62.8%
8위	그리스	285.9	172.2	113.7		113.7	0.0%
9위	독일				108.4	108.4	100.0%
10위	미국	46.7	13.8	33.0	69.3	102.2	67.8%
11위	러시아			0.0	77.8	77.8	100.0%
12위	네덜란드			0.0	65.7	65.7	100.0%
13위	터키	63.8	4.6	59.2		59.2	0.0%
14위	인도			0.0	43.2	43.2	100.0%
15위	한국	5.6	0.7	4.9	33.3	38.2	87.1%
16위	대만			0.0	34.6	34.6	100.0%
17위	폴란드			0.0	34.1	34.1	100.0%
18위	영국			0.0	31.3	31.3	100.0%
19위	브라질			0.0	30.1	30.1	100.0%
20위	뉴질랜드	558.2	528.8	29.4		29.4	0.0%
21위	홍콩				28.1	28.1	100.0%

*출처 : 일본 중앙과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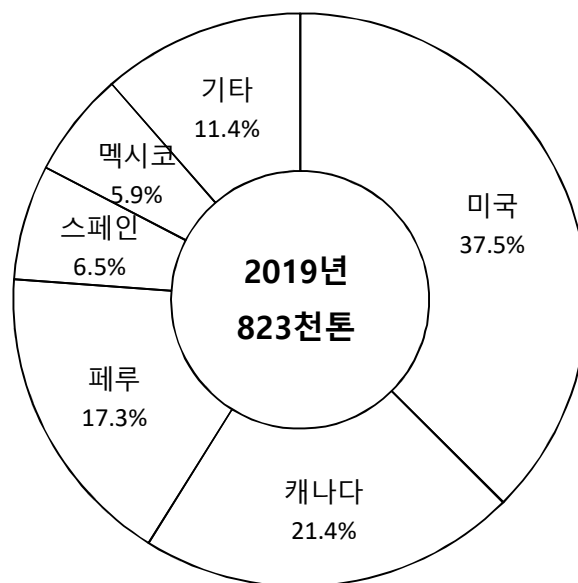
□ 블루베리의 해외 시장성

- 2019년 세계 블루베리 생산량은 82만3천 톤. 2009년 대비 48만3,000톤 증가(242.0%)
- 2019년 국가별 생산량은 미국이 30만9,000톤(37.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캐나다 17만6,000톤(21.4%), 벨기에 14만2,000톤(17.3%)

< 세계 블루베리 생산량 >



< 2019년 블루베리 국가별 생산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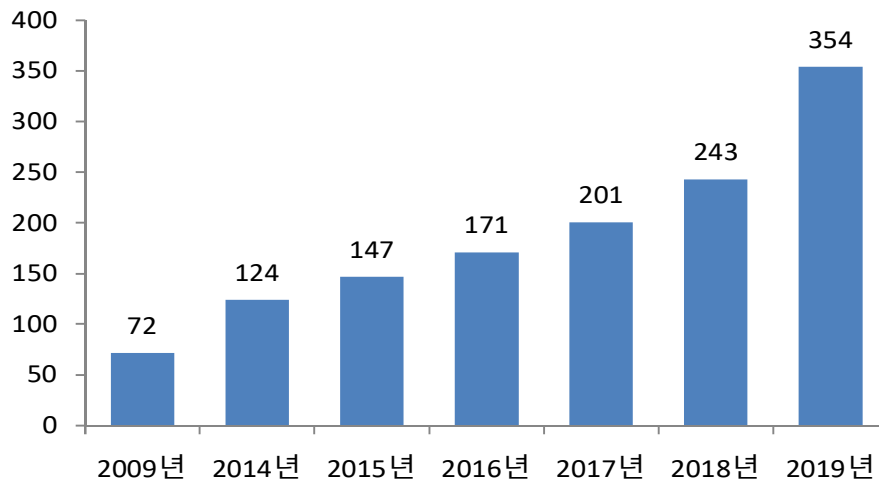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중앙과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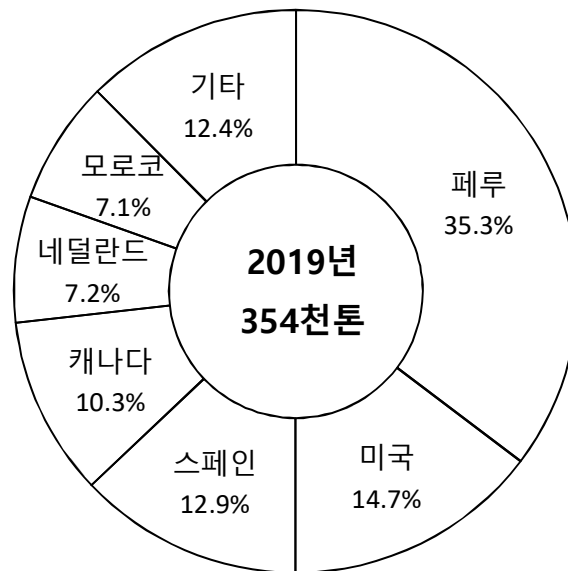
- 2019년 세계 블루베리 수출량은 35만4,000톤. 2009년 대비 28만2,000톤 증가(491.6%)
- 2019년 국가별 수출량은 페루가 12만5,000톤(35.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5만2,000톤(14.7%), 스페인 4만6,000톤(12.9%)

< 세계 블루베리 수출량 >

(단위: 천톤)



< 2019년 블루베리 국가별 수출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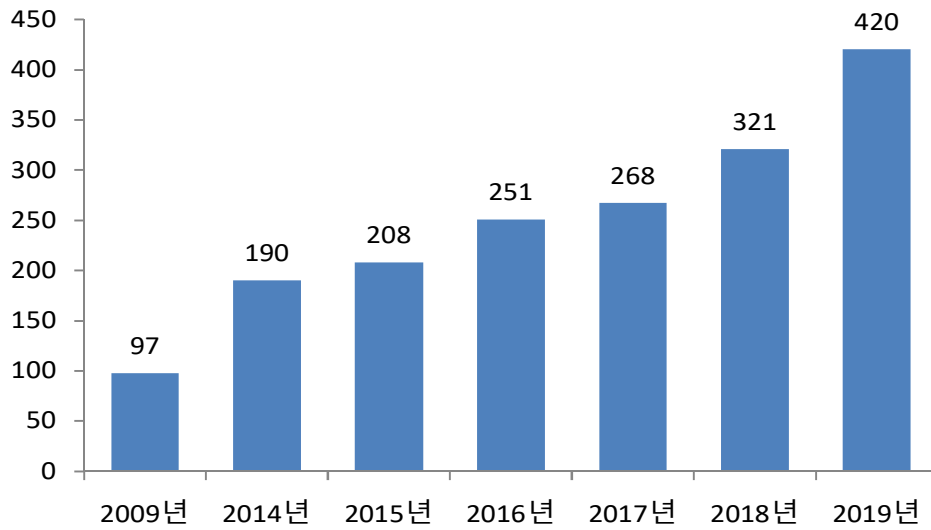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중앙과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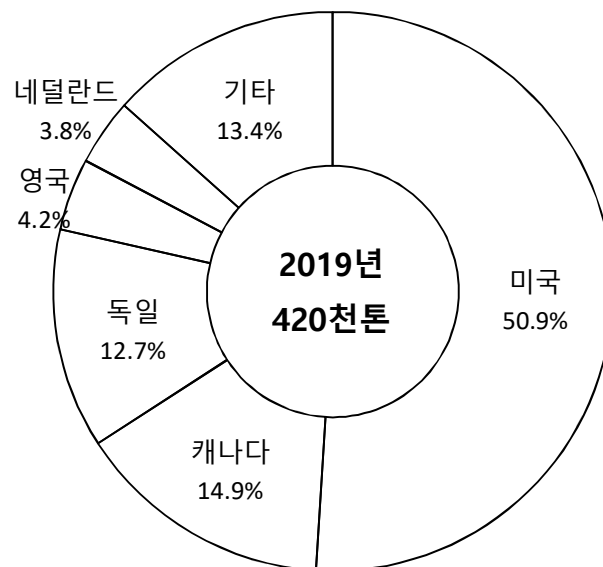
- 2019년 세계 블루베리 수입량은 42만 톤. 2009년 대비 32만3,000톤 증가(432.9%)
- 2019년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이 21만4,000톤(50.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캐나다 6만3,000톤(14.9%), 독일 5만4,000톤(12.7%)

< 세계 블루베리 수입량 >

(단위: 천톤)



< 2019년 블루베리 국가별 수입 비율 >



*출처 : 일본 중양과실험회

- 2019년 세계 블루베리 국가별 소비량을 보면, 미국이 47만800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캐나다 20만2,200톤, 독일 6만2,600톤. 미국과 캐나다는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수입 의존율이 낮음
- 수입 의존율이 100%이고 소비량이 상위인 곳은 6위인 영국이 1만7,500톤, 8위인 프랑스가 1만1,900톤, 12위인 이탈리아가 6,100톤으로, 유럽 국가가 상위권에 올라 있음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만이 수입 의존율 100%로, 소비량은 1,200톤임

< 2019년 세계 블루베리 소비량 >

(단위: 천톤)

순위	국가명	생산량	수출량	국가별 출하량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국가별 소비량 (출하량+ 수입량)	수입 의존율
1위	미국	308.8	52.1	256.6	214.2	470.8	45.5%
2위	캐나다	176.1	36.6	139.6	62.7	202.2	31.0%
3위	독일	14.9	5.7	9.1	53.5	62.6	85.5%
4위	멕시코	49.0		49.0		49.0	0.0%
5위	폴란드	34.8	18.6	16.2	12.0	28.2	42.5%
6위	영국			0.0	17.5	17.5	100.0%
7위	페루	142.4	125.1	17.4		17.4	0.0%
8위	프랑스			0.0	11.9	11.9	100.0%
9위	오스트리아	6.2	0.6	5.5	6.2	11.8	53.1%
10위	스페인	53.4	45.6	7.8	2.9	10.7	27.2%
11위	포르투갈	11.1	4.4	6.7	1.3	8.0	16.8%
12위	이탈리아			0.0	6.1	6.1	100.0%
13위	러시아	3.5		3.5		3.5	0.0%
14위	벨기에			0.0	2.6	2.6	100.0%
15위	덴마크			0.0	2.1	2.1	100.0%
16위	뉴질랜드	3.6	1.6	2.0		2.0	0.0%
17위	체코			0.0	1.9	1.9	100.0%
18위	우크라이나	2.4	0.8	1.6	0.2	1.9	11.7%
19위	네덜란드	11.1	25.6	11.1	16.1	27.2	59.3%
20위	대만			0.0	1.2	1.2	100.0%

*출처 : 일본 중앙과실협회